

여주의 옛 문서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of Yeoju Old Documents

선인들의 숨결을 느끼다

여주의 옛 문서 특별전

Old Documents of Yeoju

2012



여주박물관
Yeoju Museum

선인들의 숨결을 느끼다

여주의
옛문서
특별전

2012

Old Documents of Yeoju

2012



여주박물관
Yeoju Museum

발간사

《여주의 옛 문서 특별전》 도록을 발간하며

여주는 중심부를 관통하여 흐르는 ‘여강(驪江, 남한강)’의 경치가 빼어나 시인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일찍부터 ‘낙토(樂土)’라고 칭송되어 왔던 곳입니다.

여주박물관에서는 그간 기증·구입 등을 통해 여주의 옛 문서를 수집하여 왔으며, 다양한 신분계층의 옛 사람들이 살아온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코자 《여주의 옛 문서》 특별전을 개최, 전시 도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주에서 출생하신 명성황후의 가문인 여흥민씨 인물들의 편지글, 조선 효종 때 북벌정책을 펼치신 원두표선생의 가문인 원주원씨 인물들의 교지, 여주와 관련된 각종 문서, 기타 여주와 인연을 맺었던 분들의 편지글, 문집, 과지(科紙), 교지(教旨) 등 옛 선비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진귀한 자료들을 선보입니다.

선인들의 멋스러운 필체에서는 그들의 사상과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장에서 고즈넉함과 여유로움을 느껴보시고,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별전 개최와 도록 발간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이해를 높이며, 옛 사람의 슬기와 삶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조들의 소중한 유물을 기증하여 주신 여러 종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여 주 군 수

축간사

《여주의 옛 문서 특별전》 도록 발간을 축하하며

《여주의 옛 문서》 특별전의 개최와 도록 발간을 여주군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우리는 옛 선인들의 삶이 있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자료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옛 문서는 선인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1차 자료로써,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기록문화는 나라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여주에는 여흥민씨, 원주원씨 등 조선시대사에 있어 큰 역할을 하였던 종종들의 터전이 있어 많은 자료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오늘날 전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전은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옛 사람의 생각과 삶을 깨우치게 하고,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던 과거의 자료를 모든 세대가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주의 역사자료를 지속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자리가 확대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여주에서 이와 같은 뜻 깊은 전시가 개최됨을 축하드리고,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2012년 7월
여주군의회 의장

일러두기

1. 이 책자는 2012년 4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여주박물관에서 개최한 『여주의 옛 문서 특별전』의 도록이다.
2. 도록은 크게 옛 문서의 종류, 여주의 인물과 옛 문서를 중심으로 편집하였다.
3. 도판 목록은 명칭(한글, 한문, 영문), 크기(세로×가로×두께 cm), 연대 순으로 게재하였다.

차 례

- 발간사
- 축간사

1. 옛 문서의 종류

1) 나라에서 발급한 문서	12
2) 개인의 삶을 담은 문서	24
3) 생활 문서	34

2. 여주의 인물과 옛 문서

1) 고려시대	52
2) 조선시대	56
3) 여주관련 문서	105

3. 옛 문서와 소품

• 원문 번역	124
• 전시회 사진	160
• 표, 사진목록	162

1. 옛 문서의 종류

‘옛 문서’란 ‘고문서(古文書)’, 즉 ‘옛날 문서’라는 의미이다. 역사와 기록을 중시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오늘날까지 많은 수가 전해지고 있다. 이 문서들에서 우리는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필 수 있다. 고문서의 종류는 크게 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公文書)와, 개인문서(私文書), 생활문서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여 나라에서 관직을 수여한 교지, 편지나 시와 같은 개인의 삶과 사상을 담은 문서가 있고, 전답을 매매할 때 작성한 문서, 한 집안의 기록을 담은 호적단자 등 생활과 관련된 문서도 있다.

1. 나라에서 발급한 문서

公文書

국가 또는 관아에서 발급한 문서로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 · 시호 등을 내려주는 문서인 교지(教旨), 개인의 호구사항을 증명해주는 준호구(准戶口) 등이 있다.

1. 교지(教旨)

왕이 신하에게 관직 · 관작 · 자격 · 시호 · 토지 · 노비 등을 내려주는 문서로,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관료에게 관작 · 관직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 (告身 : 임명장), 문 · 무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 (紅牌), 생원 · 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 (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 (追贈教旨)라 하였고,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교지의 용어도 조선 개국 초기에는 왕지 (王旨), 관교 (官敎)라 하였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직명 (勅命)이라고 하였다.

교지에는 ‘시명지보 (施命之寶)’를 찍지만, 홍패와 백패에는 ‘과거지보 (科舉之寶)’를 찍는다.

2. 준호구(准戶口)

조선시대에 관아에서 개인에게 발급한 호구기록이다.

소송 시 첨부자료, 또는 노비소유나 추쇄 (推刷)의 자료, 혹은 기문 유지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3. 전령(傳令)

관원이 관하의 관리, 면임, 백성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이다.

4. 관문(關文)

관부(官府) 상호간에 오고가는 관용문서로서 동등한 관부 상호간과 상급관청(또는 상관)에서 하급관청(또는 하관)에 보내는 문서이다.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으로 올리는 문서는 ‘관(關)’을 쓸 수 없고, ‘첩정(牒呈)’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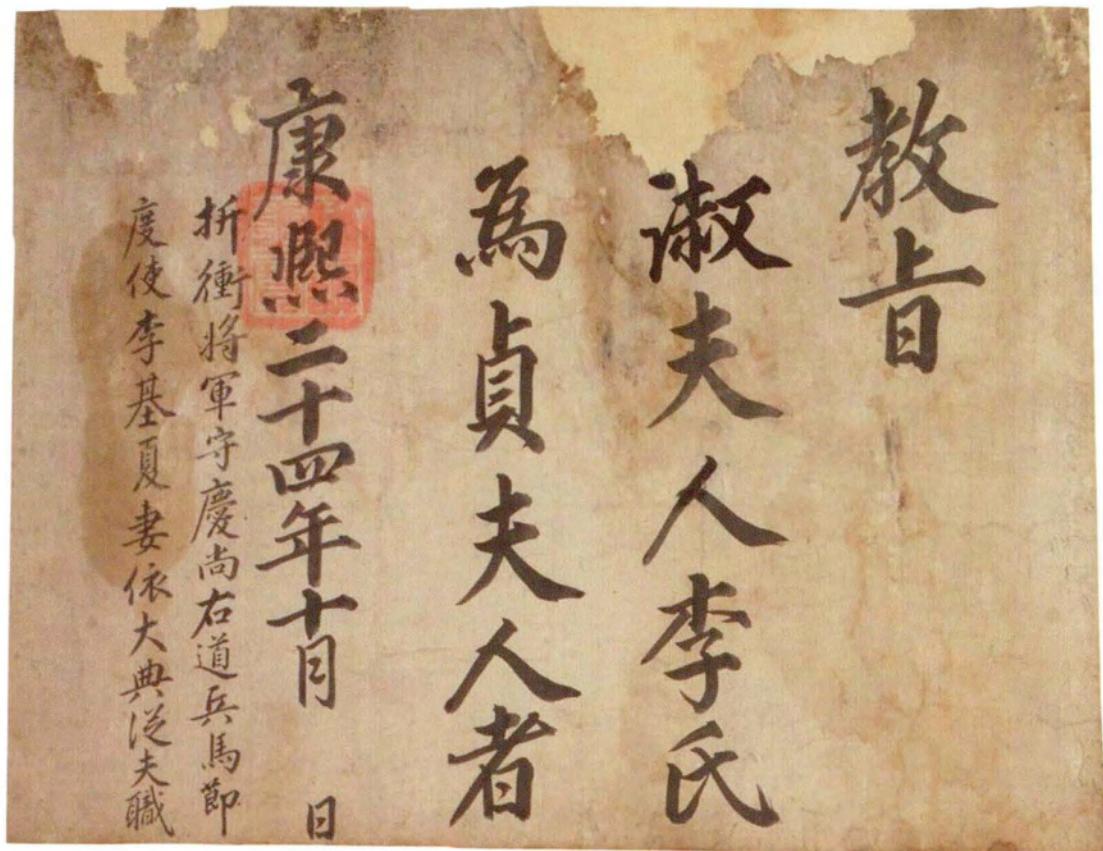


사진 1

정부인이씨 교지 | 1685년

이기하(李基夏, 1646~1718)의 본관은 한산(韓山)으로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된 후 그의 부인에게도 직책의 상승에 따라 정부인을 내린 교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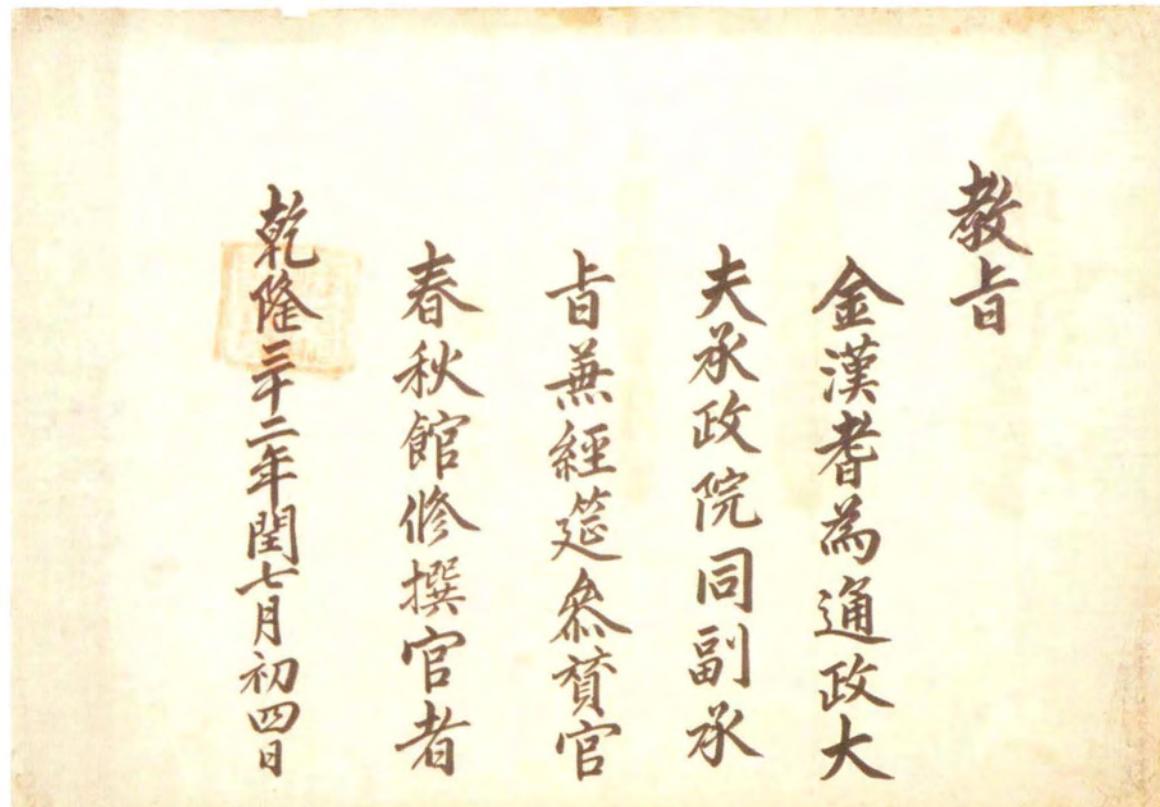


사진 2

김한기 교지 | 1767년

김한기(金漢耆, 1728~1792)를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한다는 교지이다.

김한기는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의 작은 아버지로 수어사·어영대장을 역임하는 등 영조의 신임이 두터웠다. 벽파로 정조 즉위 후 탄핵을 받았으나 후에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까지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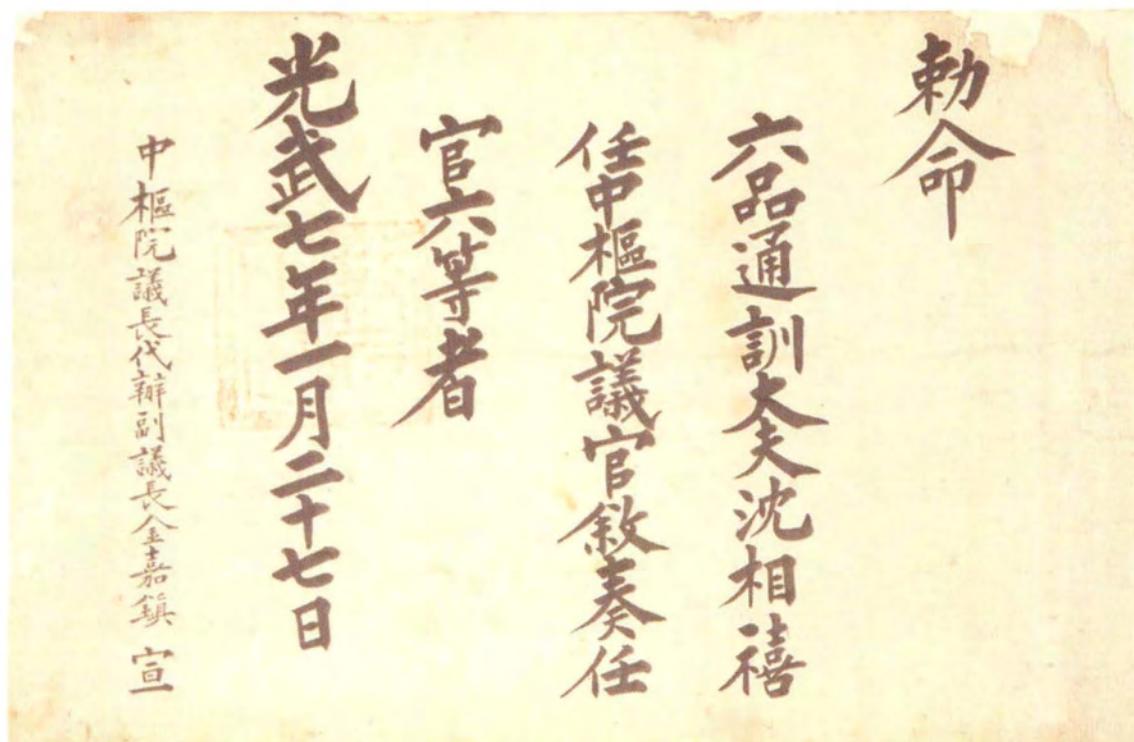


사진 3

심상희 칙명 | 1903년

심상희(沈相禧)를 중추원의 6등 주임관(奏任官)으로 임명하는 사령장이다. 주임관은 갑오경장 이후에 생긴 관계(官階)의 하나로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또는 각 대신이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주찬(奏薦)하여 임명한다. 교지라고 하지 않고 칙명이라고 한 것은 고종이 황제로 등극한 이후 황제의 격에 맞게 용어를 고쳤기 때문이다.

심상희(沈相禧, 1861~1931년)는 북내면 외룡리 출신으로,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내려지자 1896년 초 의병을 일으켰고, 여주일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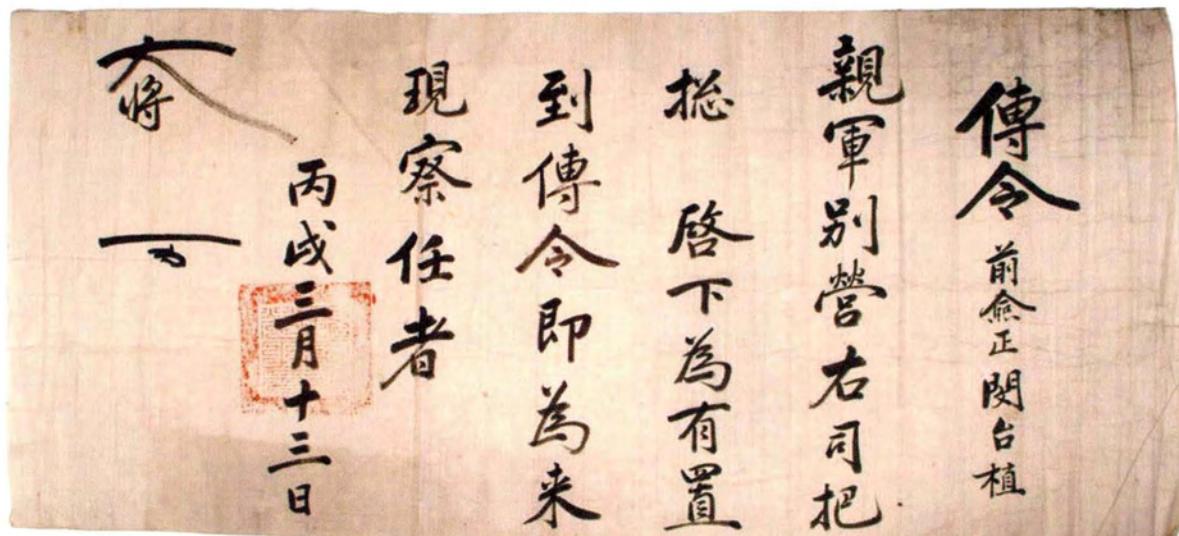


사진 4

민태식 전령 | 1886년

민태식(閔台植, 1838~1898)을 친군별영 우사의 파종으로 임명한다는 전령으로, 파종은 각 군영(軍營)의 종4품(從四品) 무관(武官) 벼슬이다. 3사(司)의 파종(把摠)은 경내에서 경력이 있는 당상 무관으로 차출한다.

민태식의 본관은 여흥(驪興), 민영희(閔泳喜)의 아들로, 영광수군첨사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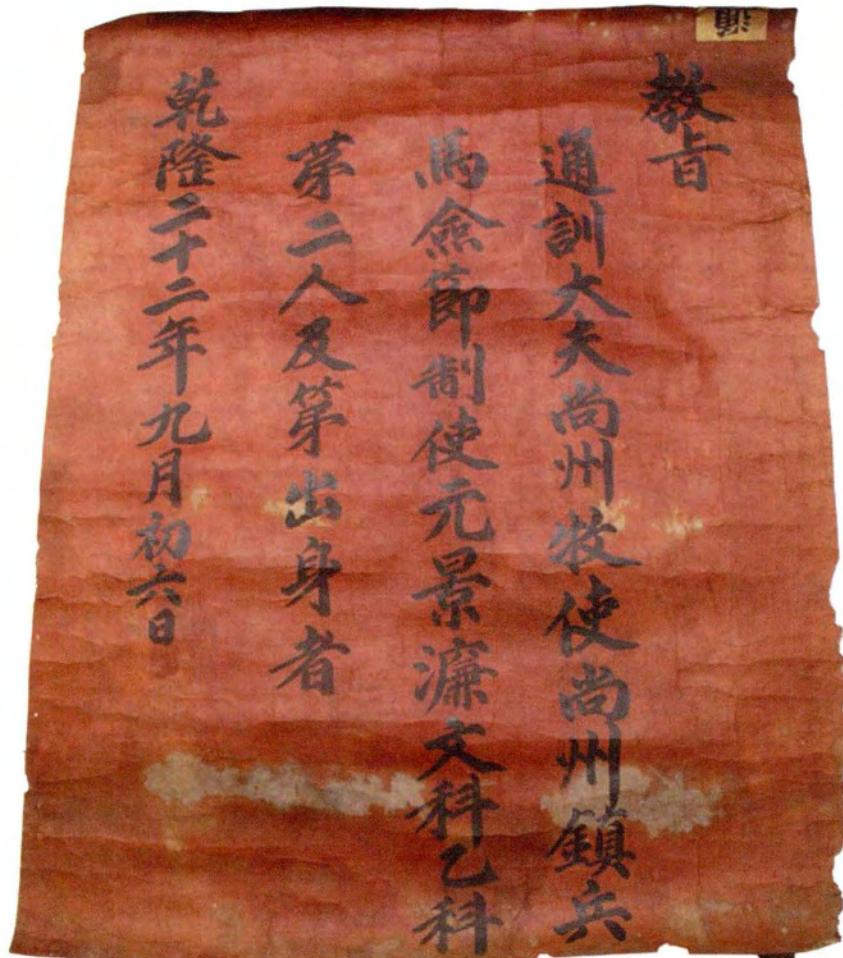


사진 5

원경렴 홍패교지 | 1757년

원경렴(元景濂, 1704~1767)은 조선 영조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도원(道源), 호는 소재(疎齋)이다. 좌의정 원斗표(元斗杓)의 현손이자 대호군(大護軍) 원명설(元命尙)의 아들이다. 정혜공(貞惠公) 이규령(李奎齡)의 손녀사위로 31세인 1734년(영조 10)에 음보(蔭補)로 처음 참봉에 제수되고 1757년(영조 33) 목사에 재직시 정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북도병사와 경기수사를 거쳐 병조참판에 이르렀으며 원흥군(原興君)에 봉해졌다. 묘는 여주군 북내면 장암리에 있다. 이 교지는 통훈대부 상주목사 상주진 병마검절제사 원경렴이 문과 을과 제2인의 급제자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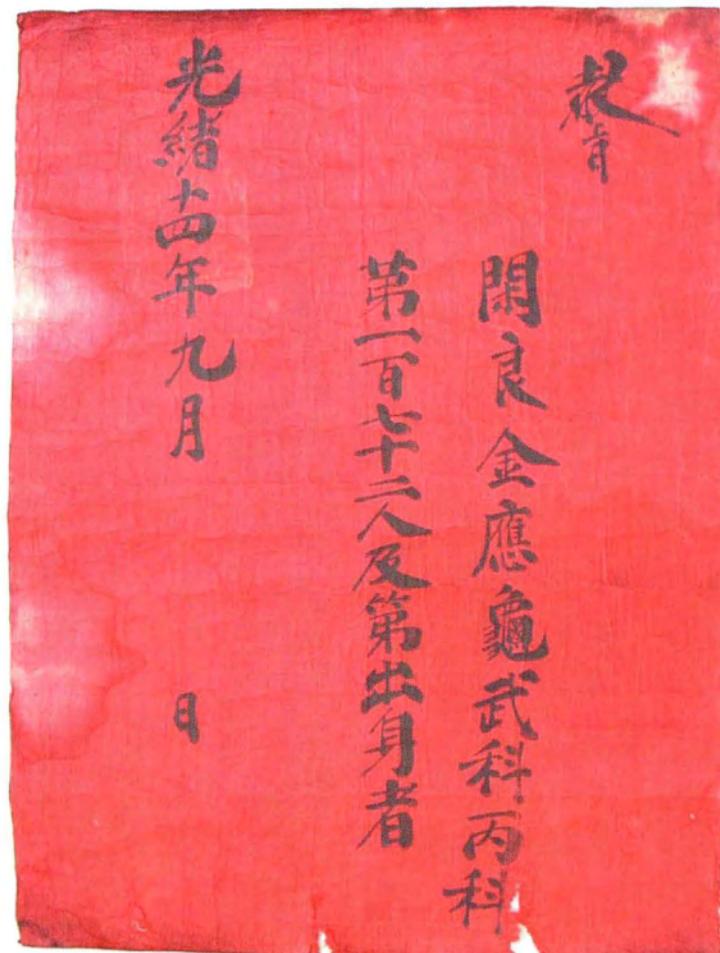


사진 6

김응구 홍패교지 | 1888년

한량 김응구(金應龜)를 무과 병과 172명의 급제자 중 한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교지이다.



사진 7

준호구 | 1867년

한성부에서 발급한 미영희(閔泳喜, 1817~?)의 준호구이다.

민영희는 민태식(閔台植)의 부친으로, 이 준호구는 민영희가 51세 때 발급받은 것이다.



사진 8

계문 | 1878년

병조에서 금군별장(禁軍別將) 신정희 후임으로 이봉의 등 3인을 적은 망천(望灘) 단자를 임금에게 올려 이중 이봉의를 낙점받은 계문(啓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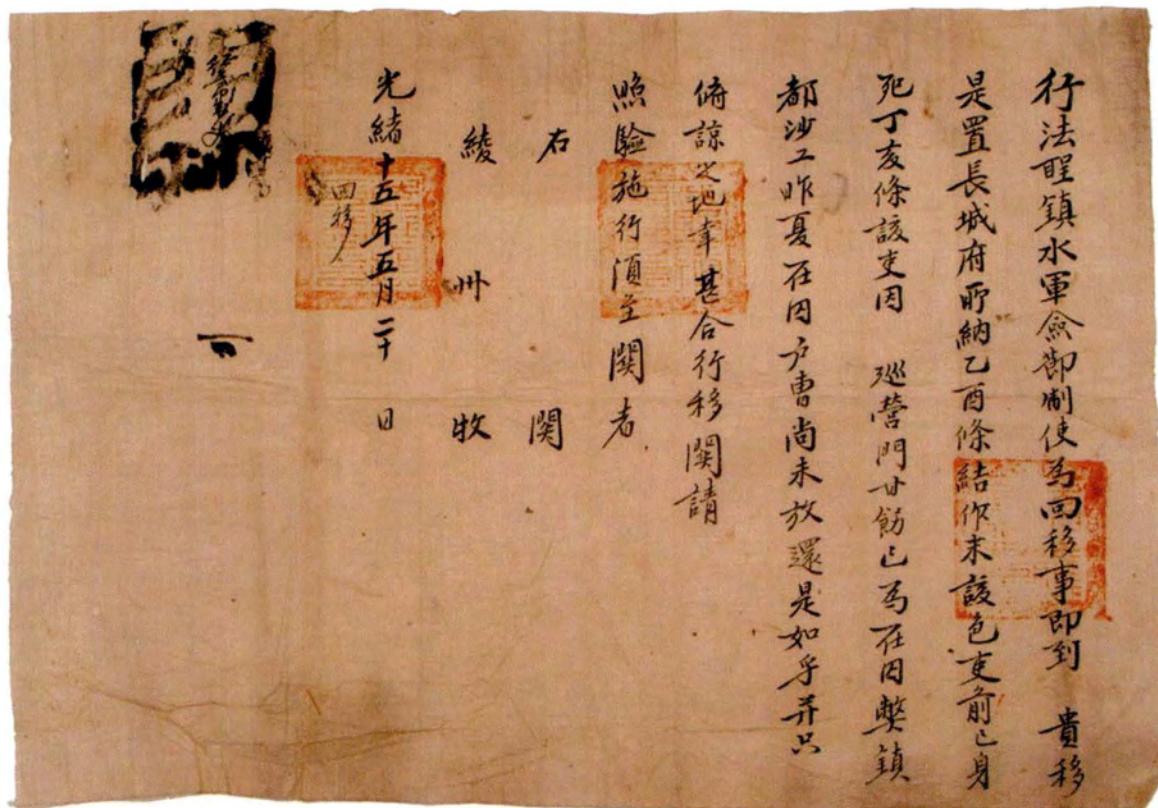


사진 9

관문 | 1889년

'관문(關文)' 이란 조선시대에 동등한 관청 상호간에 주고받는 공문서이나,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보내는 양식으로도 사용했다. 이 관문은 법성진수군 첨절제사가 업무와 관련한 여러 사항을 적어 보낸 이문(移文)에 대해 능주목에서 알아본 다음 첨사에게 그 내용을 적어 회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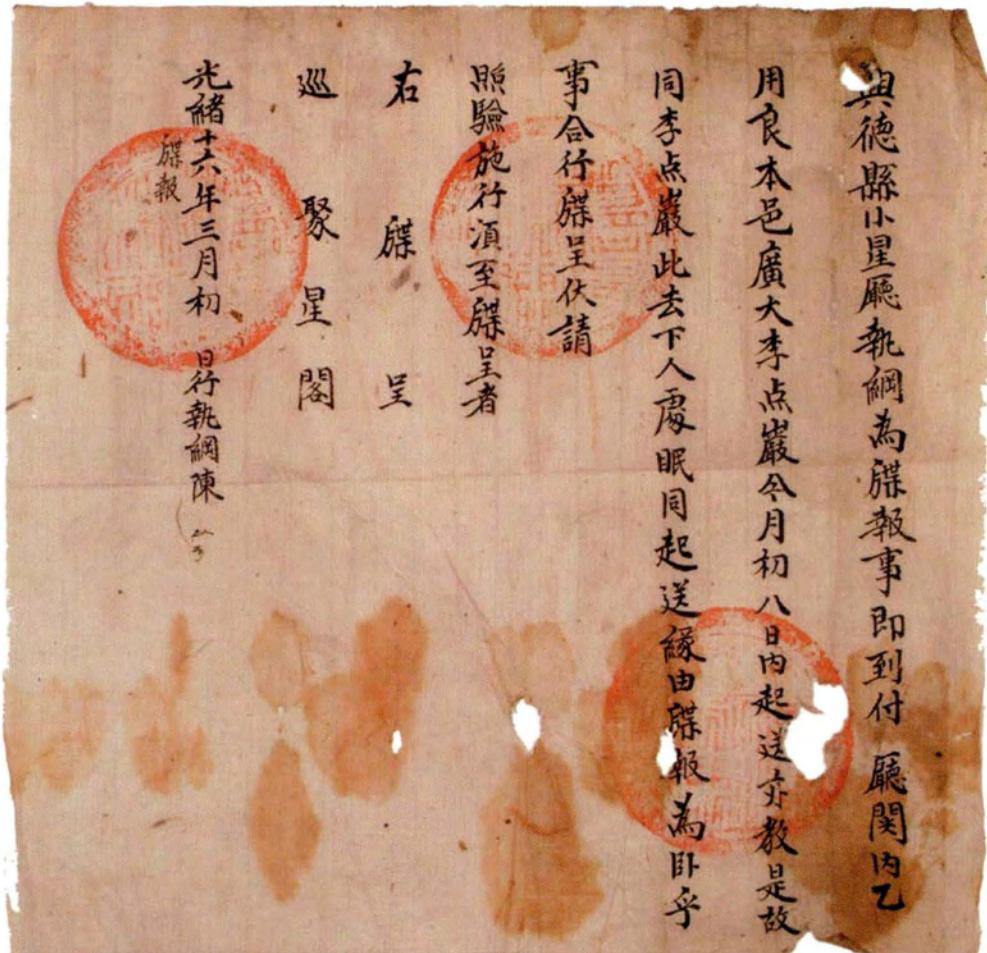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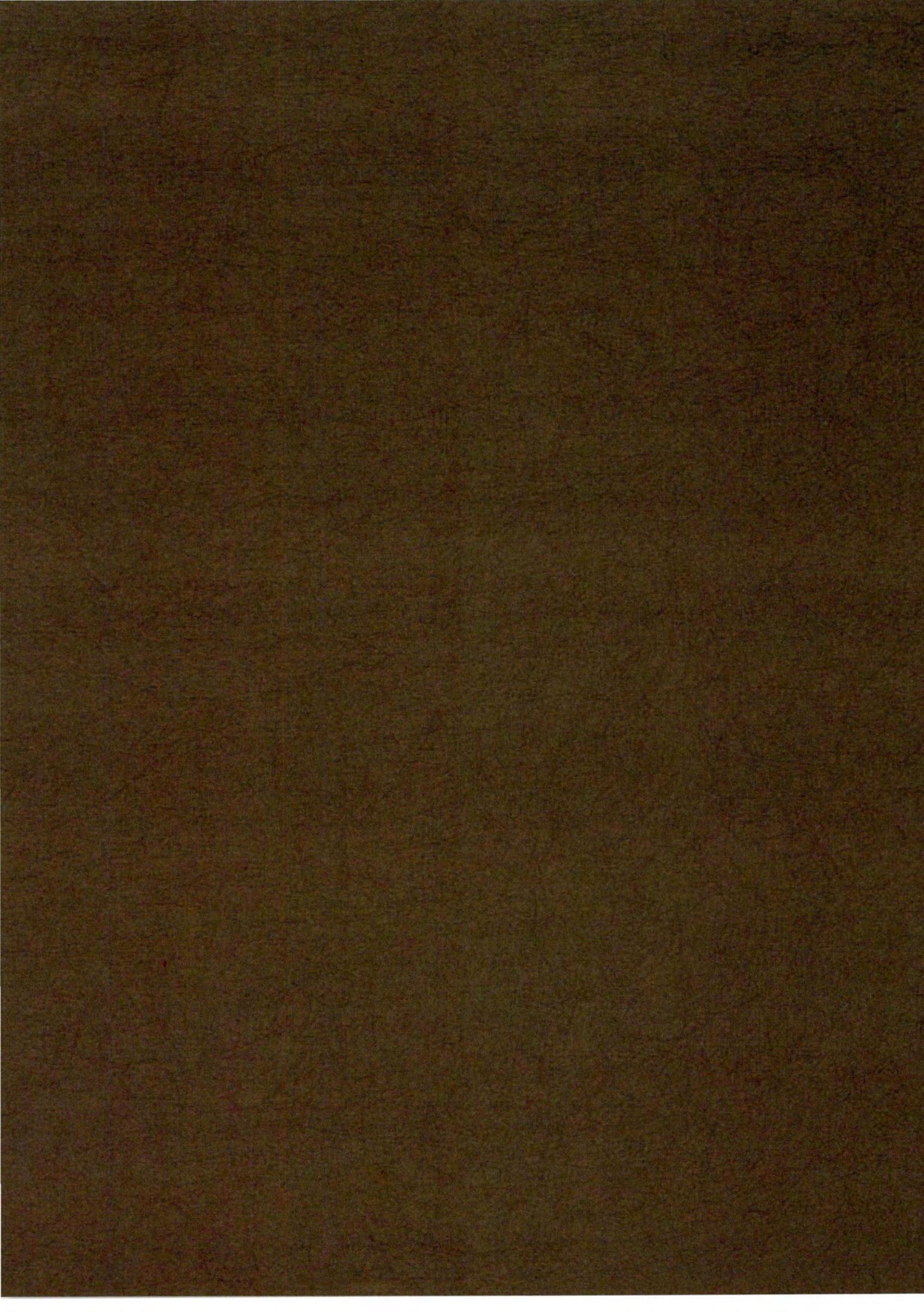


사진 10

첨정 | 1890년

‘첨정(牒呈)’ 이란 상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문서이다.

이 첨정은 흥덕현 소성청 집강이 수군첨사 민태식에게 보낸 것으로, 첨사가 광대를 보내라는 관문을 받고 그 명에 따를 것을 보고한 내용이다.



2. 개인의 삶을 담은 문서

私文書

옛 사람들의 삶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편지, 과거(科舉)시험의 답안지, 혼례 시 사용했던 혼서지 등 개인의 일생을 담은 문서들이다.

당시 사회상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 다양한 분야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료(史料)이다.

1. 간찰(簡札)

서간(書簡)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편지이다.

2. 과지(科紙)

과거시험의 답안지로, 시권(試券)이라고도 한다. 대소과의 시(詩), 부(賦), 송(頌), 책(策) 등의 시험지로, 시험지는 과거 응시생들이 각자 준비하여 가지고 왔으며, 응시생 명부에 이름을 적을 때 이것을 함께 제출하여 시험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시권에는 응시생의 신분, 성명, 나이, 본관, 거주지 그리고 사조(四祖)의 신분, 성명, 본관을 써서 봉(封)하는 비봉(秘封)이 있다. 사조를 모두 쓰지 않고 부(父)의 신분과 이름만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시권 우측하단에 응시자의 신분, 성명, 나이, 본관, 거주지와 부의 신분, 성명을 쓰고 종(縱)으로 자른 후 자른 부분을 말아 옮겨 기록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풀로 붙이고 “근봉(謹封)”이라 썼다. 시권에는 붉은 글씨로 一의 上 · 中 · 下, 二의 상 · 중 · 하, 三의 상 · 중 · 하, 次의 상 · 중 · 하 등으로 등수와 점수를 기록하였다.

3. 혼서(婚書)

혼인할 때에 신랑 집에서 예단과 함께 신부 집에 보내는 편지이다.

두꺼운 종이를 말아 간지(簡紙) 모양으로 접어서 쓴다.



사진 11

원경하 편지 | 1729년

조선 영조대의 문신 원경하(元景夏, 1698~1761)가 쓴 편지이다.

원경하는 본관은 원주, 자는 희백(華伯), 호는 창하(蒼霞) 또는 비와(肥窩)이다.

충익공 원두표의 현손이며, 효종의 부마인 흥평위(興平尉) 원몽린(元夢鱗)의 손자이자 홍주목사를 지낸 원명구(元命龜)의 아들로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에서 태어났다.

1721년(경종 1)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1736년(영조 12)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며 영조의 탕평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총애를 받았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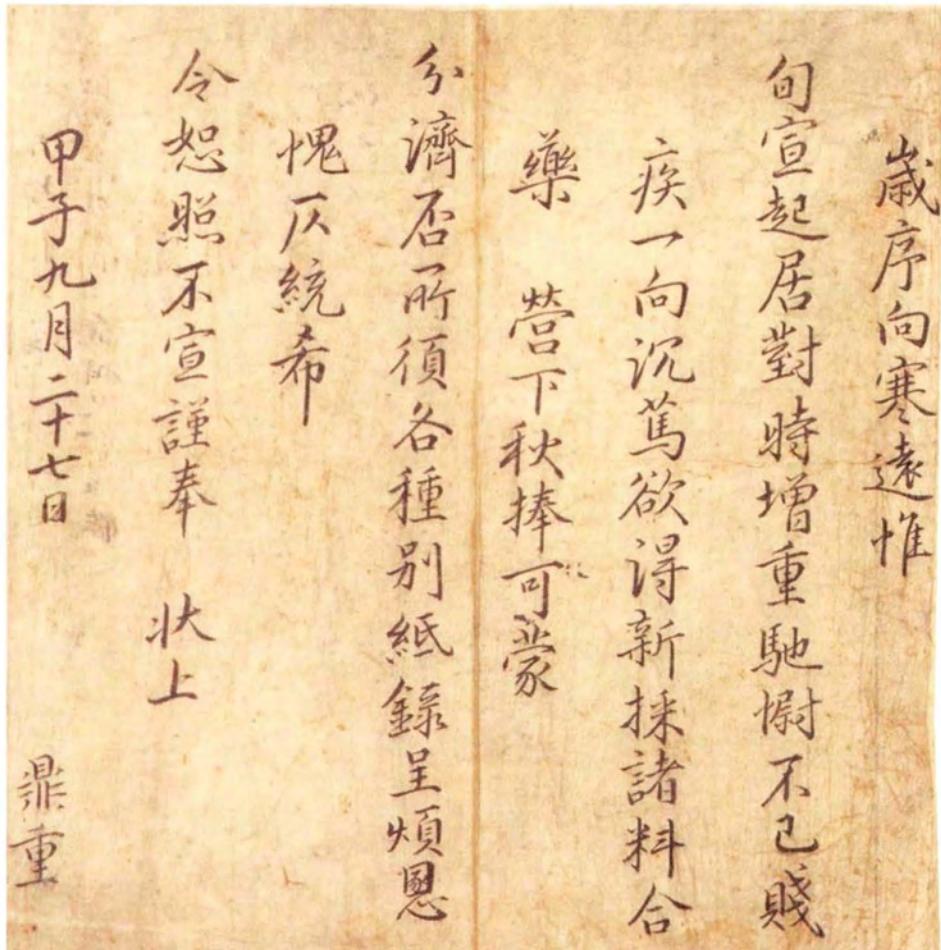


사진 12

민정중 편지 | 1684년

문종공 민정중(1628~1692)이 쓴 편지이다.

민정중은 숙종의 계비(繼妃)인 인현왕후의 큰아버지이며 우암 송시열의 문인으로 관직은 좌의정에 이르렀다. 서예에도 뛰어나 여러 비석의 글씨를 썼다. 묘는 여주읍 하거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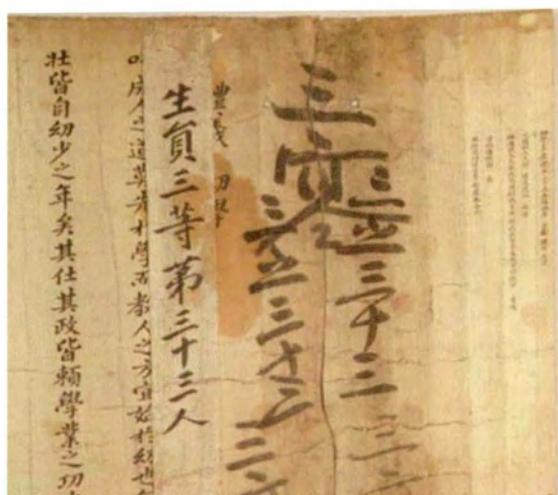


사진 13

이광건 과지 | 1801년

여주목 점령(占梁)에 거주하는 이광건의 생원시 과지로, 시험과목은 예(禮)와 의(義)에 대한 것으로 주제는 유학(幼學)이다. 성적은 차하(次下)이고 등수는 생원 3등 제33인이다.

1801년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이광건의 입격사실이 나온다.

이광건은 1777년생으로 당시 25세이며 부모 모두 생존해있다고 하였다.

영의정을 낸 이산해의 9대손이다. 그의 조부 이수일(李秀逸, 1705~1779)의 호는 구호(龜湖)이며 1771년에 승지에 올랐다. 이들의 묘는 점동면 사곡리 가래울 마을 뒷산에 있다.



사진 14

구호 과지 | 조선

시험 문제는 「左手持干戈右手持俎豆須臾取一印」이라는 『송사(宋史)』에 실린 조빈(曹彬)의 고사에 불인 칠언율시로 성적은 三下다. 『송사』에 조빈의 둘째 치 때 부모가 백가지 완구를 늘어놓았는데, 조빈은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왼손으로는 창과 방패를, 오른손에는 조두 제기를 쥐었다가 잠시 후에는 인장 하나를 집었다는 고사가 있다(曹彬碎日 左手提干戈 右手取俎豆 斯須取印, 餘無所視云). 조빈의 자는 국화(國華)다. 커서 송나라의 뛰어난 장군이 되었다. 조빈의 고사를 주제로 하여 과거문제를 냈고, 이에 대해 구호(具皓)라는 인물이 작성한 과지(科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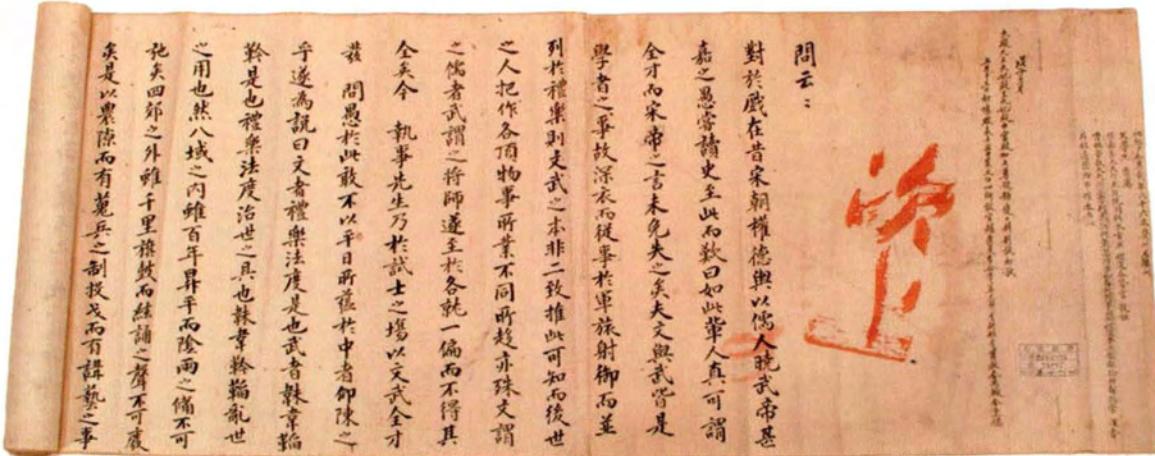


사진 15

김만재 과지 | 1888년

여주에 거주하던 유학(幼學) 김만재가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치르는 과거시험인 별시(別試)에서 작성한 과거시험 답안지이다.

문무를 겸비한 전재(全才)를 물은 데 대한 답을 적었다. 점수는 차상(次上)이다.

‘隨陸之爲儒’는 『진서(晉書)』 유원해재기(劉元海載記)에 “한(漢) 나라 수하(隨何)와 육가(陸賈)에게는 무용(武勇)이 없다.”고 한 것에서 인용하였다. 지아(止菴)는 시경「소공」에 나온다. 남국이 문왕의 교화를 입어 제후부인이 정성과 공경으로 물가의 쑥을 캐서 제사를 받들었다는 데서 나왔다.



사진 16

계유식 사마방목 | 1693년

조선시대 생원(生員), 진사시(進士試)의 합격자 명부이다.

조선시대에 실시된 생원 · 진사시가 모두 229회였으며, 그중 170회분에 가까운 명부가 발간되었다. 이 명부는 1693년(숙종 19)에 출간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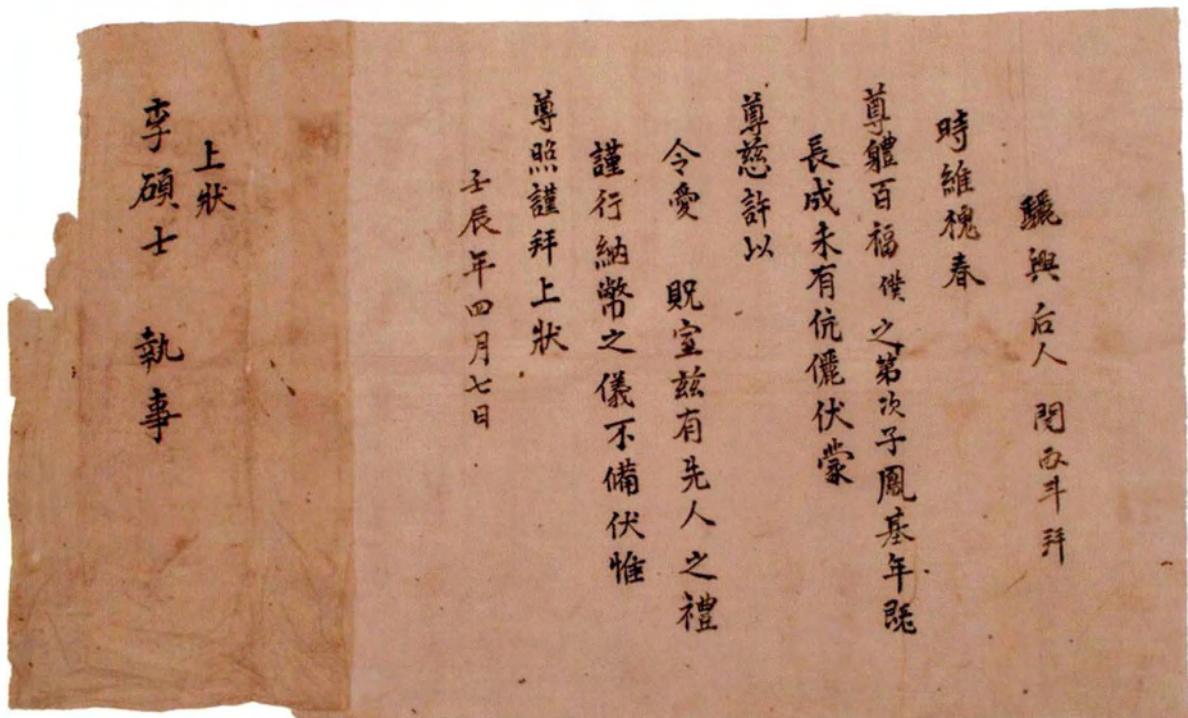


사진 17

혼서지 | 1952년

혼서식, 또는 예장지(禮狀紙)라고 부르는 혼서(婚書)의 하나로 함을 지고 납폐(納幣)를 갈 때 동봉하는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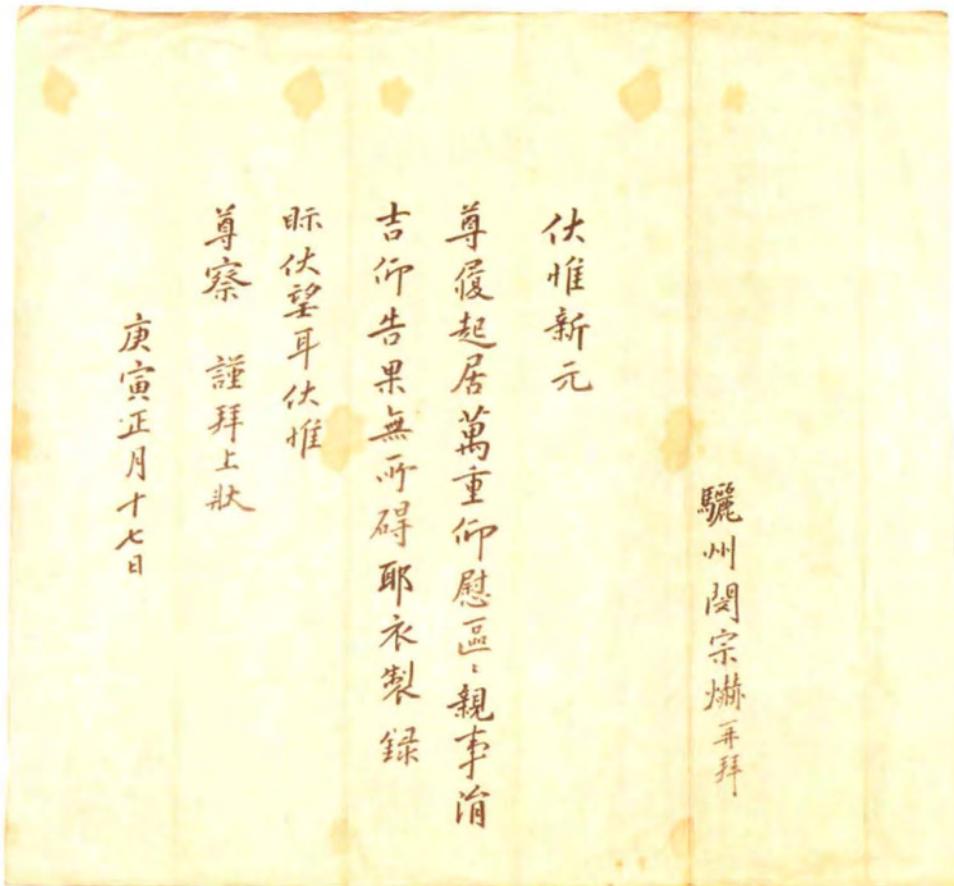


사진 18

연길답서 | 1830년

연길답서(涓吉答書)는 신랑측으로부터 혼례일을 정해달라는 연길서를 받은 후 신부측에서 답장으로 보내는 혼서의 하나다. 답서로 혼례 날짜를 알려주고 신랑의 의제(衣製), 즉 옷 치수를 묻는다.
 민종혁(閔宗煥, 1762~1838)의 자는 조언(祖彦)이고 호는 죽소(竹巢)이며 아버지는 백순(百純)이다.



3. 생활문서

生活文書

삶의 터전이 되는 토지 관련 문서, 가계(家系)에 대한 기록을 담은 호적, 청원의 뜻이 담긴 문서와 한 문중의 재산 분할 문서, 조상들의 기일을 기록한 문서 등 생활관련 문서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당시의 사회 모습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 명문(明文)

재산 또는 권리를 매매 또는 상환하면서 작성되는 문서이다. 전, 답, 임야 등을 매매하면서 작성되는 문서는 토지문기, 가옥이나 대지를 매매하면서 작성되는 가옥문기, 노비를 매매하면서 작성되는 노비문기 등이 있다.

2. 호적단자(戶籍單子)

조선시대에 호주가 3년마다 본인의 거주지, 가족, 소유노비 등 인구상황을 적어 2부씩 관에 제출한 문서로, 호구단자(戶口單子)라고도 한다. 이 호적단자를 근거로 각 호의 호구상황을 정리한 것이 호적대장이다. 호주가 호적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 또는 면임(面任)의 검토를 거쳐 주군(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옛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잘못 기록된 사항 및 호구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1부는 호주에게 돌려주고 1부는 호적대장을 수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호적표(戶籍表)'라 하였다.

3. 소지(所志)

사족(士族)이나 평민,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층의 사람들이 관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 진정서(陳情書)이다. 白活(발괄) : 관아에 억울한 사정을 말이나 글로 하소연 하던 일이라고도 한다. 소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4. 화회문기(和會文記)

화회에 의하여 작성된 재산 분배에 관한 문서이다.
즉 분재기(分財記)를 뜻하는 재산 상속문서로, 재주(財主)가 토지, 가옥, 노비 등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5. 장례 문서(葬禮 文書)

장례관련 문서로는 문중에 전해지는 것들이 많은데, 축문(祝文)은 제사 때에 읽어 신명(神明)께 고하는 글이고, 장사택일기(葬事擇日記)는 장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작성한 문서이며, 기신록(忌辰錄)은 조상들의 기일(忌日)을 기록한 것이다.

6. 물목(物目)

물건의 목록을 기록한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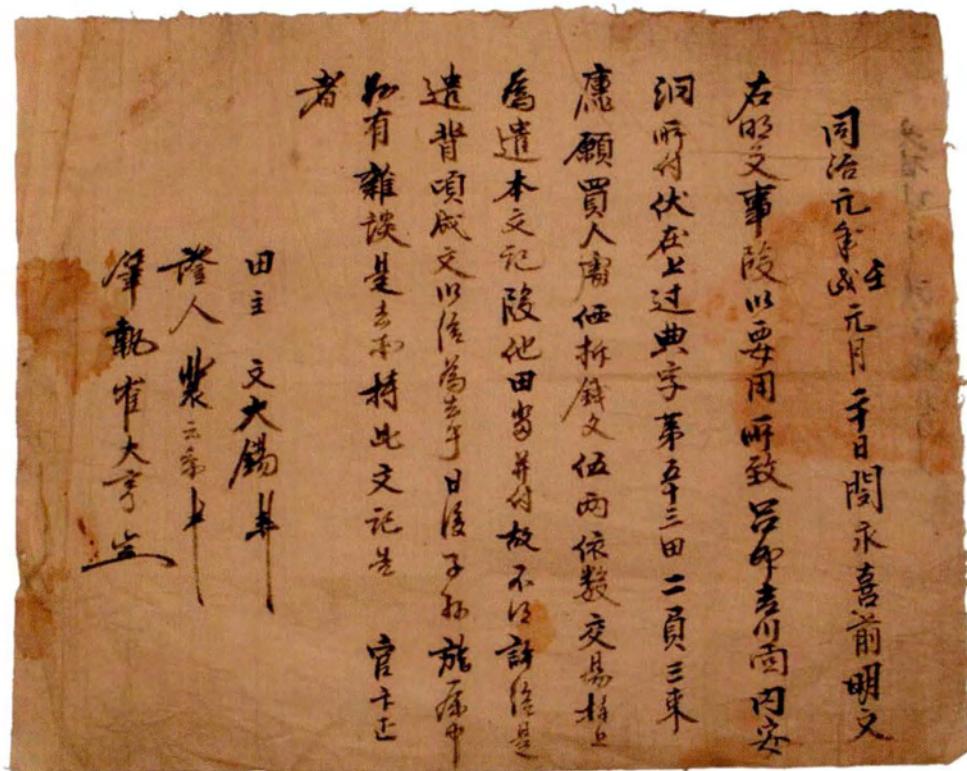


사진 19

명문(전답매매문서) | 1862년

밭주인 이천손(李千孫)이 민영희(閔永喜)에게 여주 길천면 내안동에 있는 자신의 땅을 팔면서 이를 증명해주기 위해 발행한 매매문서다.
길천면은 현재 흥천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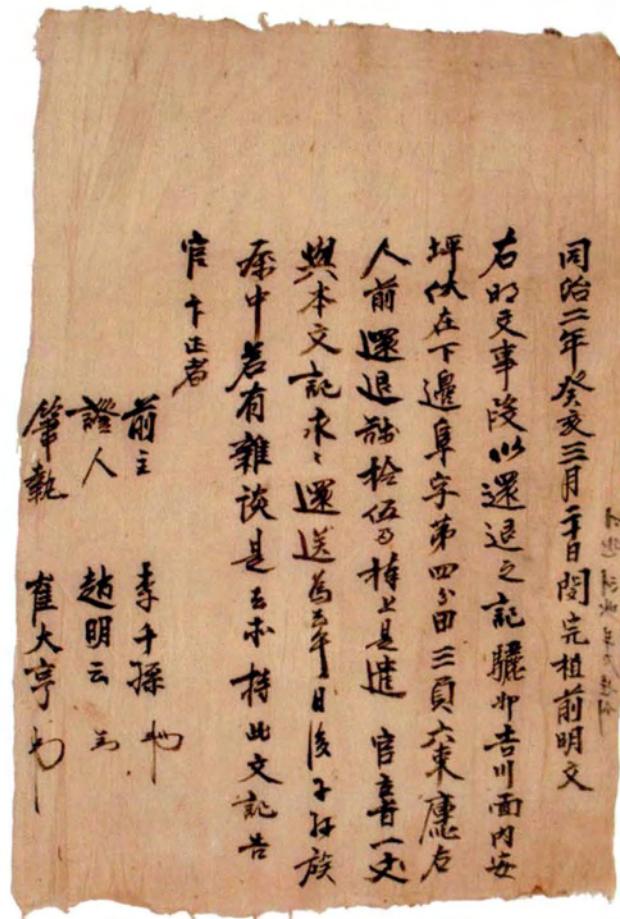


사진 20

환퇴명문 | 1863년

원래 밭주인 민완식(閔完植)이 환퇴를 조건으로 여주 길천면 내안평의 거래한 땅을 환퇴전을 지불하고 다시 산 매매문서다.

환퇴를 조건으로 사들인 전주인은 이천손(李千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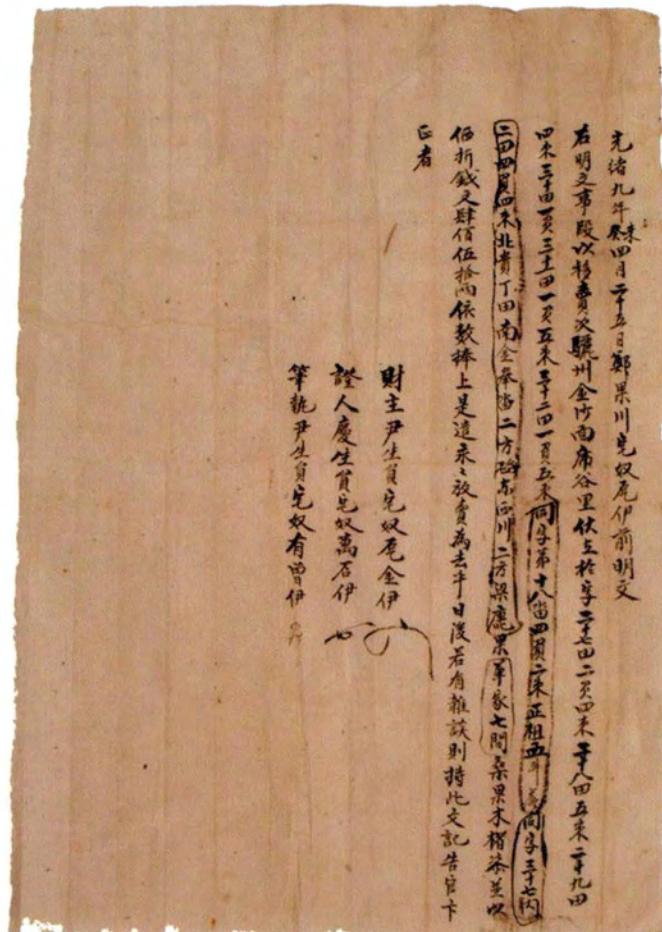


사진 21

명문(매매문서) | 1883년

여주 금사면 호곡리의 논밭 및 가옥, 나무 등을 팔기 위해 주인 윤생원이 정과천댁(鄭果川宅)에게 열거한 자신의 재산을 450냥을 받고 이를 증명해 주기 위해 발행한 매매문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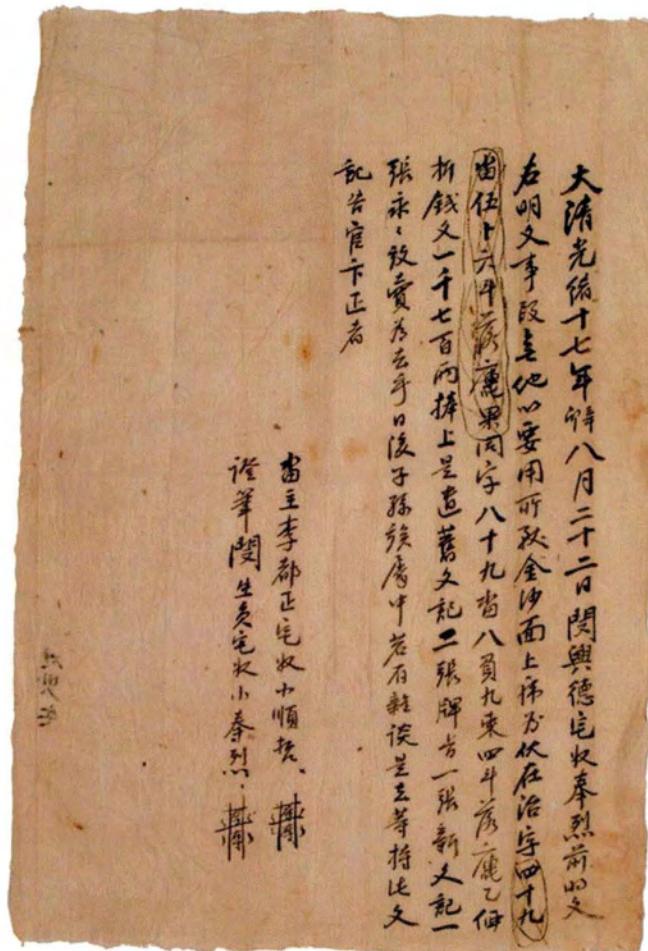


사진 22

명문(전답매매문서) | 1891년

논주인 이도정댁(李都正宅)이 민흥덕댁(閔興德宅)에게 여주 금사면 상호곡에 있는 자신의 논을 팔면서 이를 증명해 주기 위해 발행한 매매문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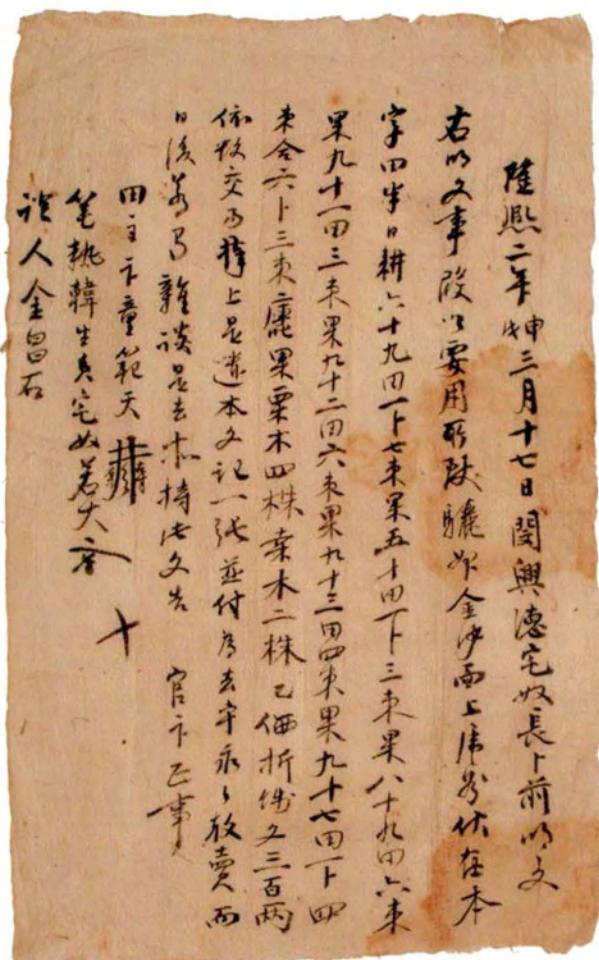


사진 23

명문(전답매매문서) | 1908년

논주인 변범천(卞範天)이 민홍덕대(閔興德宅)에게 여주 금사면 상호곡에 있는 자신의 밭 6부 3속과 울목 4주, 엽목 2주를 300냥을 받고 팔면서 이를 증명해 주기 위해 발행한 매매문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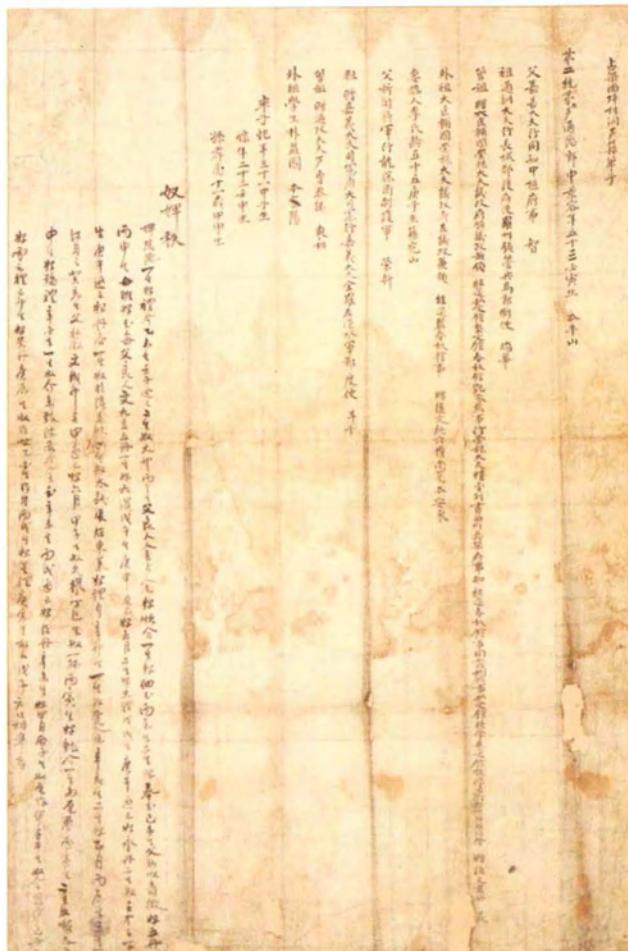


사진 24

호적단자 | 1774년

여주 점량면(지금의 점동면) 평촌동의 통덕랑 신경용(申景容)의 호적단자이다.

신경용은 1722년생이고, 그의 나이 53세인 1774년에 작성하였다.

노비의 수는 노 14구(口), 비 16구 중 도망비 4구, 도망노 2구, 동래거주 노 2구를 제외하면 22구다.

호적단자는 그것을 작성한 연호 또는 간지(干支). 그 주소와 함께 호주 및 그 처의 4조(四祖). 그 호를 구성하는 성원(소유하는 노비와 동거인도 포함)의 신분 · 성명 · 성별 · 연령과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사진 25

호적표 | 1900년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문서로 조선시대의 호적단자와 유사하다. 호적표에는 호주의 이름, 나이, 본관 및 직역(또는 직업) 뿐만 아니라 호주 4조 (즉 父, 祖, 曾祖, 外祖)의 직역과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유물은 광주부 실촌면 민병헌(閔炳憲)의 호적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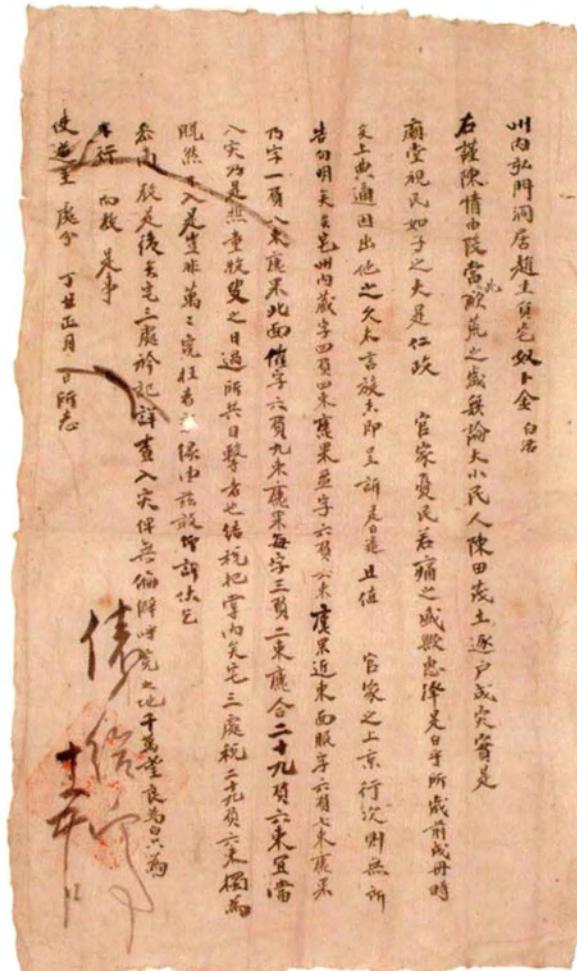


사진 26

발괄 | 조선

여주 주내(州內) 홍문동(弘門洞) 즉 현재의 여주읍 홍문리에 거주하는 조생원댁
노비 복쇠(卜金)가 흉년을 맞아 재난지로 들어가지 못한 주인 땅 세 곳 29부 6속에
대해 해가 지난 후에 이를 포함시켜달라는 소장(訴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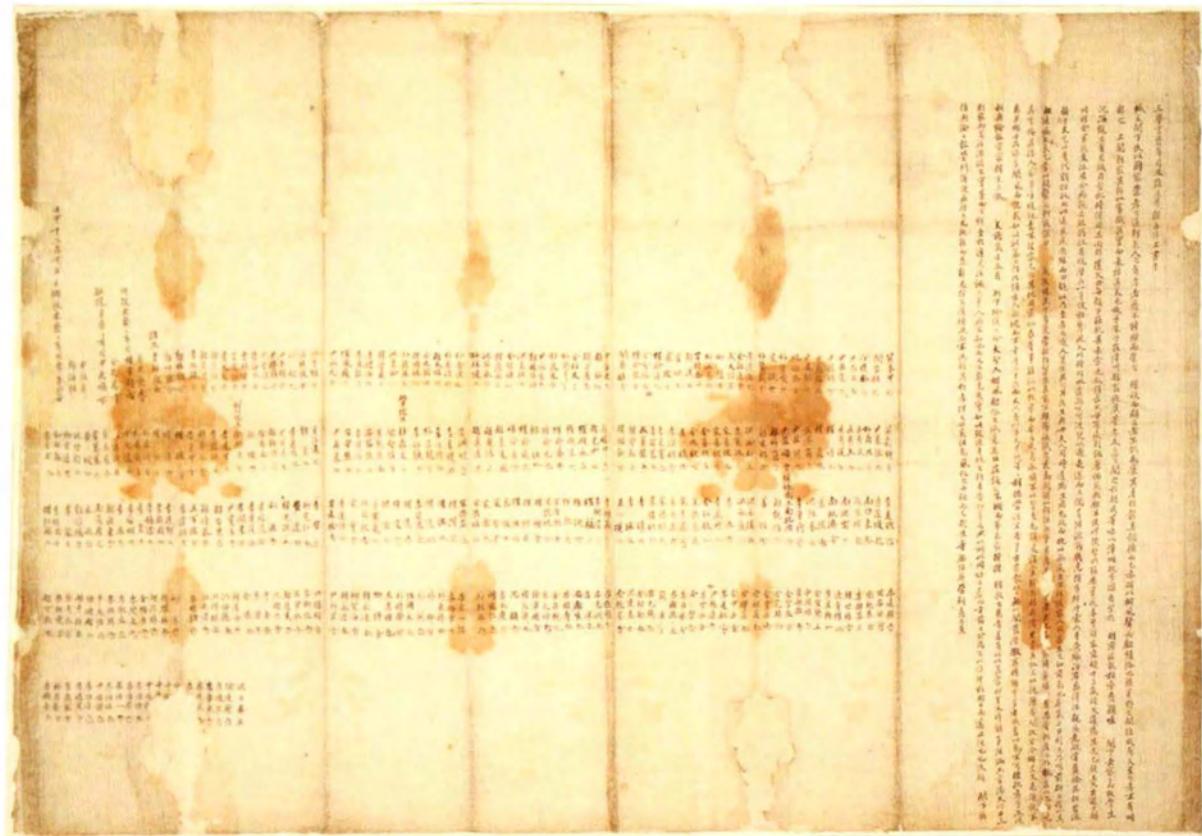


사진 27

등장 | 조선

작고한 심해룡(沈海龍)의 작설(綽楔, 본문에서는 桨楔)을 세워달라는 상소문이다. 작설이란 충신·열녀·효자를 정표(旌表)하기 위하여 대문 앞에 세우는 문(門)이다. 청송(青松) 심씨(沈氏)의 여주 입향조(入鄉祖)는 14세 심영(沈楹)으로, 그는 1667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흥천면 율극리(栗極里)로 입향하였다. 삼학궁이란 이천 지평 양근 3개 향교를 말한다. 여기에 여주향교와 여주 관내의 기천서원(沂川書院), 고산서원(孤山書院) 등의 재생들 대표가 모두 연명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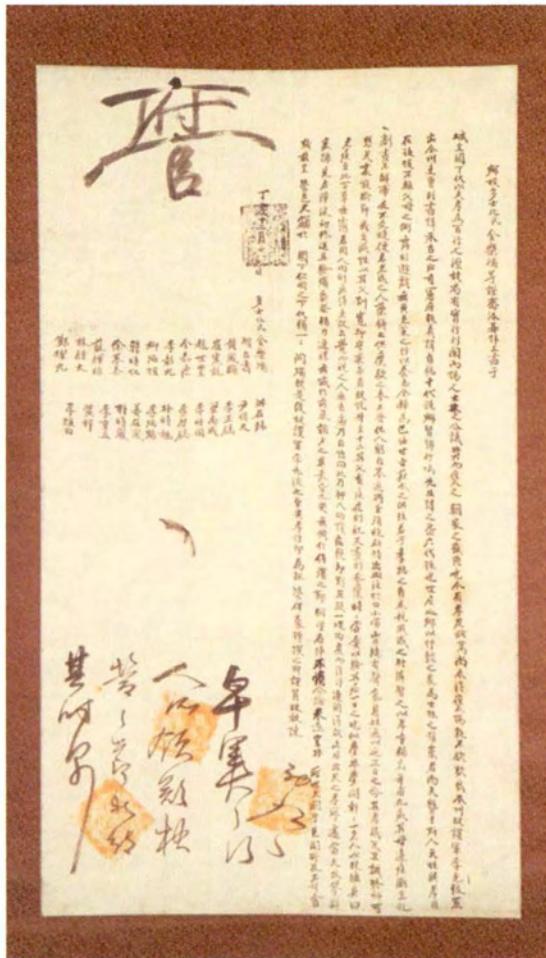


사진 28

등장 | 조선

김락홍 등 26인이 이광후라는 인물의 효행을 표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명소지이다. 등장은 여러 사람이 연명(連名)하여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이나 청원서·진정서이다.

소지(所志)의 일종으로 소지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지만, 등장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는 점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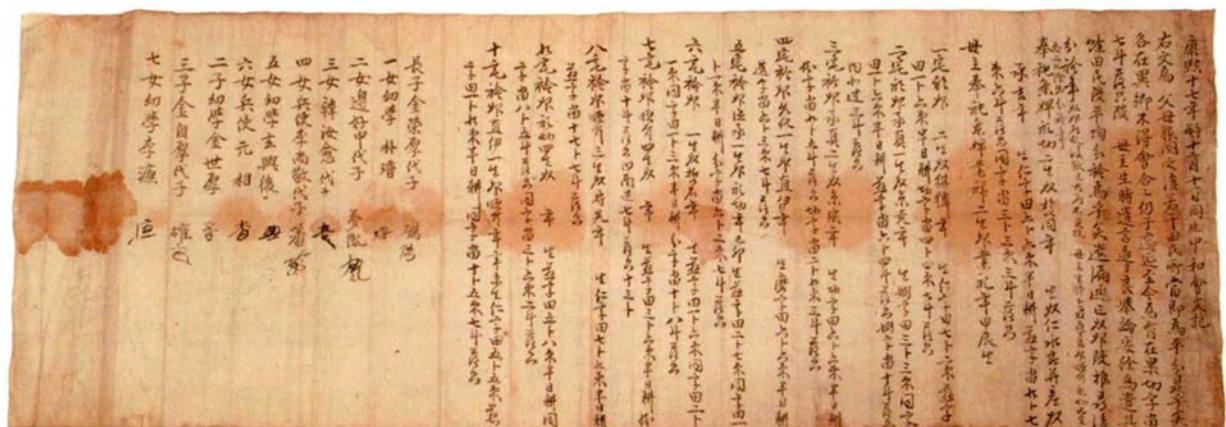


사진 29

화회문기 | 1678년

안동 김씨 안렴사공파 여주 귀백리 입향조 김환(金丸)의 6대손인 김훤(金暄)과 그의 부인이 죽은 후 자식들이 모여 합의한 분재기이다.

피상속자는 장남 김영후(金榮厚)를 비롯하여 아들 셋, 딸 일곱으로 평분의 원칙을 지켰다. 상속내용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각자의 이름 아래에 서명을 하였다.

17세기 후반에도 딸에게 재산상속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김훤의 증조인 11세 김공석(金公奭, 1477-1553)이 함경도병마절도사를 지냈고, 이상경(1609-1674), 원상 등 김훤의 사위에도 병마절도사가 둘이나 있는 무관집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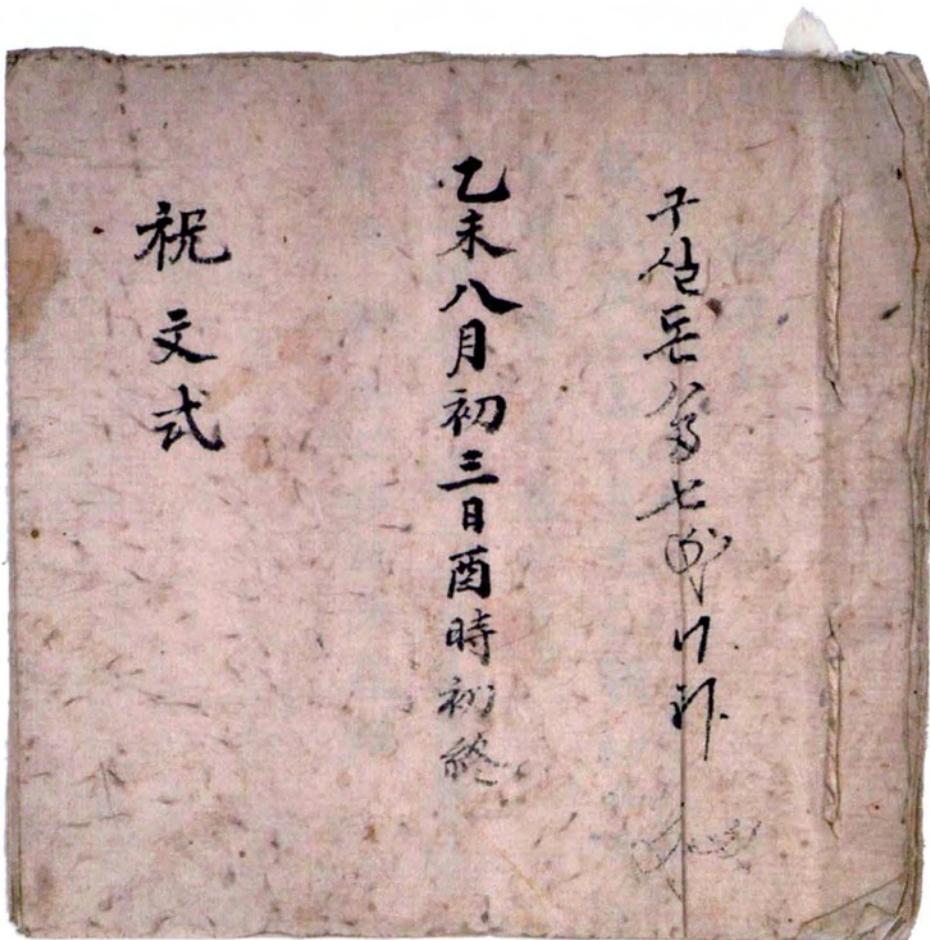


사진 30

축문식 | 1895년

민병헌(閔炳憲)의 조모이고 민병희(閔泳禧)의 부인인 인동 장씨 장례 때 작성된 축문이다. 졸곡을 5일만에, 초종(初終) 후 소상을 49일만에 지냈다. 조전(祖奠)은 발인 전에 영결을 고하는 제사이고, 견전(遣奠)은 발인(發引) 때 고하는 제사로 이 때의 축을 발인축이라고도 한다. 소상은 돌아가신지 한 달 만에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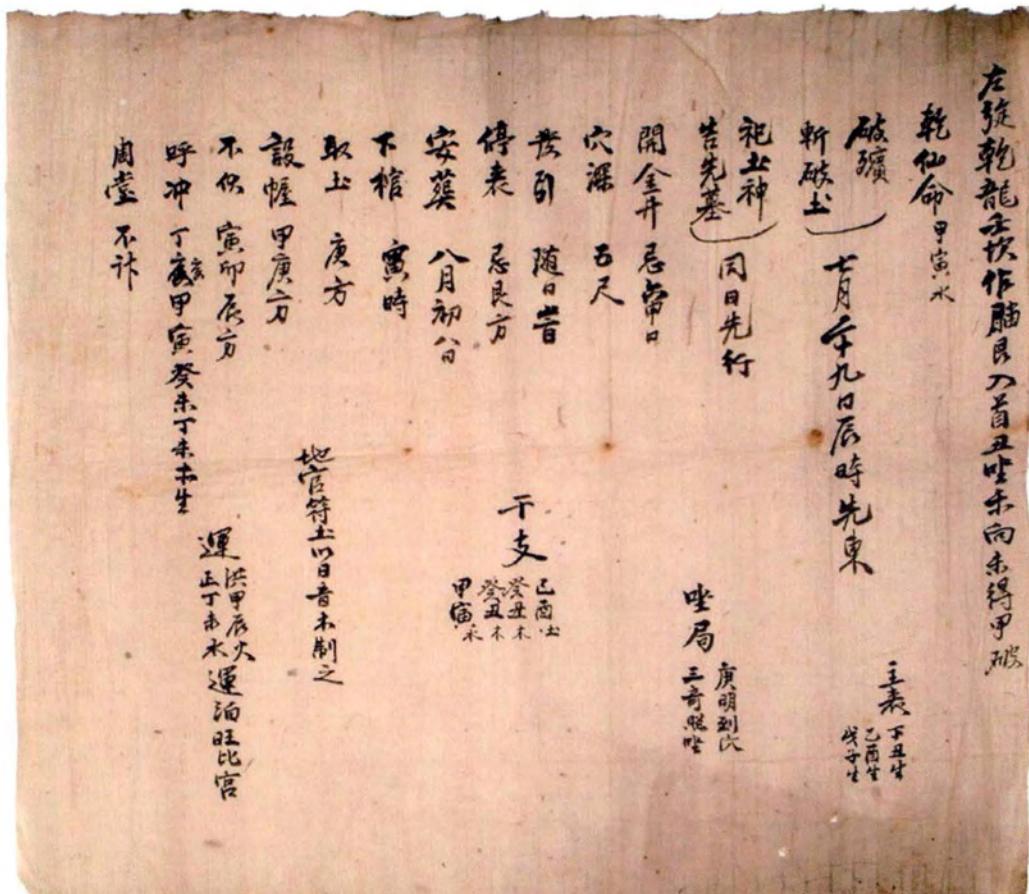


사진 31

장사택일기 | 조선

장지의 형국과 좌향, 참파토(斬破土), 사토신(祀土神), 개금정(開金井), 혈심(穴深), 발인(發引), 안장(安葬), 하관(下棺), 취토(取土) 등의 순으로 시각이나 방향(혹은 피해야 할 방향)을 적었다. 그리고 하관을 직접 봐서는 안될 자손이나 사람들의 간지(干支) 등을 추가했다.

内卦遼志日	
三月	五衣九日 自取夫人李氏初一日
	使祖承吉府君初二日
	祖母夫人安氏初九日
	從母夫婦人二十九日
一月	高祖考於臺縣刺府君三十七日
	伯祖妣文府君三十五日
	姑母夫婦人八初十日
三月	三月
	李氏繼母生府君二日
四月	仲父弘文繼母生府君初十日
	宋道五二十日
五月	仲母取入庭妻李氏二十一日
	承吉庵夫人母王李氏十七日
	外祖妣貞敬夫人李氏初一日
	外祖母柳氏十六日
	伯父弘文妣羅府君初六日
七月	先妣貞夫人柳氏平日
	五代祖文翁公平九日
	祖母夫婦人昌府君初四日
	伯父弘文妣羅府君初六日
八月	高祖妣昌夫人趙氏平日
	祖母成氏初一日
九月	從祖別提府君初六日
	外祖考文健公二十九日
	九月
	和平先生主教人閻九初一日
十月	曾祖妣昌夫人李氏初二日
	從祖加平府君初三日
	谷雲從祖昌三十九日
	伯祖妣李氏初九日
十一月	曾祖妣昌夫人許氏二十四日
	祖母夫婦人昌府君二十七日
十二月	曾祖妣昌夫人昌府君二十七日
	李氏繼母生府君二日

사진 32

안동권씨 기신록 | 조선

안동 권씨의 시조와 성씨의 유래를 밝히고 역대 선조들의 이름과 관직을 기록하였다. 후면에는 5대조부터 종조(從祖), 백종조(伯從祖), 외조(外祖)까지의 기일(忌日)을 월별로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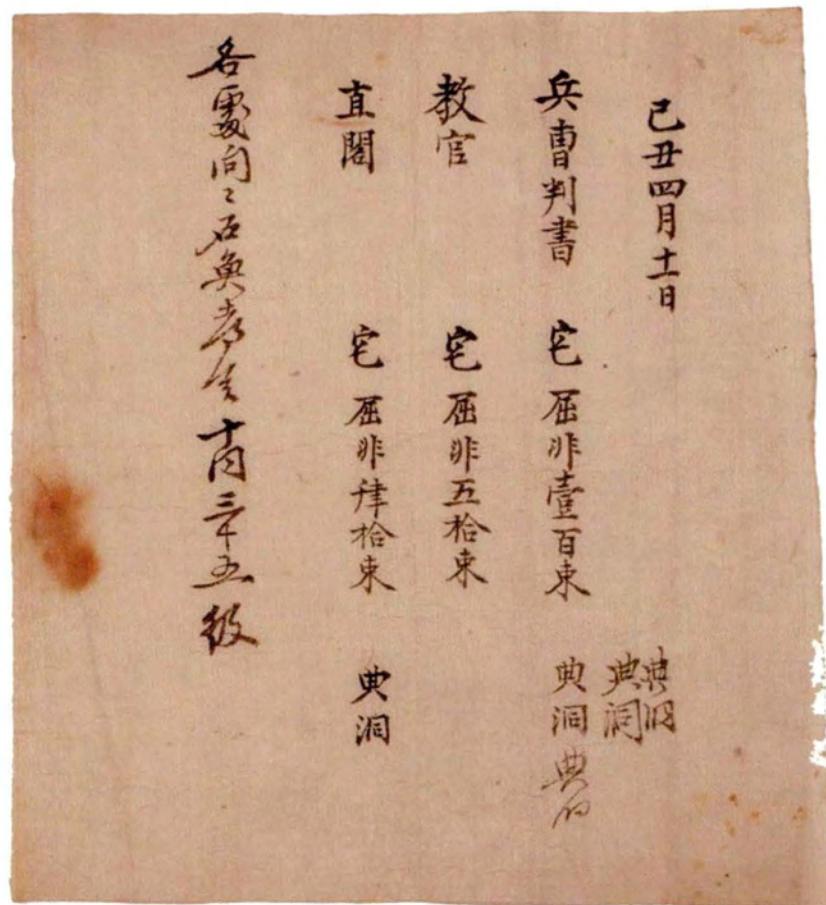


사진 33

물목기 | 1889년

서해안에서 나는 굴비와 조기가 적혀있는 물목기이다. 병조판서 댁 굴비 100속, 교관 댁 굴비 50속, 직각 댁 굴비 40속, 각처로 보낼 조기 수량은 총 10동 35급이다.

2. 여주의 인물과 옛 문서

여주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로는 여주를 본관으로 하거나 출생한 인물 등이 있다. 고려시대의 인물로는 이규보(李奎報, 1168~1241년), 이색(李檍, 1328~1396년)이 대표적이고,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의 능을 모시게 되어, 조선의 왕과 인연을 맺게 된다. 또한, 민정중(閔鼎重, 1628~1692년), 민유중(閔維重, 1630~1687년), 민진후(閔鎮厚, 1659~1720년), 민진원(閔鎮遠, 1664~1736년) 등으로 대표되며 인현왕후(仁顯王后, 1667~1701년)와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년)를 배출한 여흥민씨 집안과, 원호(元豪, 1533~1592년), 원두표(元斗杓, 1593~1664년), 원두추(元斗樞, 1604~1663년)를 배출한 원주원씨 인물들이 있다. 이들 종중의 묘는 여주 지역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많은 후손들이 여주에 살고 있다.

조선 말기 의병활동을 펼친 인물로는 심상희(沈相禧, 1861~1931년), 이인영(李麟榮, 1867~1909년), 근대 독립운동가로는 흥병기(洪秉箕, 1869~1949년) 등이 있다.

여주의 옛 문서는 여주목과 관련된 여주목읍지, 여주목사 교지 등이 있고, 여흥민씨(驪興閔氏), 원주원씨(原州元氏) 등 여주와 인연이 깊은 인물들의 편지가 있다.

1. 고려시대

高麗時代

1. 이규보(李奎報, 1168~1241)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장가로서 '사종(詞宗)'이라 일컬어지는 이가 바로 백운거사 이규보이다. 본관은 황려(黃鬱, 여주)이고 조명은 인자(仁子), 자는 춘경(春卿)이며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라고 하였다. 22세 때 사마시에 응시하려던 중, 꿈에 규성(奎星) 즉 이십팔 수 중 하나로 문운(文運)을 주관하는 별이 나타나 이서(異瑞, 길조)를 보(報)하여 장원 급제한 뒤부터 이름을 규보라고 쳤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만 2,000수 이상의 시를 남길 정도로 시를 사랑한 이규보를 두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진엽(陳璣)은 "작선(謫仙)의 일기(逸氣)가 만상(萬象)밖에 서있는 것 같다"고 하였고, 최자(崔滋)는 "일월(日月)과 같아서 감히 칭찬할 수가 없는 전재의 준일(俊逸)한 분"이라고 평하였다. 문집으로 『동국이상국집』이 있고 시호는 문순(文順)이다.

2. 이색(李穡, 1328~1396)

이색은 고려말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영숙(頤叔), 호는 목은(牧隱)이며 고려삼은(三隱) 중의 한 명이다. 가정 이곡의 외동이들로 영해 호지촌(豪池村)에서 태어났다.

1341년(충혜왕 복위 2)에 성균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348년(충목왕 4) 원(元)에 가서 국자감의 생원이 되었으며 1351년(충정왕 3) 아버지의 상을 당하자 귀국하였다.

1353년(공민왕 2) 고려문과에 을과 1인으로 장원급제. 속옹부승이 되고 이듬해 3월 원(元) 제과의 회시(會試)에 1등, 전시(殿試)에 2등으로 합격하여 응봉한림문자·승사랑·한림원경력 등을 역임하였다. 1388년 위화도(威化島) 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이성계에 반대하던 이색은 역모로 몰려 귀양을 갔다.

조선 개국 후 유배에서 풀려나 부인과 함께 한산으로 내려갔던 이색은 두 아들을 잃은 시름에 오대산, 여주 등지로 방랑길에 오르게 된다. 이 무렵에 태조 이성계는 옛 친구의 예로 이색을 한산백(韓山伯)에 봉하고 토지 등을 내려주었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색을 대하는 이성계의 태도에는 각별한 바가 있었는데 종종 왕궁으로 초빙하여 융숭하게 대접하고 헤어질 때는 중문까지 나가 읍(揖)하며 배웅하였다 한다.

1396년(태조 5) 5월 이색이 다시 여강에 도착하였는데 임금이 보내온 술이라며 경기감사가 전해 준 술을 마시고 배 안에서 죽었다.

저서로 『목은문고(牧隱文藁)』와 『목은시고(牧隱詩藁)』가 있고 능서면의 매산서원(梅山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사진 34

이규보 영정 | 1989년

이규보의 묘는 강화군 길상면에 있다. 백운거사를 기리는 사당인 유영각(遺影閣)에는 이규보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사진 35

국역동국이상국집 | 현대

이규보의 시문집으로, 53권 13책이다.

이 가운데 「동명왕편(東明王篇)」은 해모수를 주인공으로 삼아 동명왕 탄생 이전에 있었던 일을 노래하고, 동명왕의 출생 · 시련 · 투쟁 · 승리를 영웅의 일생에 맞게 다루고, 끝으로 유리(類利)를 등장시켜 삼대의 행적을 두루 보여준 영웅서사시이다. 그밖에 「국선생전(麌先生傳)」, 「청강사자현부전(淸江使者玄夫傳)」, 「백운거사전(白雲居士傳)」 등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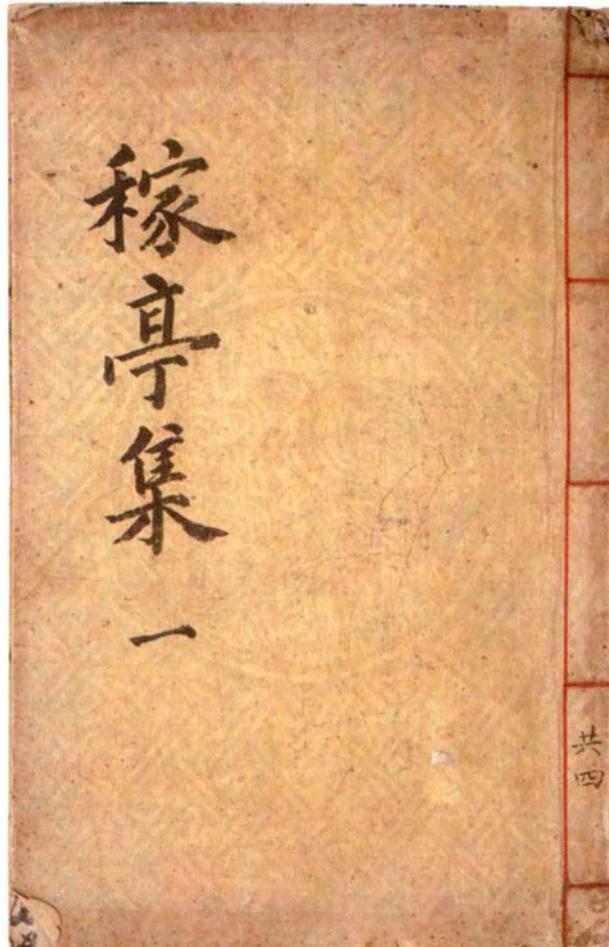


사진 36

가정집 | 조선

이곡(李穡, 1298~1351)은 고려 공민왕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중부(仲父), 호는 가정(稼亭)이고 이자성(李自成)의 아들이며 이색(李穡)의 아버지이다. 이곡이 머물렀던 북내면 가정리(稼亭里)의 지명은 이곡의 호에서 유래되었다. 『가정집(稼亭集)』은 이곡의 문집으로, 『죽부인전(竹夫人傳)』, 『주행기(舟行記)』, 『동유기(東遊記)』 등이 실려 있다.

2. 조선시대

朝鮮時代

조선시대의 여주는 왕과 왕비, 여홍민씨와 원주원씨 등 문중과 관련된 인물, 유적, 문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주요 인물들의 묘가 여주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여주 땅이 길지(吉地)였음을 알 수 있다.

1. 왕과 왕비

여주는 조선 제4대 세종대왕(1397~1450년, 재위 1418~1450년)의 능(英陵)과 제17대 효종대왕(1619~1659년, 재위 1649~1659년)의 능(寧陵)을 모시며 조선의 왕과 인연을 맺게 된다.

조선 예종 원년(1469년) 세종대왕릉(英陵)을 여주 서쪽의 북성산(北城山)으로 천릉(遷陵)하면서 처음 왕릉을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본래의 천녕현川(寧寧縣)을 폐하고 여홍(驪興)으로 합쳐서 목(牧)으로 승격시키고 고을 이름을 여주(驪州)로 개명하였다. 이후 현종 14년(1673년) 효종대왕릉(寧陵)을 영릉의 옆에 조성하면서 여주에는 2기의 조선왕릉을 모시게 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여홍 민씨

여홍 민씨(驪興 閔氏)는 황려(黃靄) 민씨라고도 부르며, 고려 공민왕대 이후 관료를 많이 배출하여 거성(巨姓)의 대열에 올라섰다.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여홍 민씨 중에서도 소위 삼방파(三房派)로 알려진 세 집안이 당시 집권당인 노론계열의 핵심으로 자리하면서 그 위상을 떨쳤다.

여홍 민씨 삼방파란 20세(世) 민광훈(閔光勳, 1595~1659)의 3남 시중(耆重), 정중(鼎重), 유중(維重) 삼형제의 자손들이다. 이중 민유중(閔維重, 1630~1687)은 조선 제19대 숙종의 비 인현왕후의 아버지이다.

대표 인물들의 묘소는 여주읍과 가남면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세거지도 여주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3. 원주 원씨

원주 원씨(原州 元氏)는 관향은 원주이지만 여주 일대의 권문세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씨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종중이다. 이들 집안은 문관보다는 무관 출신이 많다. 원주 원씨는 계통을 달리하는 3개 계열이 있다. 첫째는 여주 일대에서 가장 번성한 원주 원씨 시중공계(侍中公系)다. 이들의 시조는 원익겸(元益謙)으로 고려 신종(神宗) 때의 인물인데 다른 원주 원씨와 구별하여 원성(原城) 원씨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시조를 원경(元鏡)으로 하는 원주 원씨 운곡계(耘谷系)다.

원경은 당나라 때 고구려로 온 팔학사 중의 한 사람이다. 19세(世) 원천석(元天錫, 1330년생)이 유명하다. 셋째는 시조를 원극유(元克猷)로 하는 원주 원씨다. 원주 원씨의 대표 인물로는 조선 임진왜란때 활약한 원호(元豪, 1533~1592), 효종때 북벌정책을 펼친 원두표(元斗杓, 1593~1664) 등이 있다.

오늘날 후손들은 북내면 장암리(長岩里) 등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4. 기타 인물

그밖에 여주와 관련된 인물로는 서원에 배향되거나, 여주에 묘가 안치된 인물, 여주목사를 지낸 인물, 여주의 대표 종중과 관련 있는 인물 등이 있다.



사진 37

세종대왕릉(英陵) 전경

조선 제4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의 능으로, 조선왕릉 중 최초로 한 봉분에 다른 방을 갖춘 합장릉이다. 무덤배치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라 만든 것으로 조선 전기 왕릉 배치의 기본이 되었다.



사진 38

효종대왕릉(寧陵) 전경

조선 제17대 효종대왕과 인선왕후 장씨의 쌍릉이다. 한 언덕의 위아래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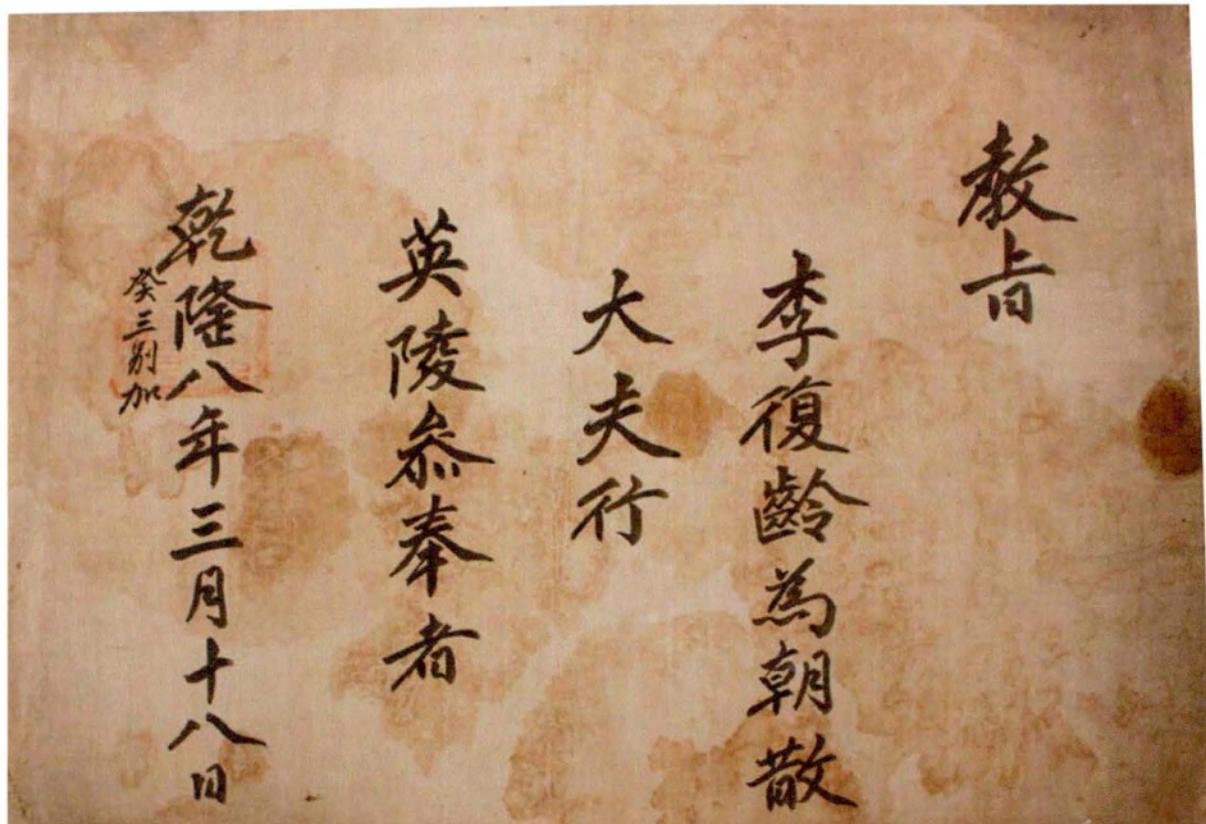


사진 39

영릉참봉교지 | 1743년

이복령(李復齡)이라는 인물을 세종대왕 영릉(英陵) 참봉(參奉, 왕릉을 관리하는 종9품 벼슬)에 봉한다는 교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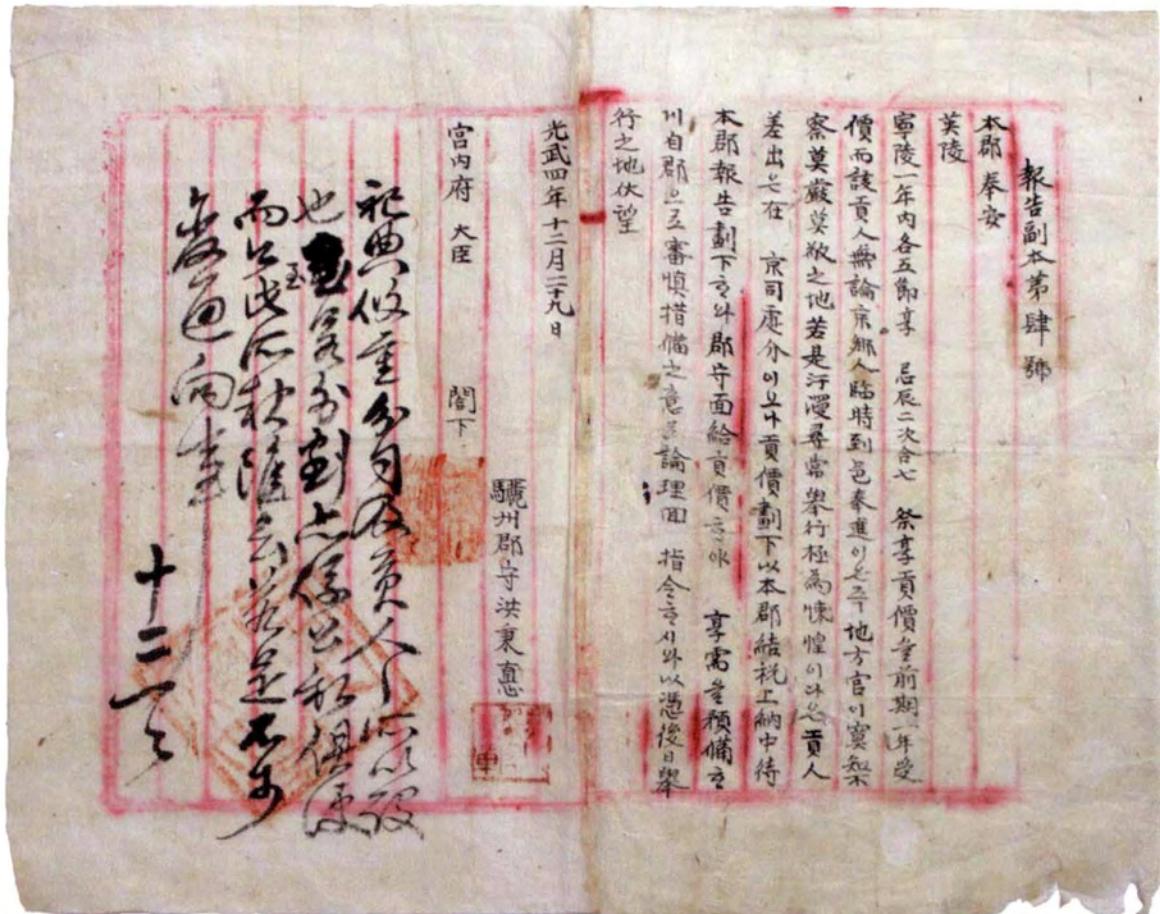


사진 40

영·영릉 보고문서 | 1900년

여주군수가 세종대왕릉(英陵), 효종대왕릉(寧陵)의 제사비용 마련 방법을 궁내부에
보고한 문서이다.

영·영릉에서는 1년 내에 오절(五節)과 돌아가신 날, 생일 총 7번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 비용을 1년 전에 값을 받되 제사비용을 담당 공인들한테 물품으로 받는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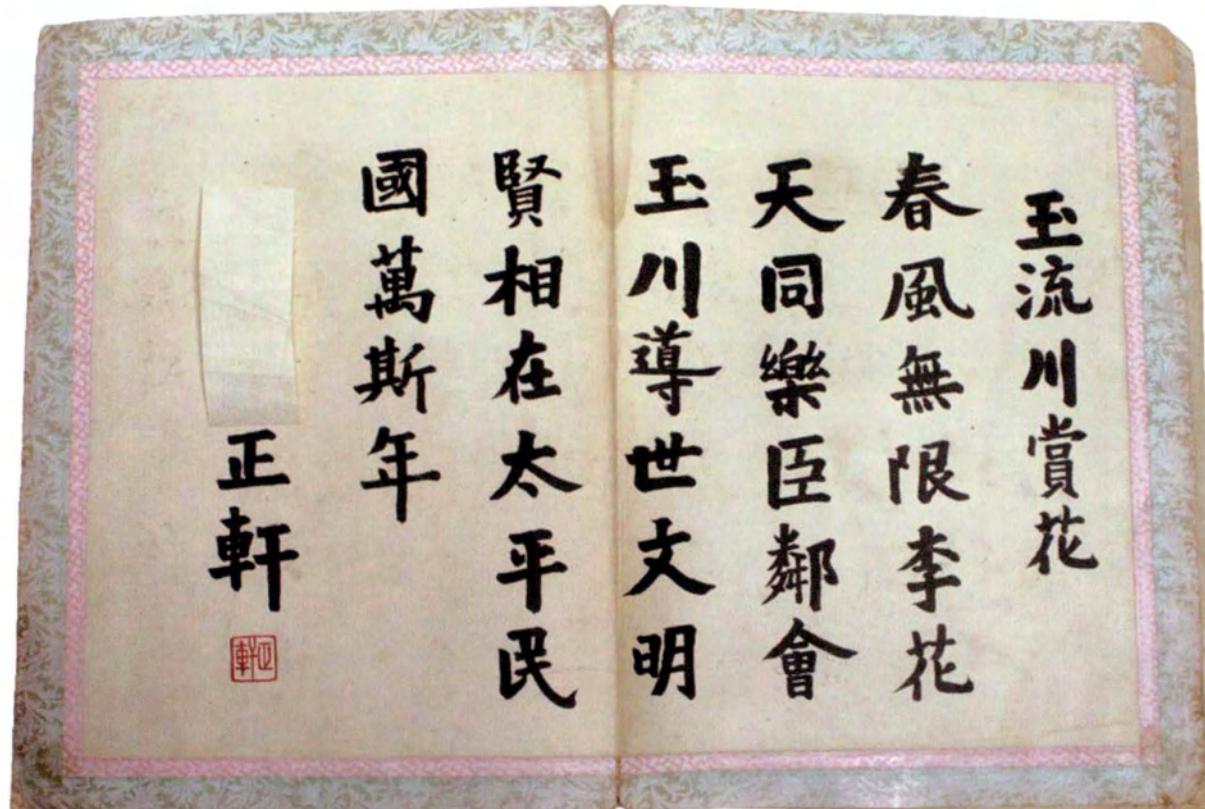


사진 41

옥류천상화첩 | 20세기초

조선 제27대 왕 순종(純宗 재위 1907~1910)의 어필(御筆) '옥류천상화(玉流川賞花)'에 대한 이재면(李載冕), 이완용(李完用) 등 신하 64명의 글이다.

석판인쇄로 제작되었다. '정현(正軒)'은 순종의 호(號)로 고종이 1907년 아들 순종에게 양위를 하면서 내려준 것이다.



사진 42

명성황후생가 전경

명성황후가 출생하여 8세까지 거주했던 생가로, 여주읍 능현리에 위치한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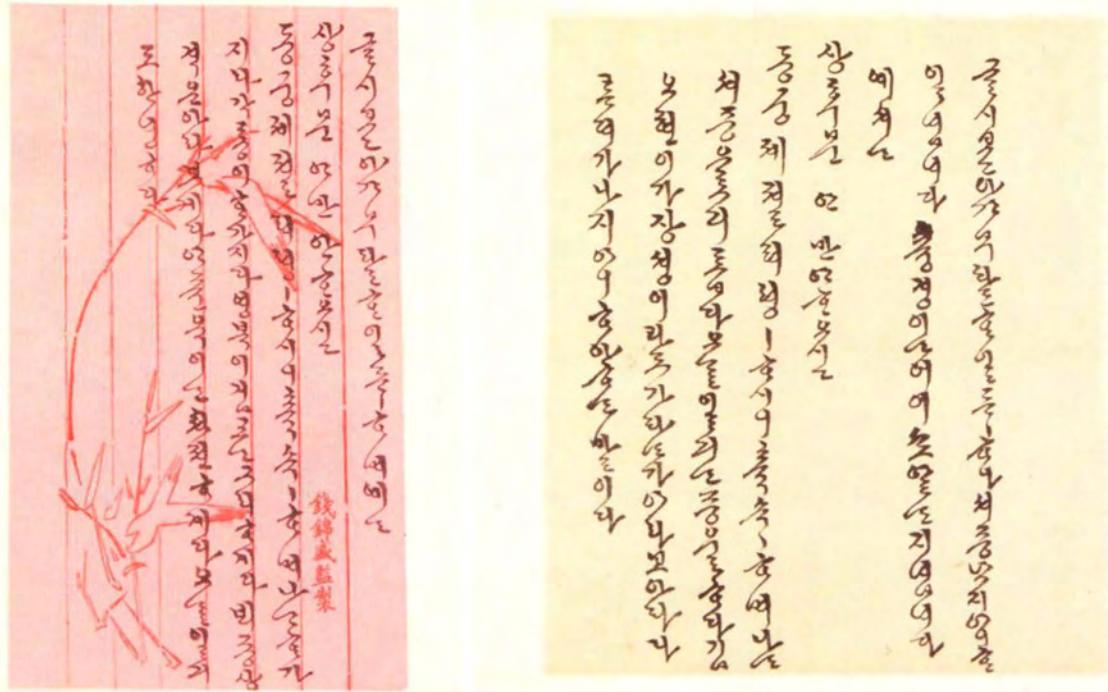


사진 43

명성황후 편지 | 19세기후반

명성황후가 친밀하게 지내던 외척 민영소(閔泳韶, 1852~1917)에게 친필로 써서 보낸 한글 봉서(封書)이다. 왕과 세자의 근황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한 자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하여 존경을 표하였다. 종이는 중국산 당시(唐紙)로 문양이 있다.

여주 출신 조선의 왕비는 왕실의 족보인 선원계보기략(睿源系譜記略)을 통해 총 8명임을 알 수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원경왕후 민씨(元敬王后 閔氏 1365~1420년)
조선 제3대 태종의 비이다.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여주태생이라는 설이 있다.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민재(閔齋)의 딸이며, 세종대왕의 어머니이다.
- ②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 閔氏 1667~1701년)
제19대 숙종의 계비이다.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영돈녕부사 여양부원군(領敦寧府事 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의 딸이다.
- ③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 金氏 1745~1805년)
제21대 영조의 계비이다.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여주읍내(誕降 驪州邑內)에서 태어났다.
영돈녕부사 오흥부원군(領敦寧府事 驪興府院君) 김한구(金漢奇)의 딸이다.
- ④ 순원왕후 김씨(純元王后 金氏 1789~1857년)
제23대 순조의 비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영돈녕부사 영안부원군(領敦寧府事 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의 딸이다. 익종(孝明世子)의 어머니이다.
- ⑤ 효현왕후 김씨(孝顯王后 金氏 1828~1843년)
제24대 현종의 비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영돈녕부사 영흥부원군(領敦寧府事 永興府院君) 김조근(金祖根)의 딸이다.
- ⑥ 철인왕후 김씨(哲人王后 金氏 1837~1878년)
제25대 철종의 비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영돈녕부사 영은부원군(領敦寧府事 永恩府院君) 김문근(金文根)의 딸이다.
- ⑦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 閔氏 1851~1895년)
대한제국 광무황제(조선 제26대 고종)의 비이다.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여주 근동면 섬락리(誕降 近東面 嶋樂里)에서 태어났다.
여성부원군(贈 令慈義政 驪城府院君) 민자록(閔致祿)의 딸이고, 순종의 어머니이다.
- ⑧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皇后 閔氏 1872~1904년)
융희황제(조선 제27대 순종)의 비이다.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여은부원군(贈 令慈義政 驪恩府院君) 민태호(閔台鎬)의 딸이다.

丑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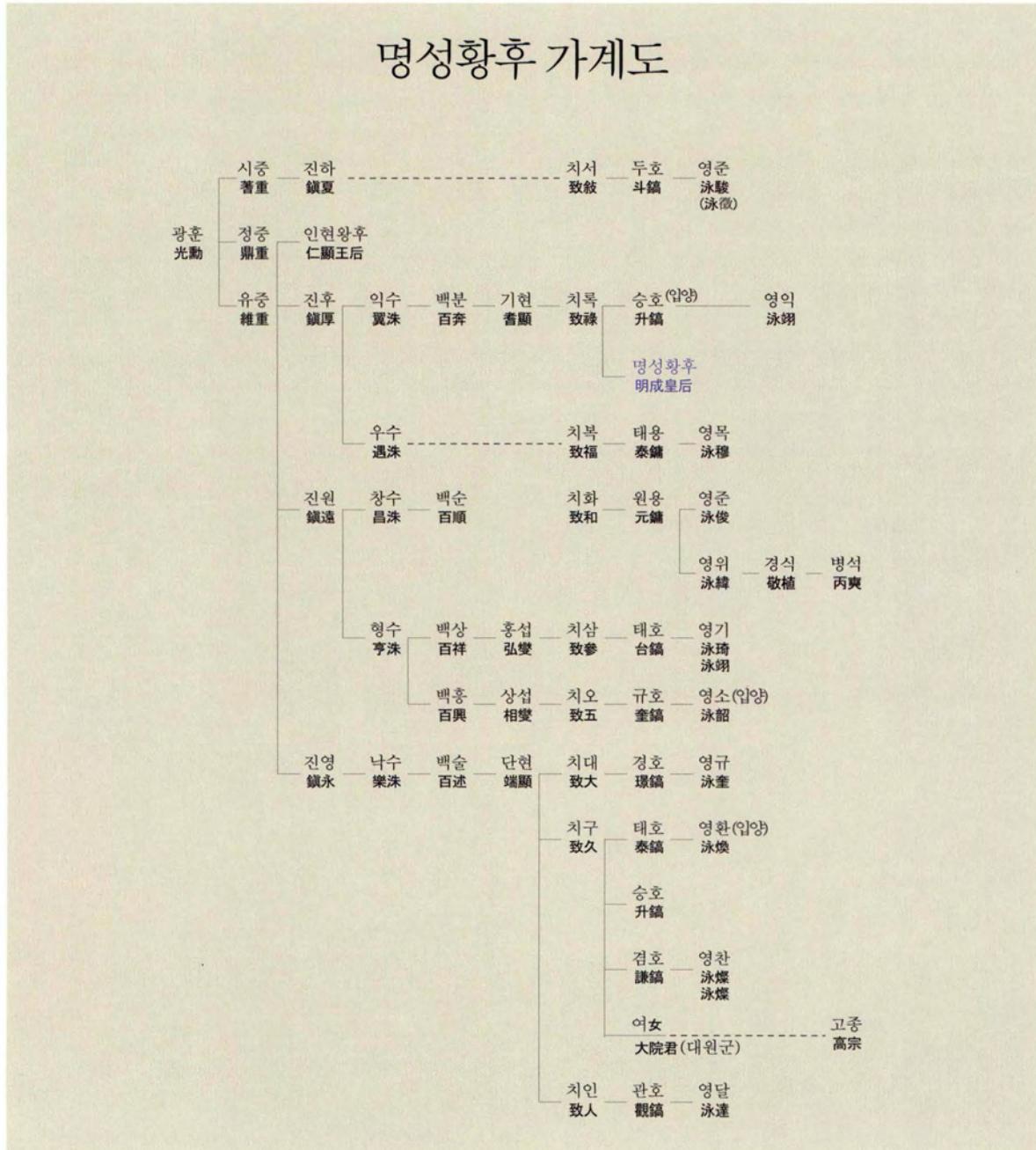




사진 44

가승 | 조선

가승(家乘)은 한 집안의 직계조상만을 적은 간단한 계보기록이다.

이 유물은 여흥 민씨(驪興 閔氏) 집안의 가승이다. 시조 민칭도(閔稱道)부터 15대 민효손(閔孝孫)까지의 세계(世系)가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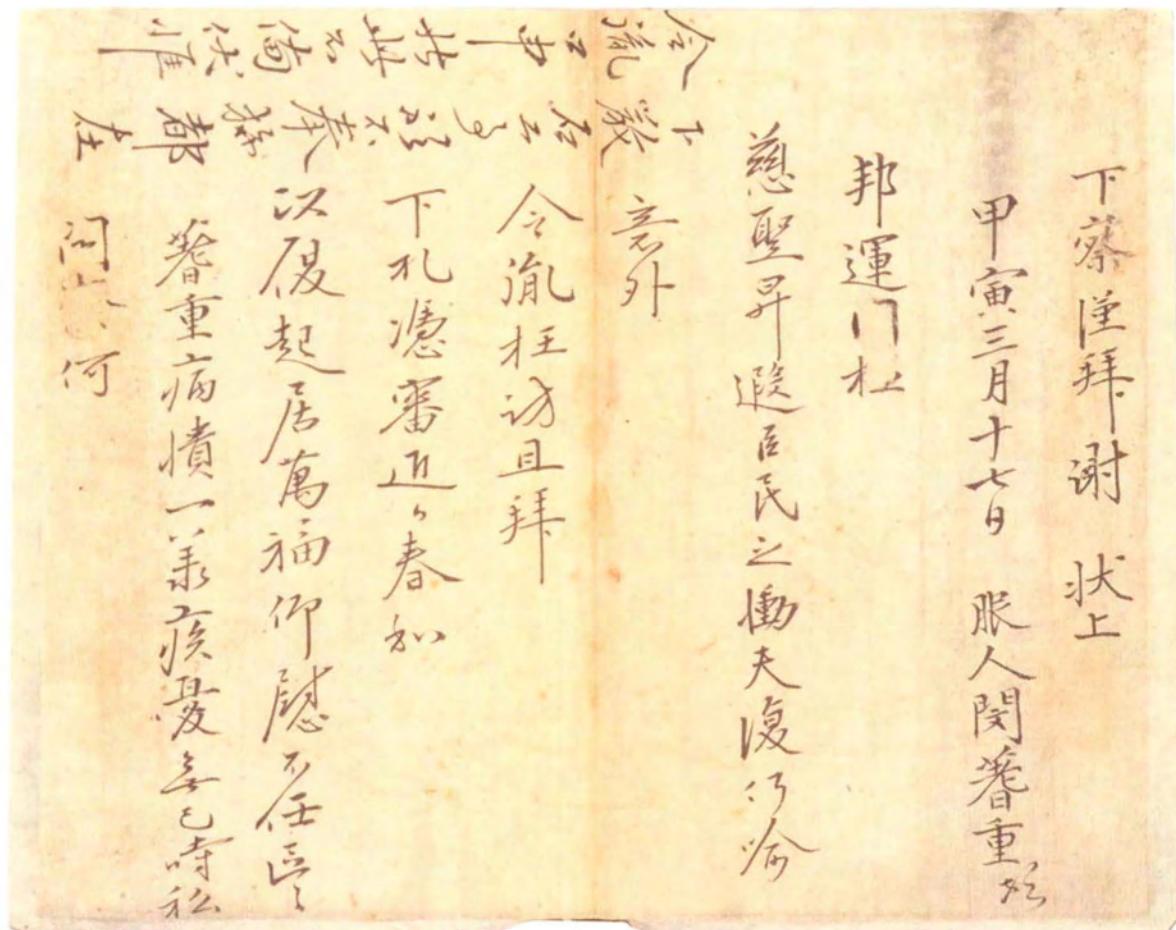


사진 45

민시중 편지 | 1674년

민시중(閔蓍重, 1625~1677)의 자는 공서(公瑞)이고 호는 인재(認齋)이며 민정중과 민유중의 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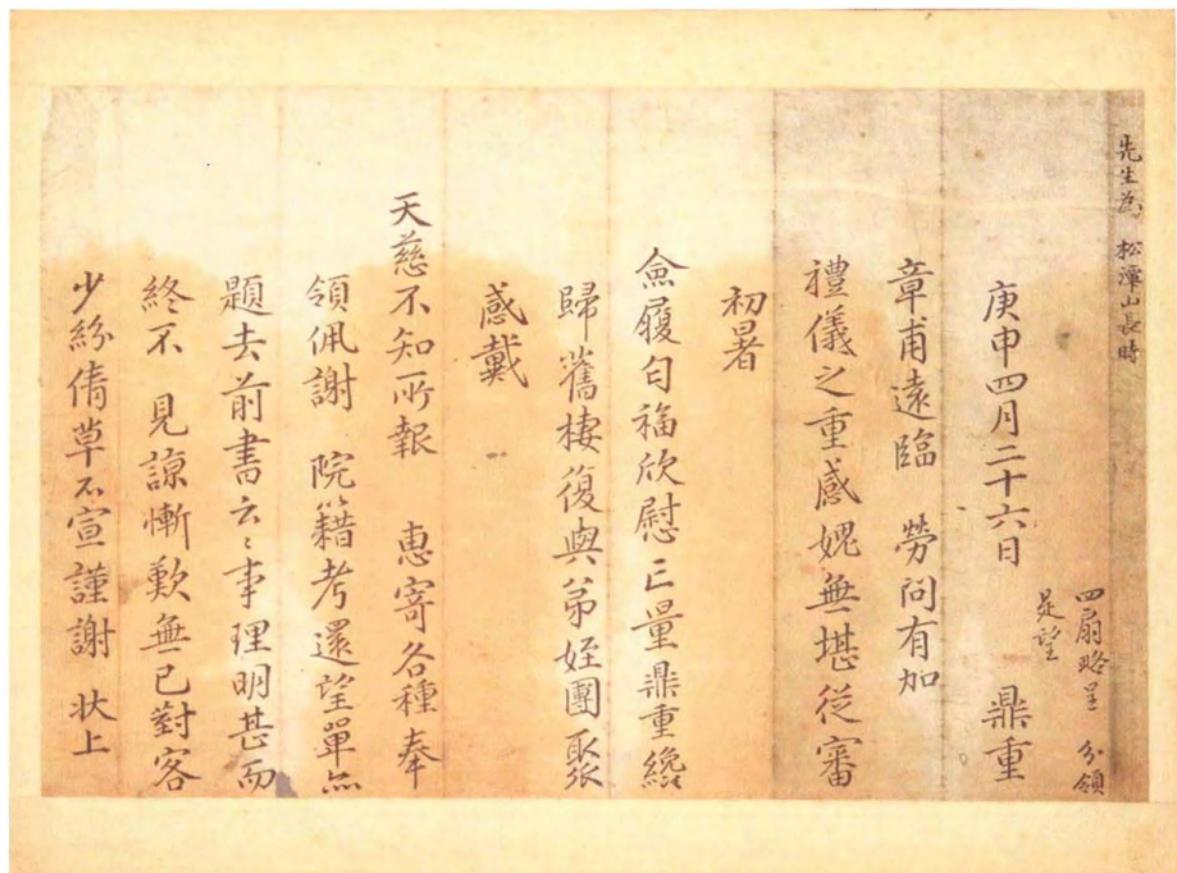


사진 46

민정중 편지 | 1680년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의 자는 대수(大受)이고 호는 노봉(老峯)이며 민유중의 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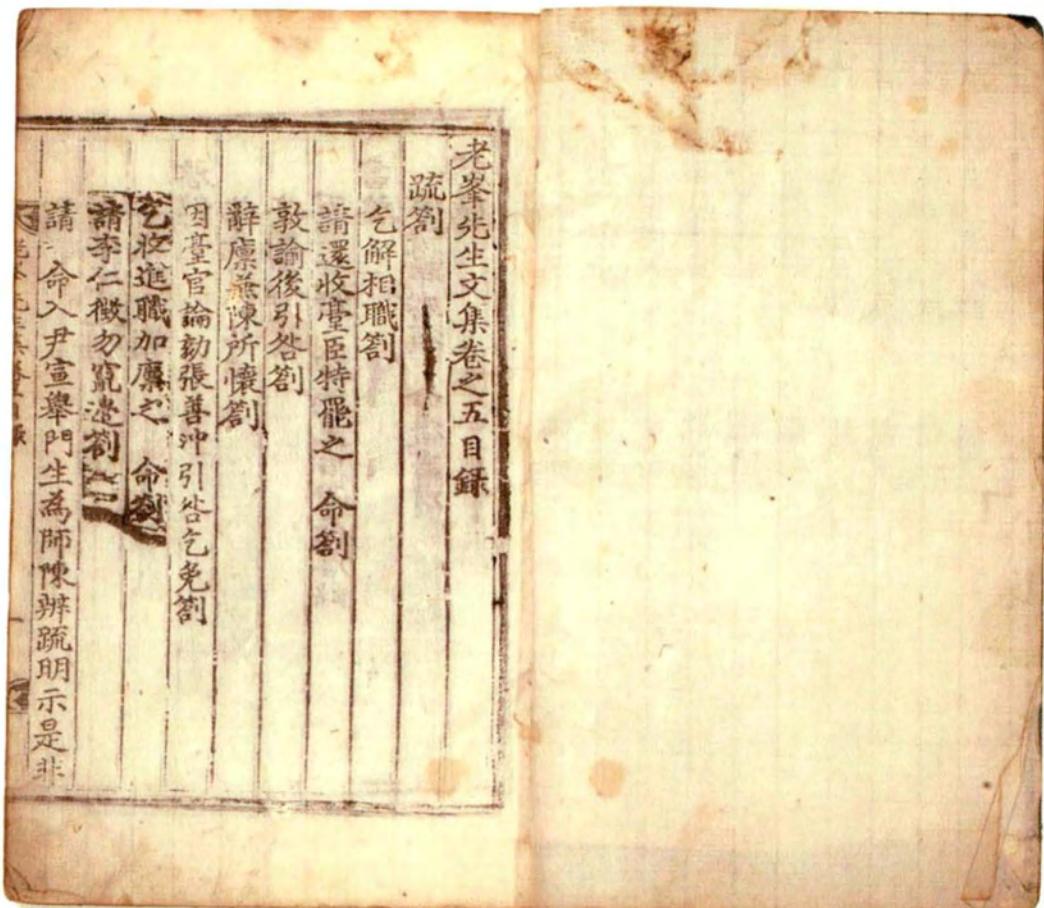


사진 47

노봉집 | 17세기

문충공 민정중의 문집이다. 민정중은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의 큰 아버지이다. 관직은 좌의정을 지냈고, 노론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글씨와 문장에도 뛰어나 저서로 『노봉집(老峯集)』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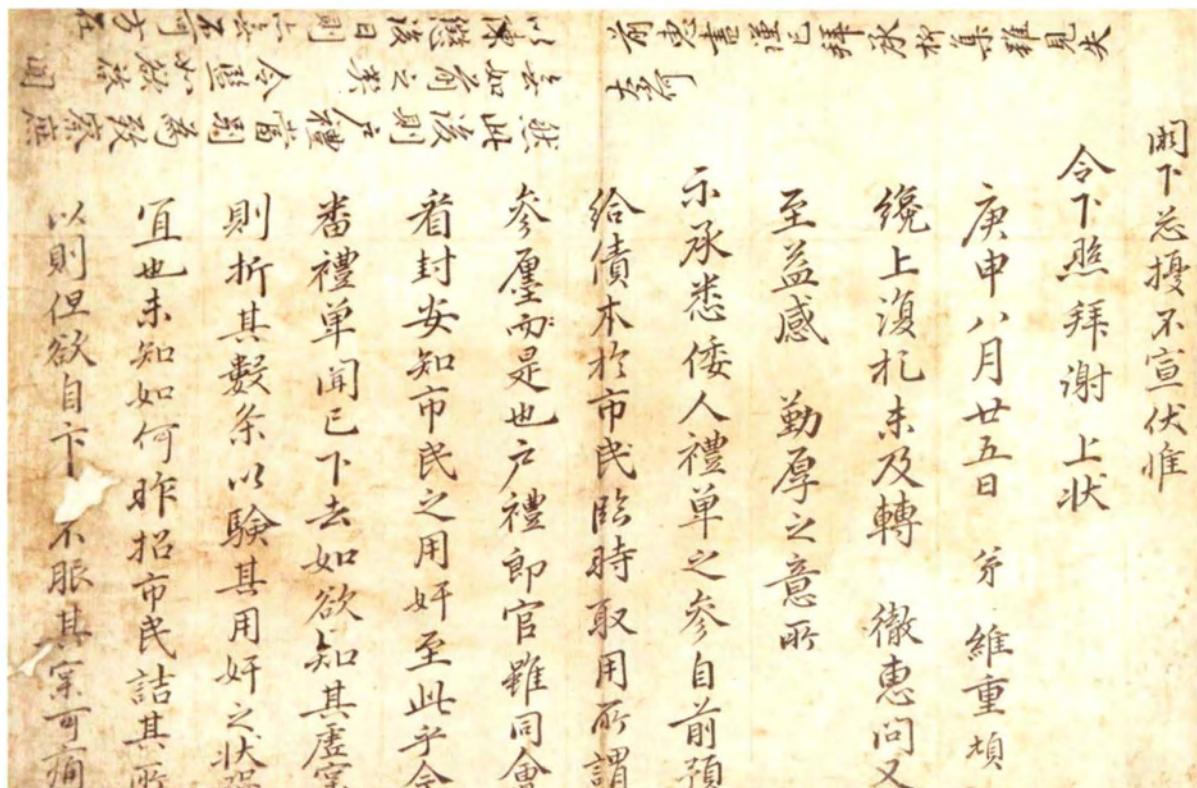


사진 48

민유중 편지 | 1680년

민유중(閔維重, 1630~1687)의 자는 지숙(持叔)이고 호는 둔촌(屯村)이며 인현왕후의 아버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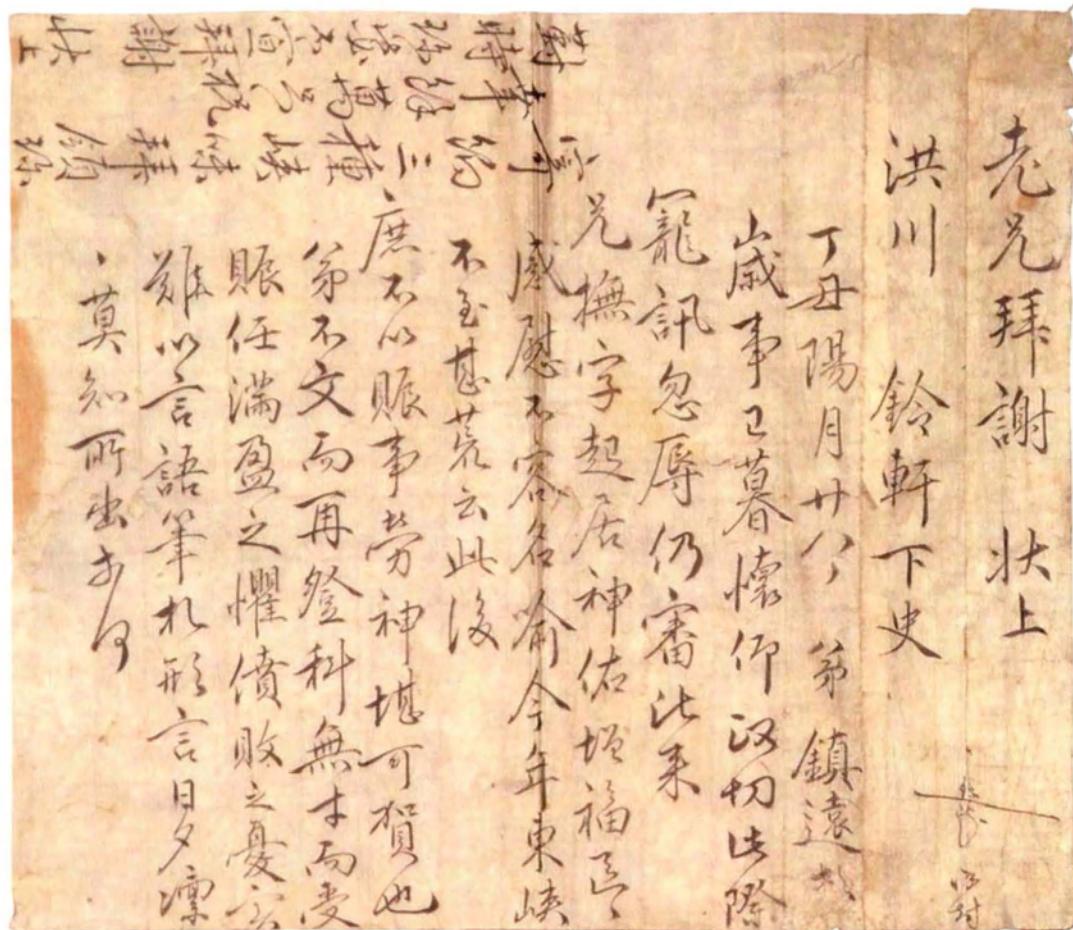


사진 49

민진원 편지 | 1696년

민진원(閔鎭遠, 1664~1736)의 본관은 여흥이고 자는 성유(聖猷)이며 호는 단암(丹巖)·세심(洗心)이다. 민유중(閔維重)의 아들이고 인현왕후의 오빠이며 민진후의 동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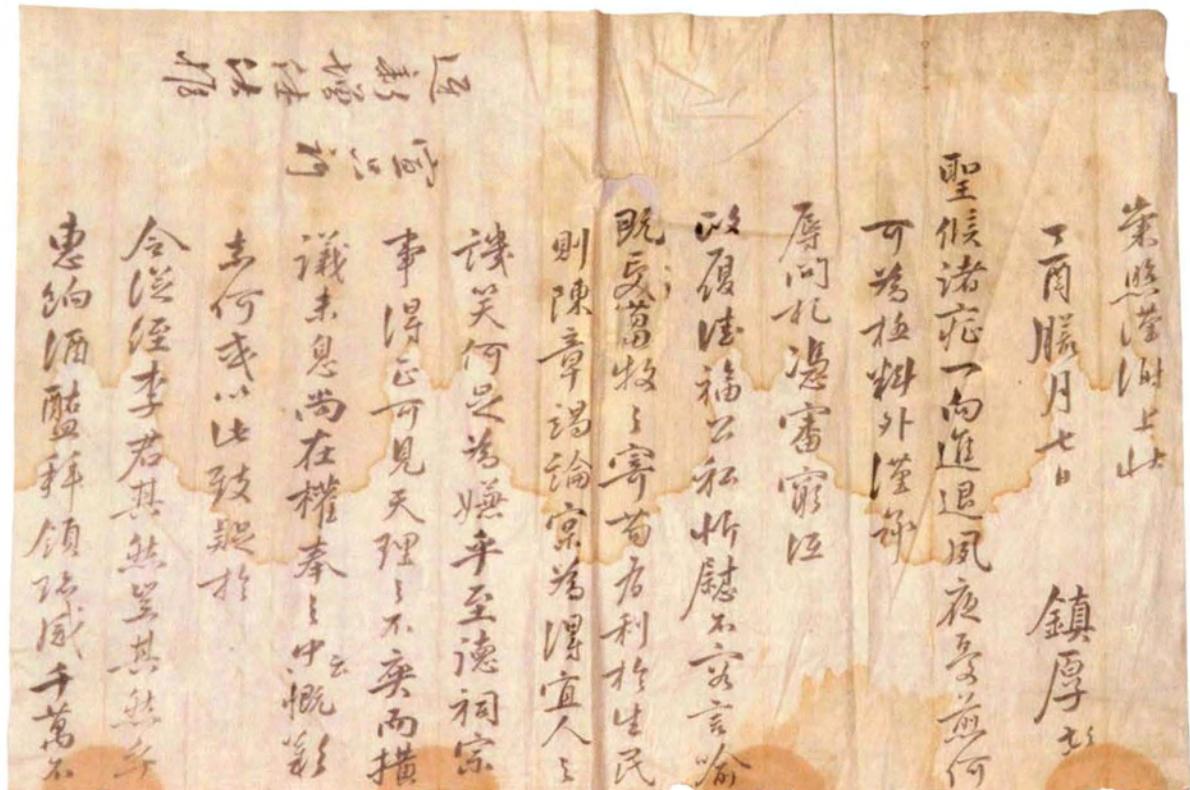


사진 50

민진후 편지 | 1717년

민진후(閔鎮厚, 1659~1720)의 본관은 여흥이고 자는 정순(靜純)이며 호는 지재(趾齋)이다. 아버지가 민유중(閔維重)이고 인현왕후의 오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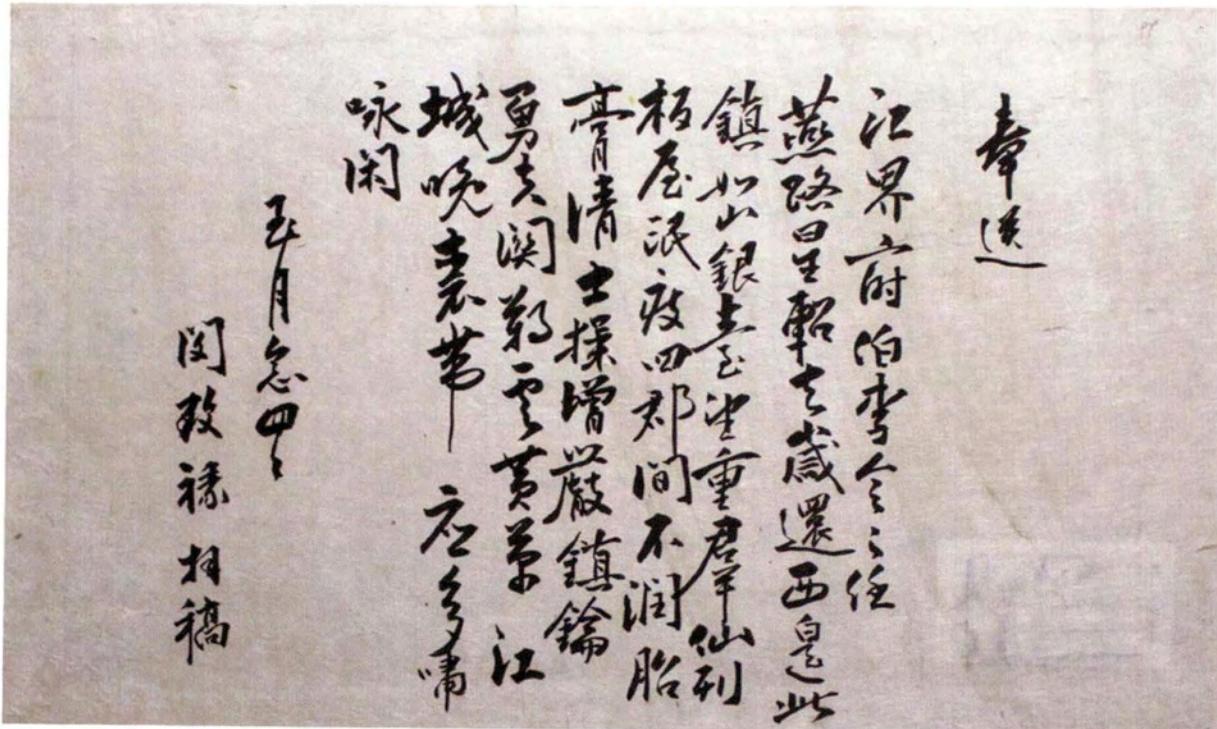


사진 51

민치록 송시편지 | 19세기

민치록(閔致祿, 1799~1858)이 중국 연경(燕京)으로 떠나는 강계(江界)의 이부사(李府使)에게 무사히 잘 다녀오라고 써준 봉송(奉送) 편지이다.

민치록은 명성황후의 아버지로, 사후에 여성부원군에 봉해졌다.
묘는 가남면 안금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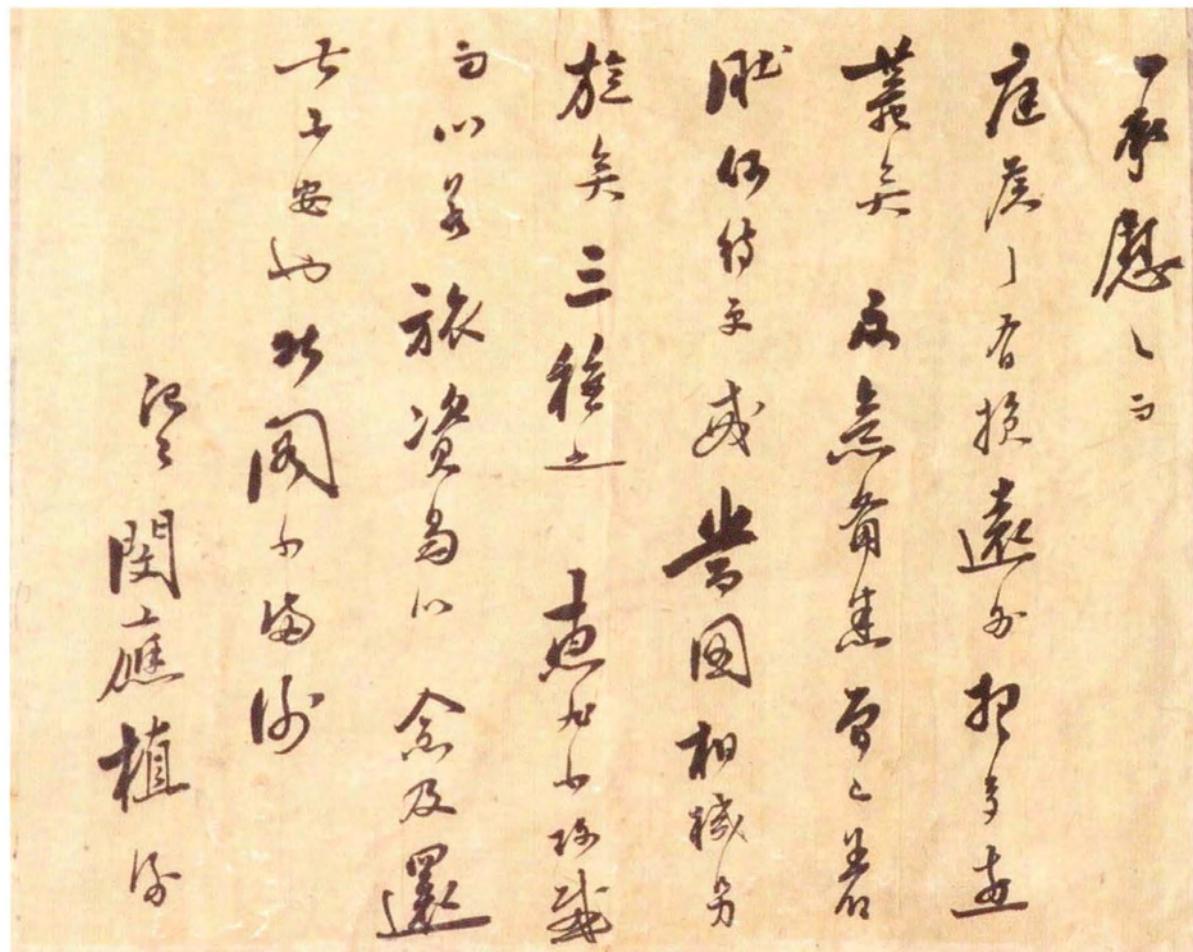


사진 52

민응식 편지 | 조선후기

민응식(閔應植, 1844~?)의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성문(性文), 호는 우당(藕堂)이다. 민한준(閔漢俊)의 아들로, 민영우(閔泳愚)에게 입양되었다. 1882년(고종 19)에 증광문과 별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같은해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장호원(長湖院)의 집을 명성황후의 피신처로 제공하여 출세의 길을 열었다. 이듬해 해상공국총판(惠商公局總辦)·대사성, 1884년 친군후영영무(親軍後營營務), 이어 좌영사(左營使)·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1886년 이조판서·병조판서의 요직을 지냈다. 시호는 종문(忠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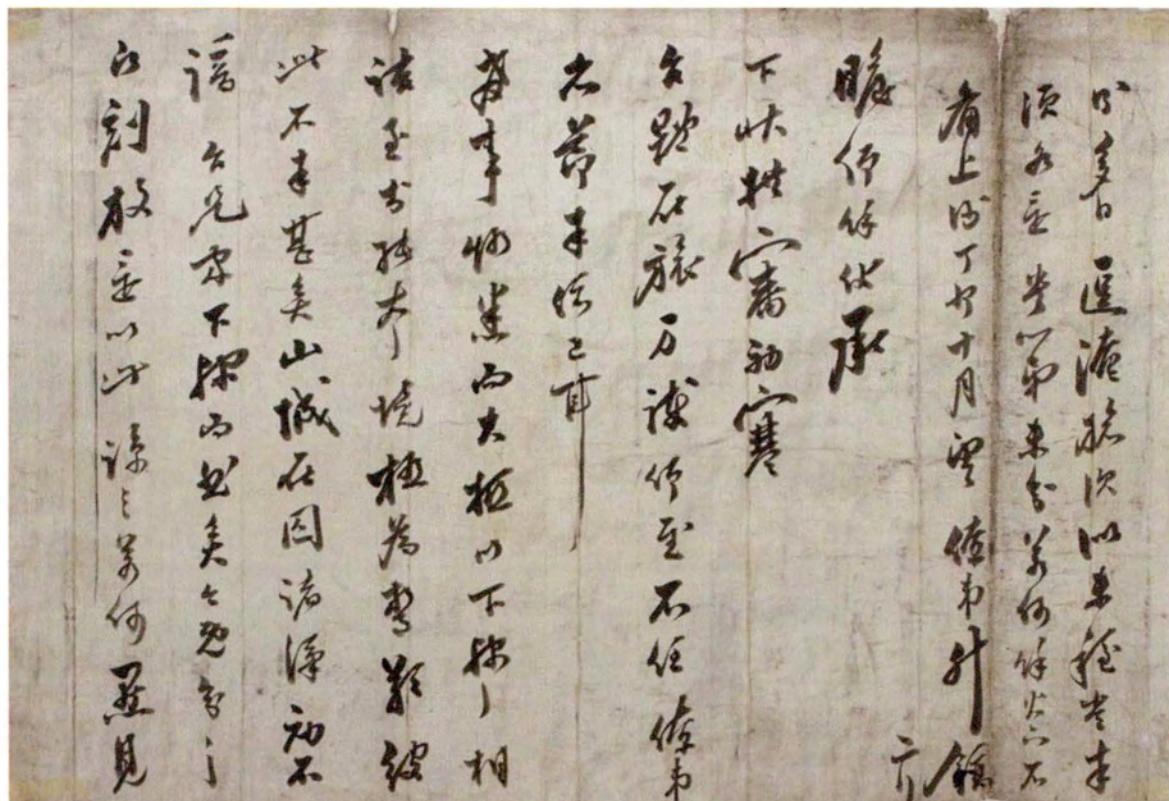


사진 53

민승호 편지 | 1867년

명성황후의 오빠인 병조판서 민승호(閔升鎬, 1830~1874)가 쓴 편지이다. 민승호는 고종대에 주요 요직을 지내면서 민씨 세도정치를 주도한 인물이다. 본관은 여흥이고 자는 복경(復卿)이며 민치구(閔致久)의 아들로 민치록에게 인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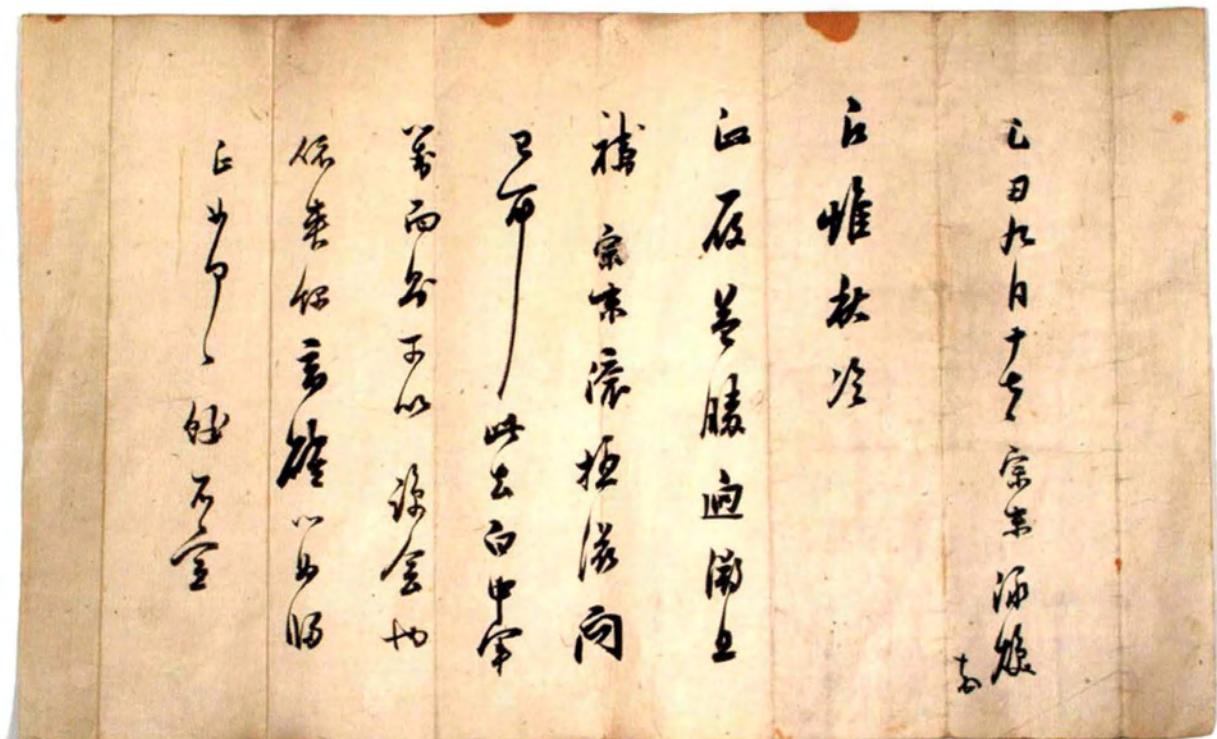


사진 54

민영환 편지 | 1889년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의 본관은 여흥이고 자는 문약(文若)이며 호는 계정(桂庭)으로 민겸호의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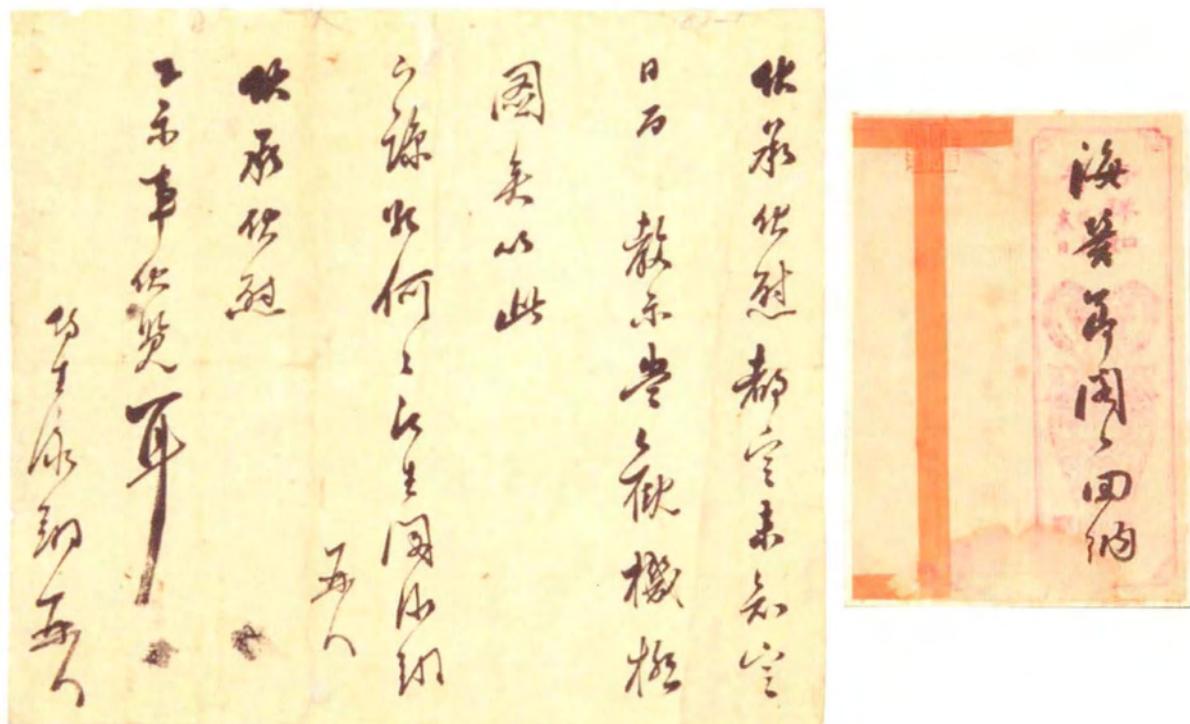


사진 55

민영익 편지 | 1900년경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의 자는 우홍(遇鴻)이고 호는 운미(芸楣)·죽미(竹楣)·원정(園丁)·천심죽재(千尋竹齋) 등이며 민태호의 아들이나 민승호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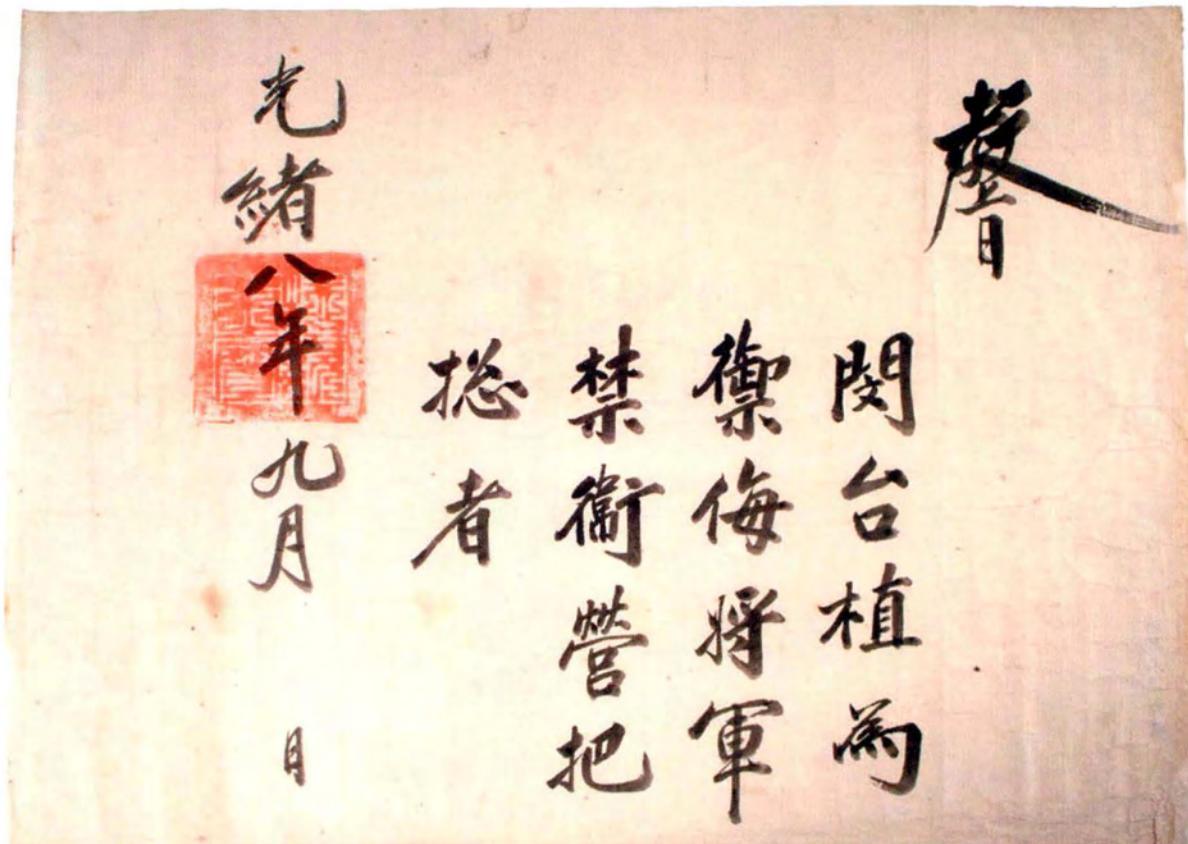


사진 56

민태식 교지 | 1882년

민태식을 어모장군금위영파총으로 임명하는 교지이다. 병조에서 발급한 것으로,
파총은 각 군영(軍營)의 종4품(從四品)직이다.



사진 57

민영기 진위전문 | 1890년

민영기(閔泳琦, 1858~1927)가 황해도 병마절도사 재직시 익종(翼宗, 순조의 세자)의 왕비이며 현종의 어머니였던 신정왕후가 보령 83세로 돌아가시자, 왕에게 애도의 전문(箋文)을 올린 것이다. 전문이란 나라에 길흉의 일이 있을 때에 임금에게 아뢰던 사육체(四六體)의 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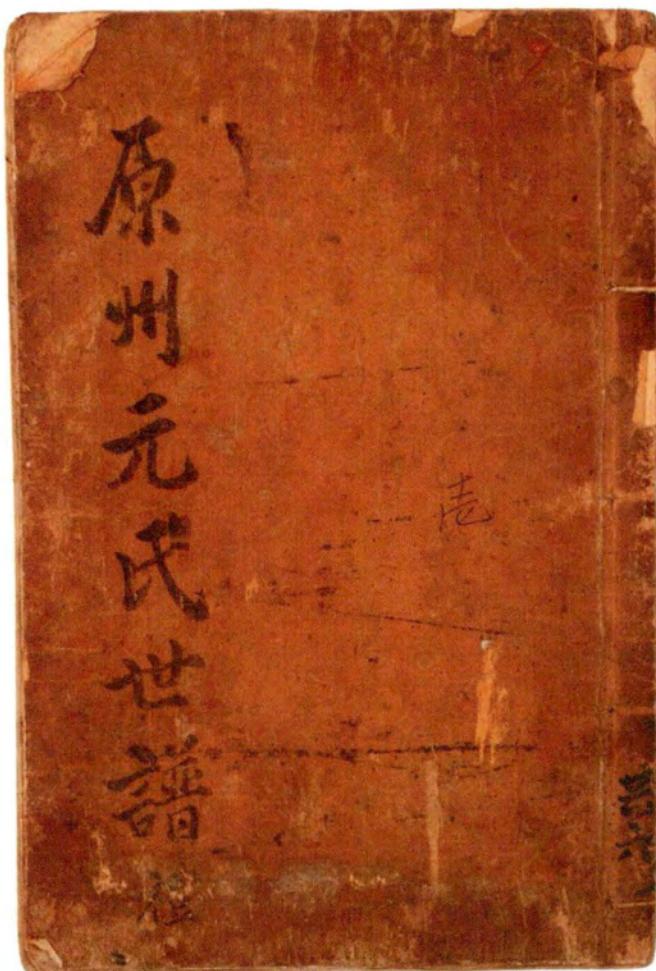


사진 58

원주원씨세보 | 조선

여주의 대표적 성씨 중 하나인 원주 원씨의 세보(世譜)이다. 총 6책으로 되어 있다.



사진 59

원주원씨세계 | 조선

원주 원씨 가문의 세계(世系)를 가첩(家牒)으로 만들어 출가하는 딸에게 전해주었던 것으로 끝부분에는 고조까지의 기일을 적어 놓았다. 모두 10곡(曲)으로 뒷면 우측에는 원두표와 관련된 기록도 나타나고 있다. 언문으로 단정하게 써 내려간 필사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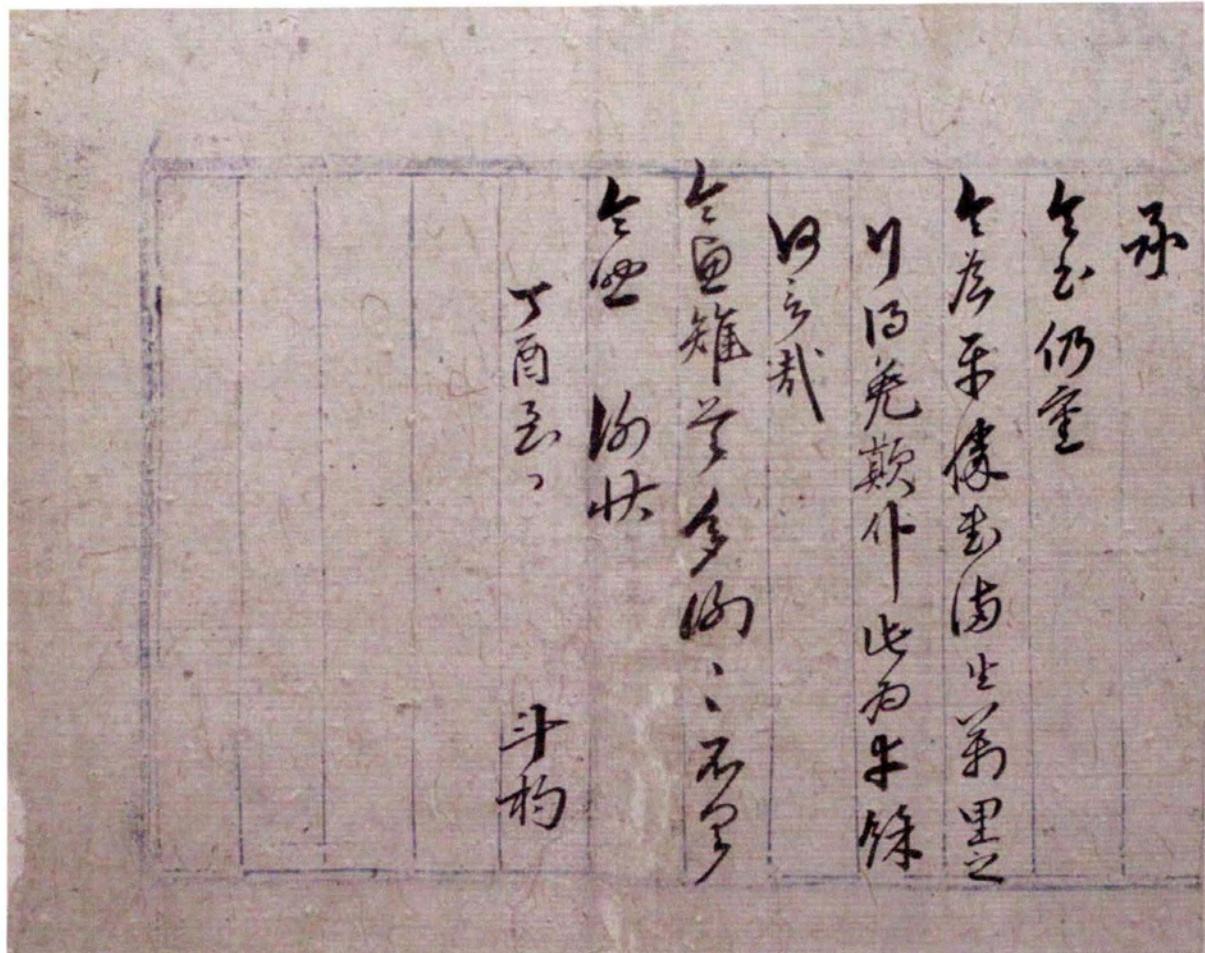


사진 60

원두표 편지 | 1657년

현종대에 좌의정을 역임한 충익공 원두표(元斗杓, 1593~1664)가 쓴 편지이다. 그는 효종 4년 병조판서에 임명되어 어영대장 이완과 함께 효종대왕이 추진한 북벌계획의 핵심인물이었다.

본관은 원주이고 자는 자건(子建)이며 호는 탄수(灘叟) · 탄옹(灘翁)이다.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公臣) 2등에 책록되고 원평부원군(原平府院君)에 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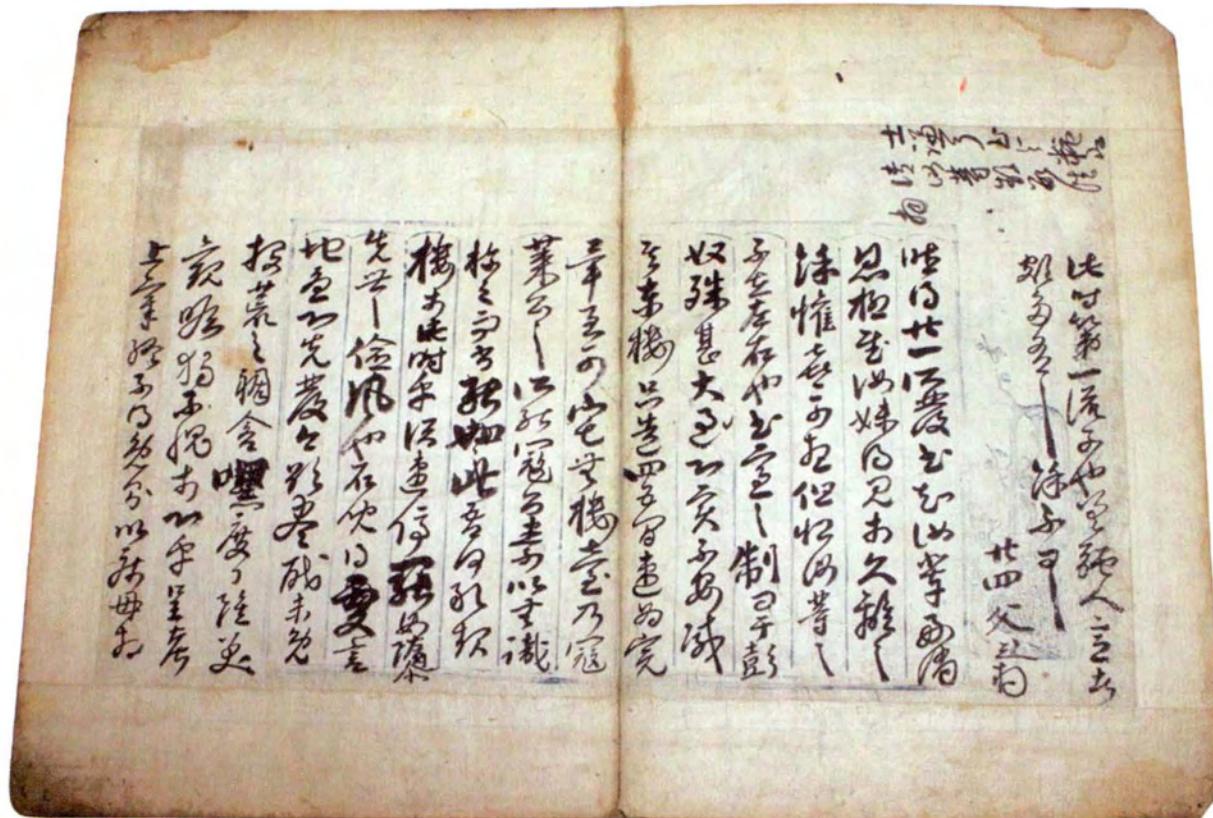


사진 61

충익공 유목 | 17세기

충익공 원두표(元斗杓, 1593~1664)의 편지를 모아 책으로 만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게 많은데, '두표(斗杓)'라는 쌔인과 글씨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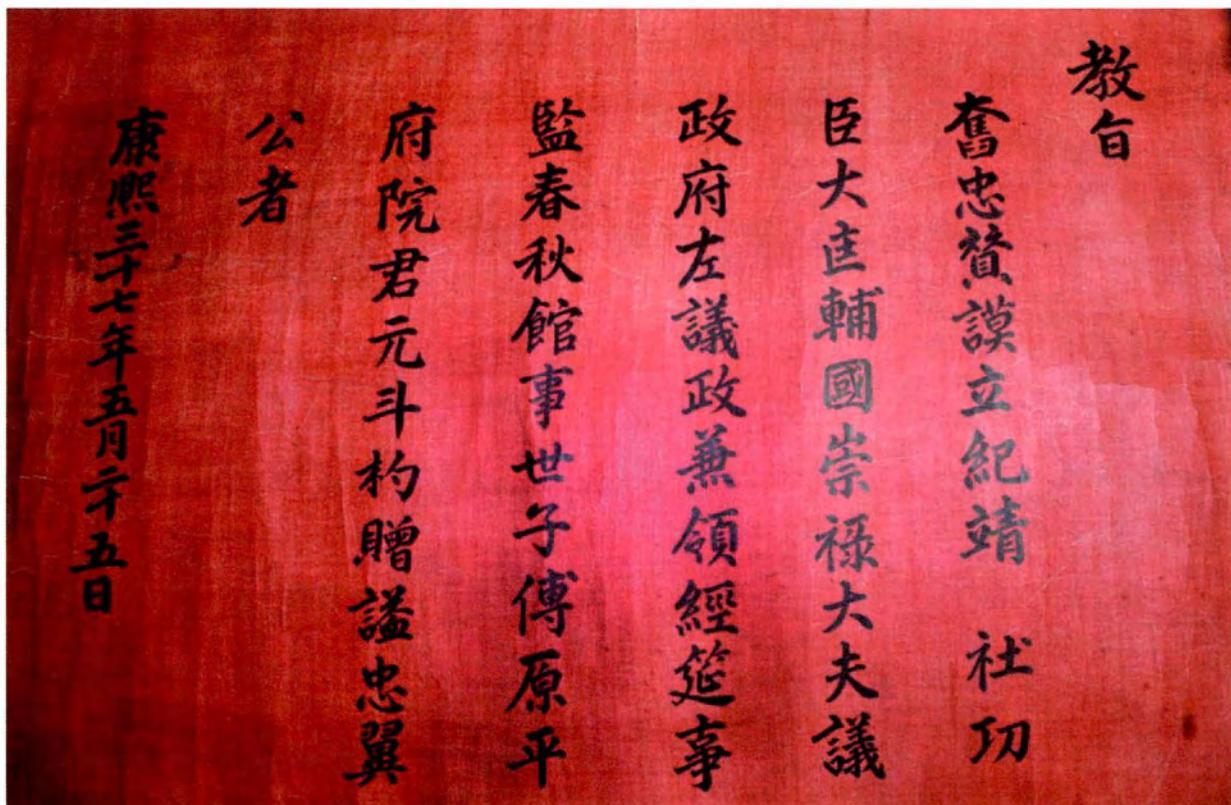


사진 62

원두표 시호교지 | 1698년

조선 현종대에 좌의정을 역임한 원두표(元斗杓, 1593~1664)에게 '충익공(忠翼公)' 이란 시호를 내린다는 교지이다. 이 시호교지는 국가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종이도 굉장히 좋고 글씨도 좋다.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란 조선시대 정1품의 문무관, 종친(宗親), 의빈(儀賓)에게 내려진 벼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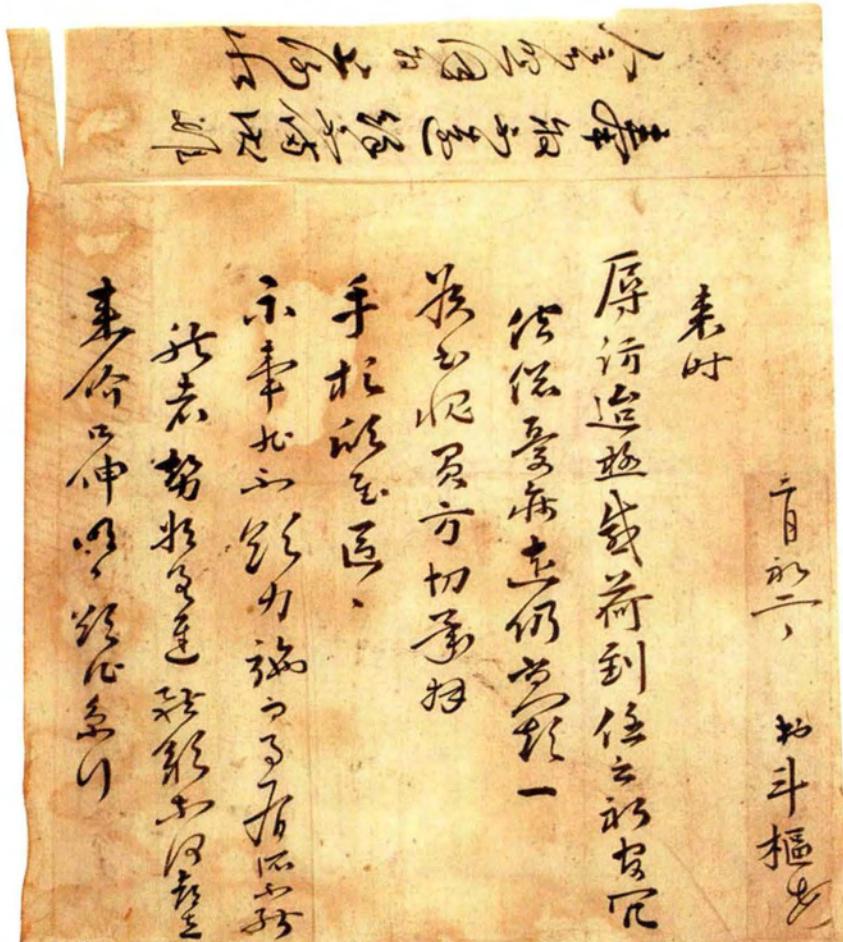


사진 63

원두추 편지 | 17세기

원호장군의 손자인 원두추(元斗樞, 1604~1663)의 편지이다. 원두추는 충익공 원두표의 동생으로 관직은 광주부윤을 역임하였다. 성리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으나, 학문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본관은 원주이고 자는 자중(子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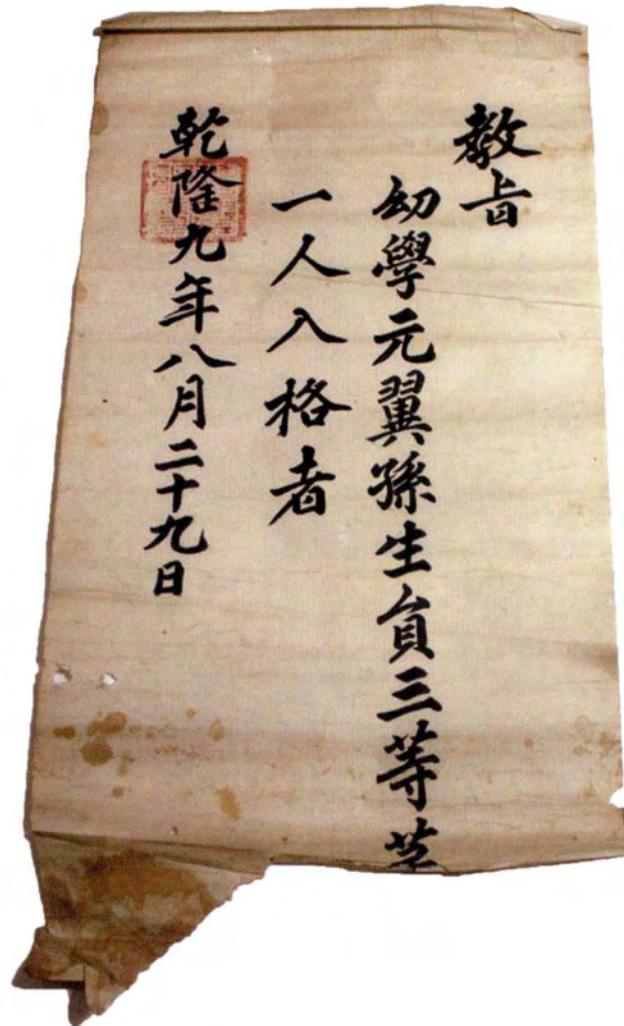


사진 64

원익손 교지 | 1744년

원익손(元翼孫, 1722~1783년)은 조선 영·정조대 인물로, 북내면 장암리에 묘가 있는 병조참판 원경濂(元景濂, 1704~1767년)의 아들이다. 자는 군모(君謨)이고, 호는 필의암(畢依菴)이다.

유학(幼學)으로 1744년(영조 20) 23세 때 생원시 3등 21위로 합격하였다.



사진 65

원익손묘 출토 저고리와 여모 | 18세기

여주군 북내면 지내리의 원익손의 묘에서 출토된 부인 창녕조씨(昌寧曹氏)의 복식이다. 묘를 북내면 장암리 원주원씨 세장지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부인 창녕조씨의 관에서 저고리, 여모(女帽), 속바지, 대령용 치마, 현훈(玄纁), 직물 등 총 33점의 복식유물이 출토되었다.



사진 66

호패 | 1685~1882년

‘호패(號牌)’란, 조선 시대에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16세 이상의 남자가 가지고 다녔던 패로, 직사각형의 모양에 앞면에는 성명, 나이, 태어난 해의 간지를 새기고 뒷면에는 해당 관아의 낙인을 찍었다.

이 호패들은 북내면 장암리의 원평부원군 원두표 종택에 대대로 전해진 것이다. 원몽은(元夢殷, 1656~1694), 원유증(元有曾, 1738~1780), 원석현(元錫玄, 1773~1822), 원세백(元世百, 1806~1891), 원세교(元世喬, 1806년~?), 원용규(元容圭, 1864~1890)의 신분을 증명하는 호패이다.



사진 67

기천서원

여주 금사면에 위치한 기천서원은 1580년(선조 13) 마암(馬巖)에 세웠던 것인데, 임진왜란 때 왜병의 방화로 소실되었다.

창건 당시에 김안국(金安國)을 봉향하다가 1611년(광해군 3) 여주 유림에 의해 복원되면서 이언적(李彦迪)과 홍인우(洪仁祐)를 추향(追享)하였다. 1625년(인조 3)에는 '기천(沂川)'이라 사액되었다. 1661년(현종 2)에 정엽(鄭暉) · 이원익(李元翼) · 홍명구(洪命耆)를 추가 배향하였고, 1708년(숙종 34)에 택당(澤堂) 이식(李植)을 추가 배향하였다. 그리고 순조 때에는 홍명하(洪命夏)를 추가함으로써 선현(先賢) 제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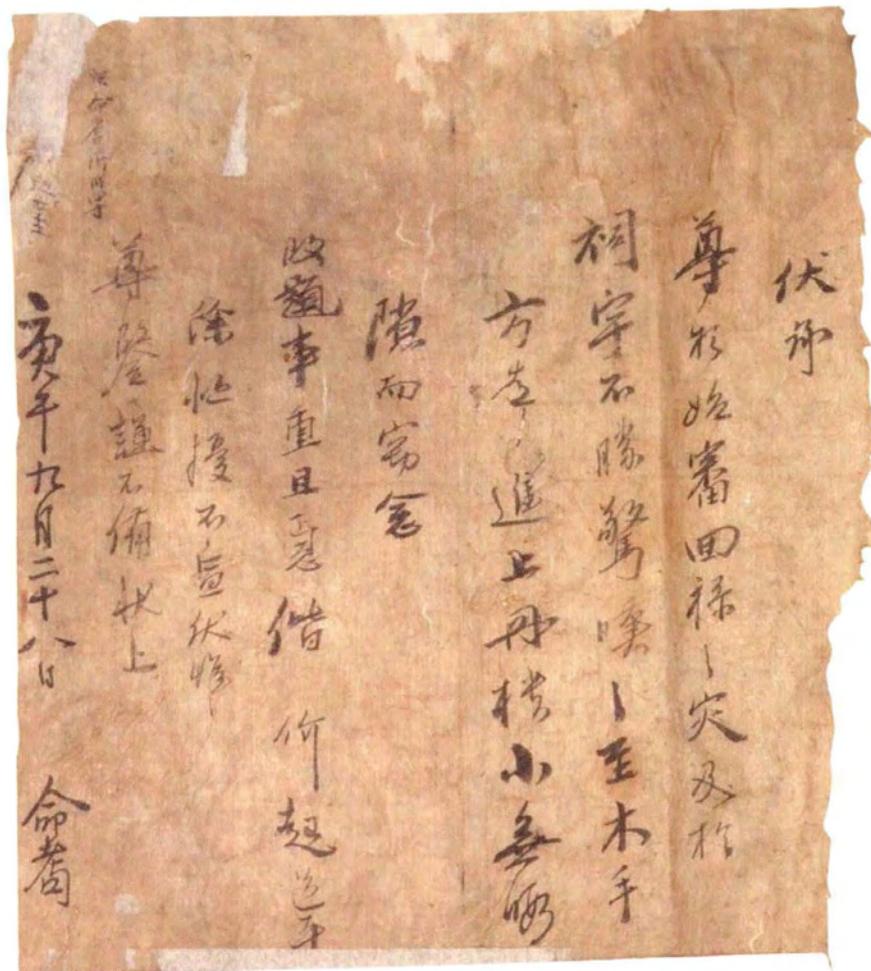


사진 68

홍명구 편지 | 1630년

홍명구(洪命壽, 1596~1637)의 본관은 남양이고 자는 원로(元老)이며 호는 나재(懶齋)이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동생 홍명하와 함께 기천서원(沂川書院)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고 묘는 금사면 이포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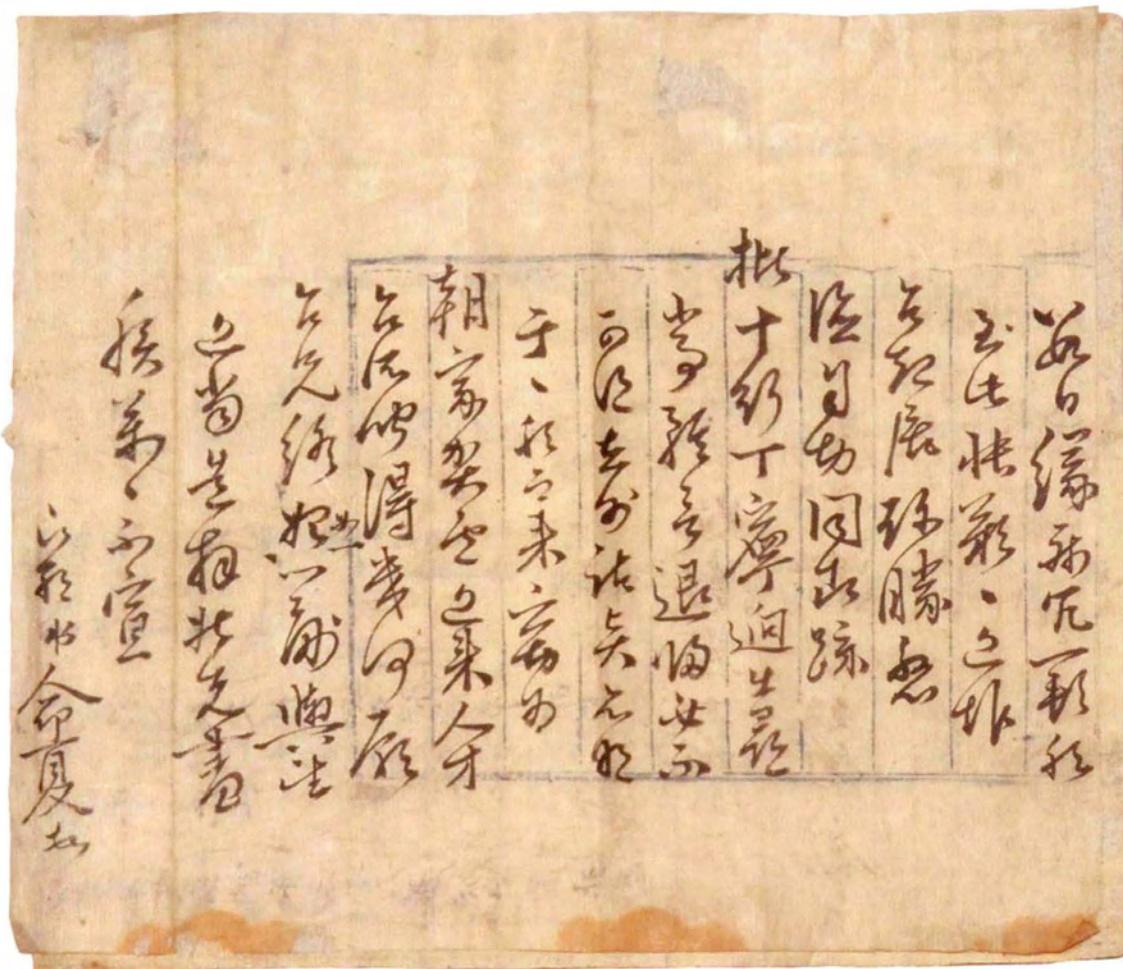


사진 69

홍명하 편지 | 17세기

홍명하(洪命夏, 1608~1668)의 본관은 남양이고, 자는 대이(大而)이며 호는 기천(沂川)이다.

1630년(인조 8) 생원이 되었고, 1644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49년 이조좌랑·경기감행여사, 1652년(효종 3) 동부승지, 1663년(현종 4) 우의정, 1665년 좌의정, 1667년 영의정이 되었다.

저서로는 『기천집(沂川集)』이 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묘는 여주군 흥천면 문장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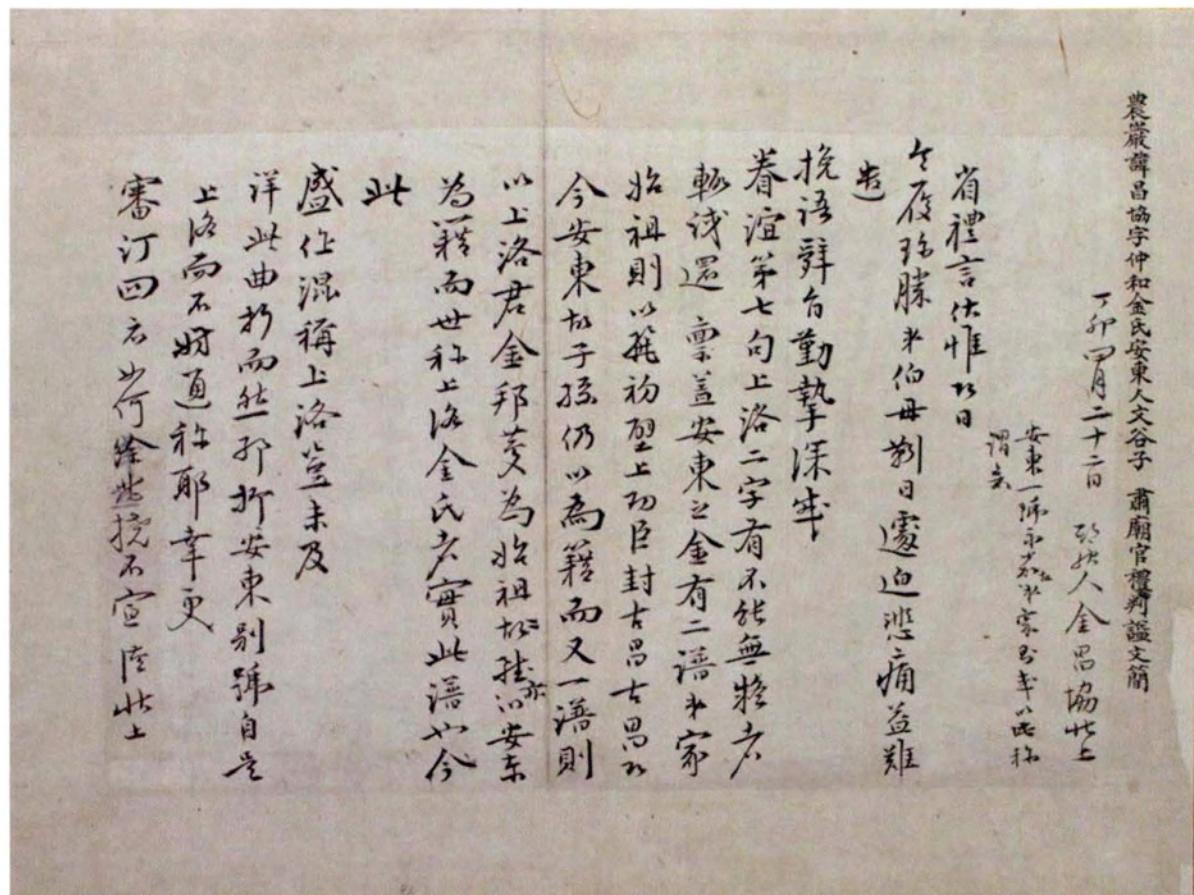


사진 70

김창협 편지 | 1687년

숙종대의 대학자 농암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이 쓴 편지이다. 김창협은 문학과 유학의 대가로 문장에 능했으며 글씨에도 뛰어났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중화(中和)이며 호는 농암(農巖)·삼주(三洲)이다. 김상현의 증손자이고 김수항의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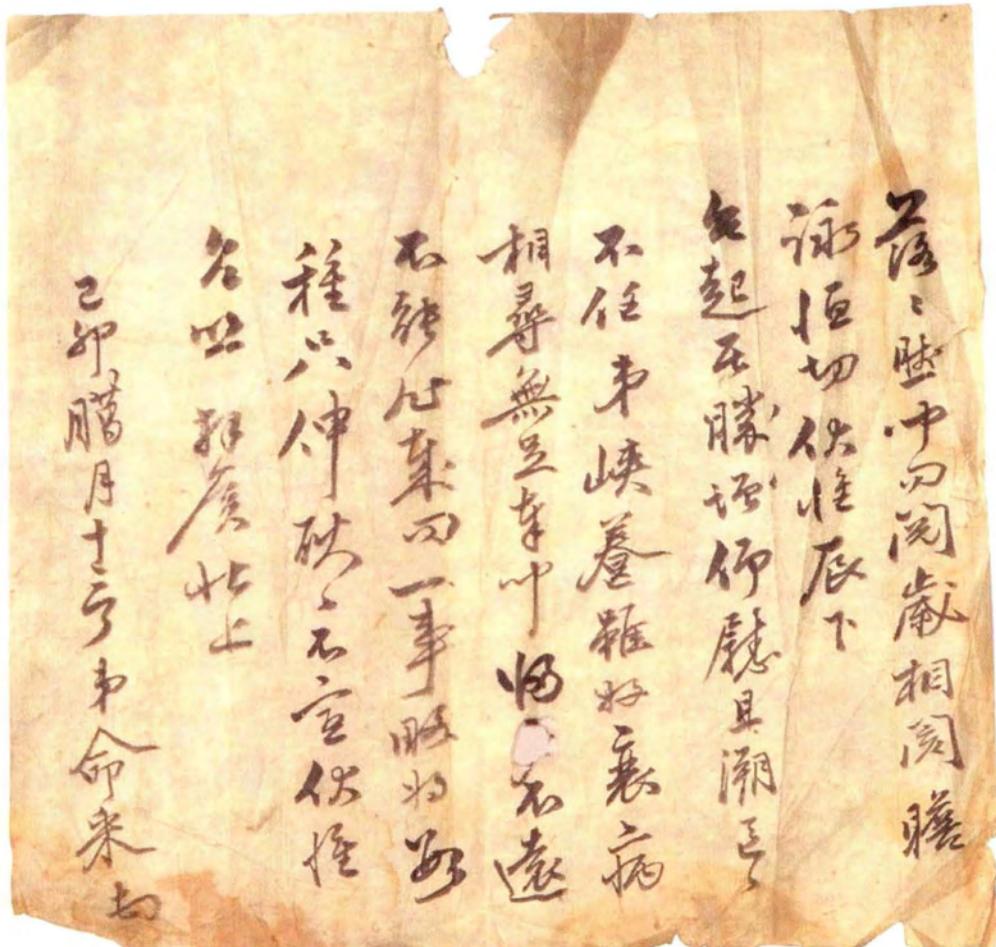


사진 71

조명채 편지 | 1759년

조명채(曹命采, 1700~1764)는 조선 영조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 자는 주경(璣卿), 호는 난곡(蘭谷)이다.

1736년(영조 12)에 문과에 급제하고 이후 홍문관교리·정언·대사간·대사성·이조와 호조 등의 참판을 역임했다. 1755년 예조참판으로 북도(北道)에 거주하고 있는 향화인(向化人)들의 성관(姓貫)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고, 1762년(영조 38)에는 사도세자 사건과 관련하여 국문(鞠問)을 받다가 곧 풀려났으며, 1763년(영조 39) 한성부우윤을 거쳐 좌윤을 지냈다. 묘는 여주군 대신면 무촌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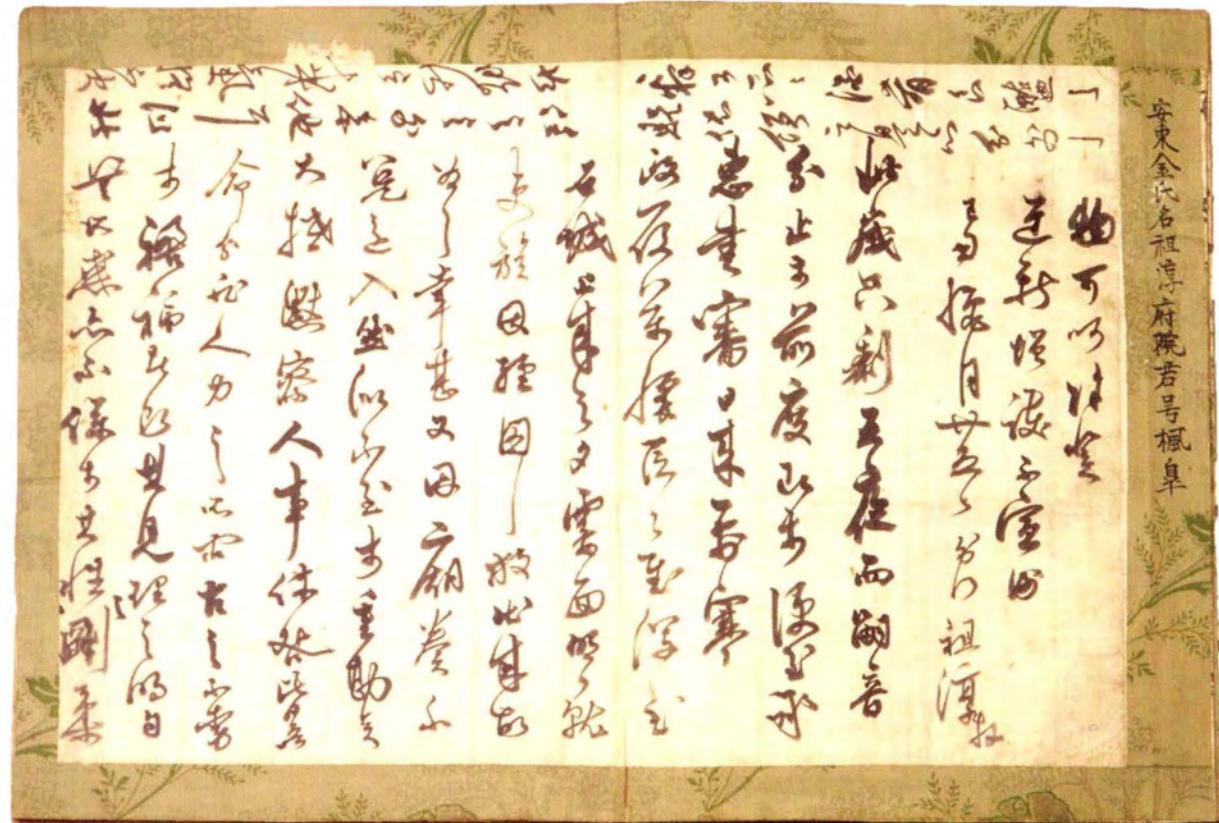


사진 72

김조순 편지 | 1829년

조선 순조의 장인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의 편지이다.

김조순의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사원(士源)이며 호는 풍고(楓臯)이다.

김창집의 4대손이다. 조선 후기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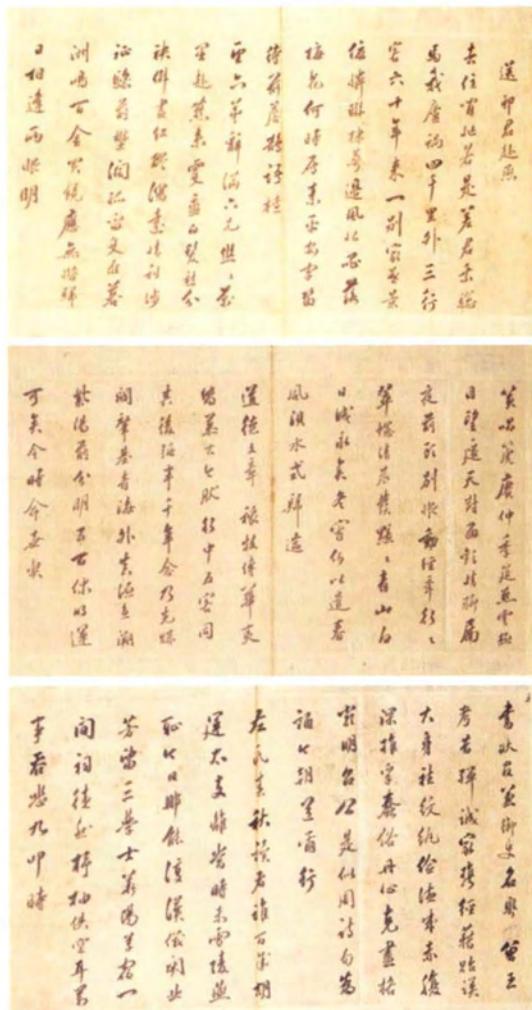


사진 73

이대재 7언율시 | 1838년

이시재(李時在)의 연경(燕京) 사행(使行)을 축하하는 송별시를 우의정 이경재 등이 써서 하나의 서첩으로 모아 놓은 송시첩(送詩帖) 중에서 이대재(李大在)의 7언율시이다. 이대재는 사행(使行)을 가는 이시재(李時在)의 큰형이다.

대재(大在) · 상재(常在) · 시재(時在) 3형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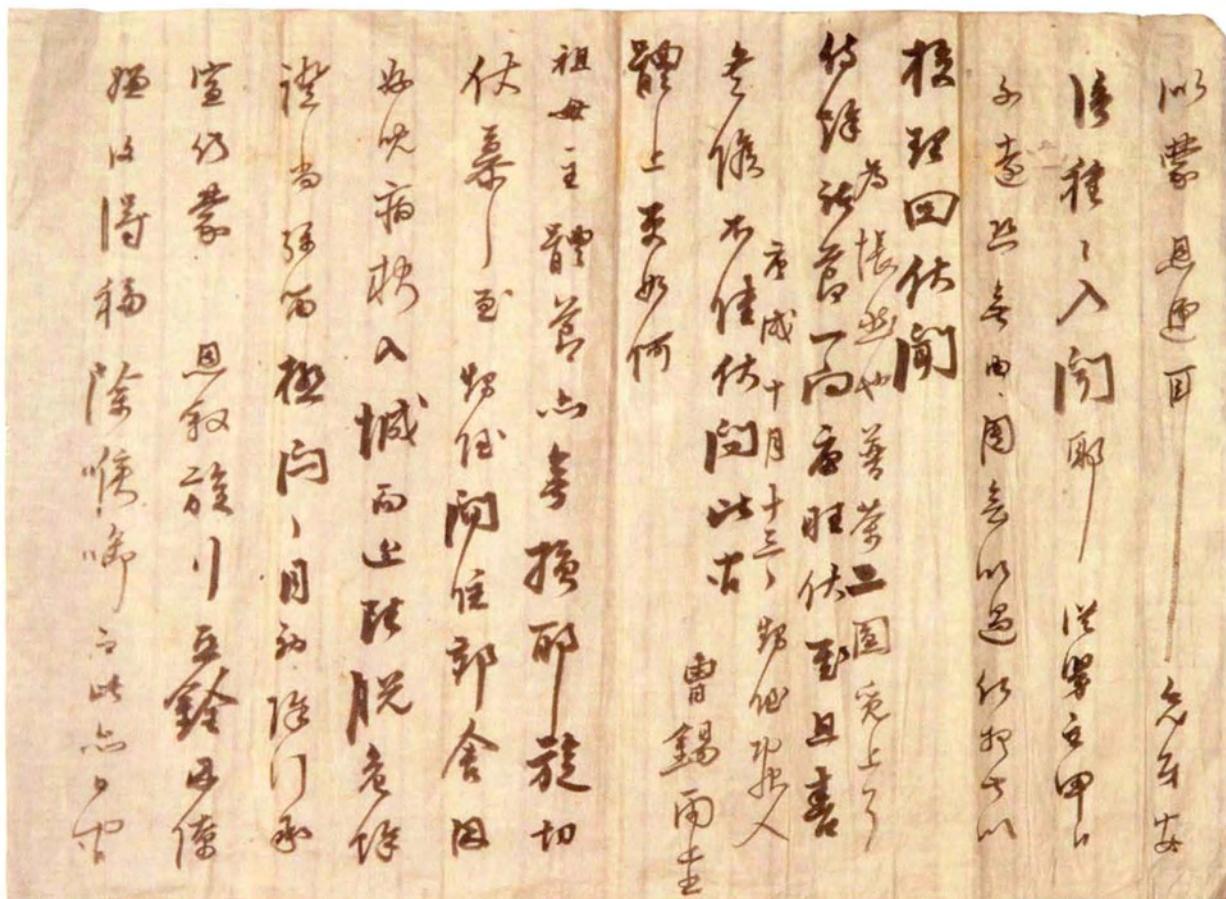


사진 74

조석우 편지 | 1850년

조석우(曹錫雨, 1810~1878)는 조선 고종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 자는 치용(稚用), 호는 연암(烟巖)이다.

1835년(현종 1)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이조참판에 올랐다.

1853년(철종 4) 경상도관찰사가 되고 이듬해 고조부(高祖父) 조하망의 문집(文集)인 『서주집(西州集)』을 간행했으나 내용 중에 송시열을 비난한 글을 삭제한 것이 말썽이 되어 중화(中和)에 유배되었다. 1857년(철종 8) 풀려나 공조참판에 오른 후 대사헌을 거쳐 1867년(고종 4) 이조판서가 되었으며 좌찬성에 이르렀다.

글씨에 뛰어났으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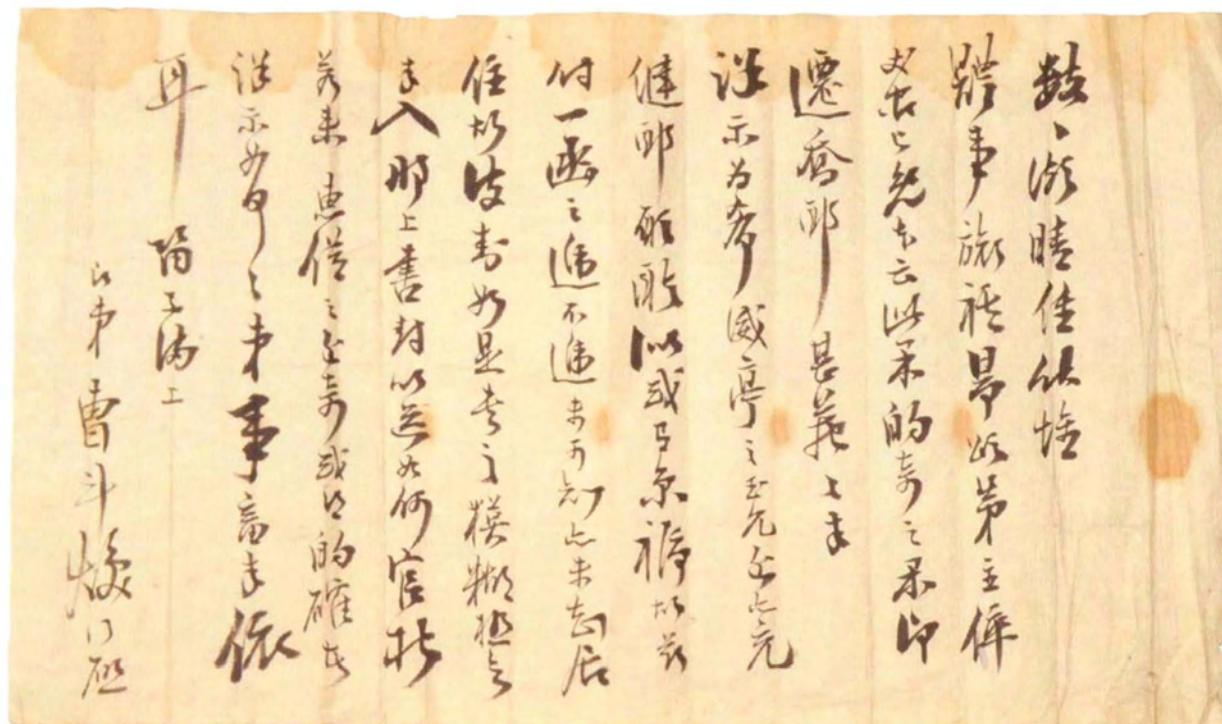


사진 75

조두환 편지 | 조선말기

조두환(曹斗煥, 1848~1915)은 조선 고종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운중(運中), 호는 춘동(春東) 또는 황강(黃江)이다. 대신면 보통리에서 태어났다. 1876년(고종 13) 식년시에 진사가 되어 1879년(고종 16) 참봉(參奉)을 거쳐 덕산 군수(德山郡守), 하양현감(河陽縣監), 연풍군수(延豐郡守)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유집(遺集)』 5권이 전한다. 묘는 여주군 대신면 장풍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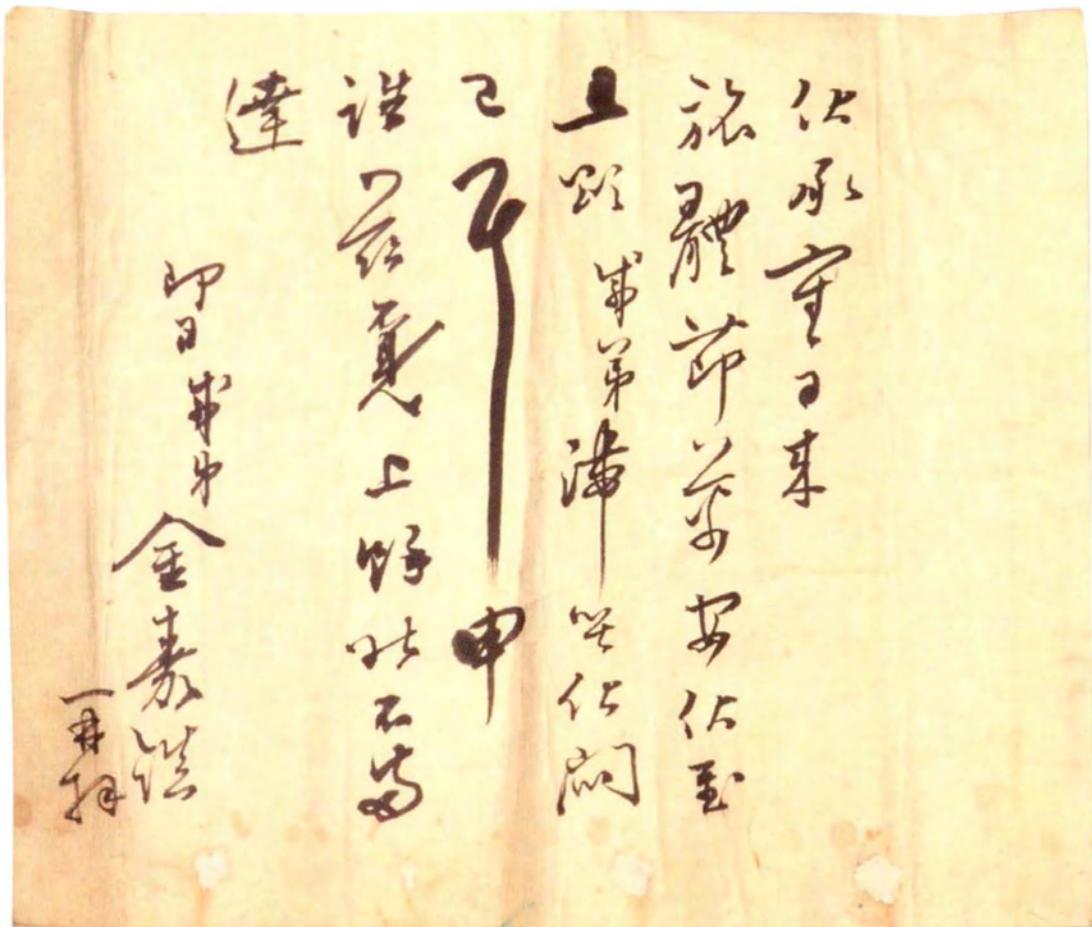


사진 76

김가진 편지 | 19세기

김가진(金嘉鎮, 1846~1922)의 본관은 안동이고 호는 동농(東農)이다.
1890년(고종 27)에 여주목사를 지냈다.



사진 77

우암집 | 1934년

우암 김주(金澍, 1512~1563)의 문집이다. 이 문집은 원래 7권 1책으로 엮어 기유년(1789, 정조 13)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내용을 보강하여 1934년에 6권 3책의 목활자본으로 중간하였다.

김주의 묘는 여주군 흥천면 귀백리에 있다.



사진 78

윤승길 영정 | 1613년경

윤승길(尹承吉, 1540~1616년)은 조선 광해군대의 문신으로 형조판서, 의정부좌참찬에 이르렀다. 그의 딸이 선조의 제7왕자 인성군 이공과 결혼하였으며, 1613년 임해군의 역모사건을 잘 처리하여 익사공신에 책록되고 해선군(海善君)에 봉해졌고, 시호는 숙간(肅簡)이다. 이 영정은 관복을 입고 의자에 앉은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 형태의 공신 초상화이다.

양손은 공수(拱手) 자세를 취하고 두 발은 족좌대(足座臺)에 올려놓았으며 그 아래에는 화려한 문양과 색깔로 정교하게 꾸민 오색채전을 깔아 놓았다.

가슴에는 모란꽃과 운문(雲紋) 사이로 노니는 모습의 공작 1쌍을 수놓은 흉배(胸背)를 착용하고 허리에는 서대(犀帶)를 차고 있다. 얼굴의 표현이 극히 섬세한데 특히 눈동자와 수염이 아주 사실적이다. 익사공신 초상화로는 유일하게 남아 전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해평윤씨동강공파종택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것이다.



사진 79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 1891년

□자형 한식기와집으로 안채와 바깥채가 잘 보존되어 있다.

사랑채는 불에 타 허물어져 있으나 축대와 주춧돌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후원과 정원은 전통적인 양식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데, 상태 또한 양호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

점동면 사곡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7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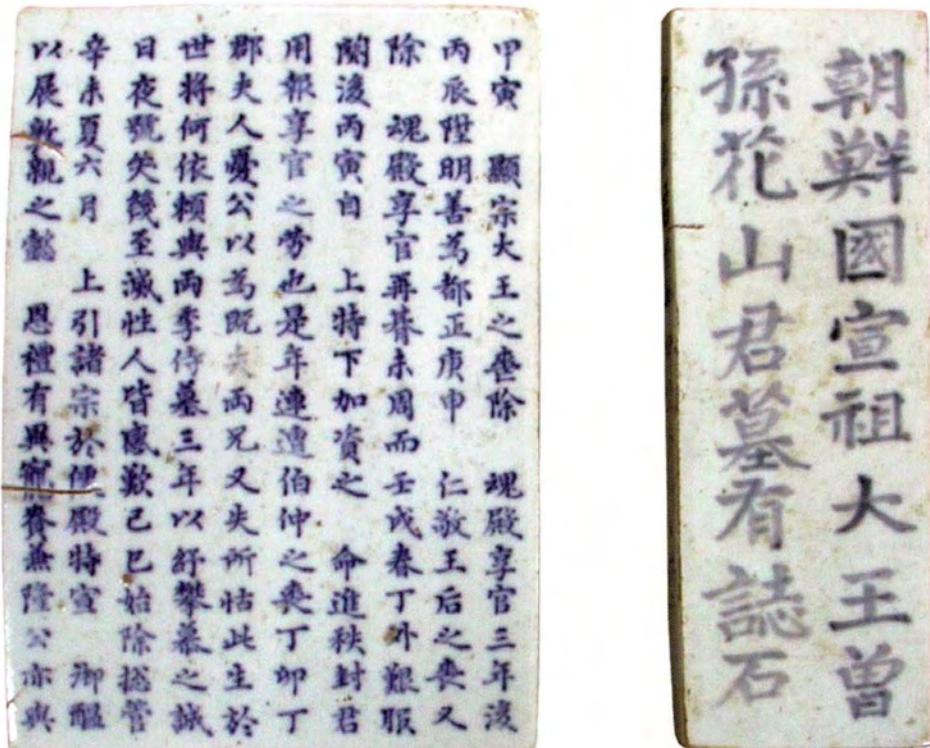


사진 80

화산군 묘지석 | 18세기

조선 영조 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管)을 지낸 화산군 이연(李漣, 1647~1702)의 묘지석이다. 화산군의 자는 여원(汝源), 호는 자이당(自怡堂)으로 선조의 7남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의 손자이다.

화산군의 가계를 살펴보면 그의 증조모는 선조임금의 후궁인 정빈민씨(靜嬪閔氏)로 여흥민씨(驪興閔氏) 출신이다.

화산군의 조부 인성군의 부인은 해평윤씨(海平尹氏)로 그녀의 아버지는 형조판서를 역임한 윤승길이다. 화산군의 묘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었으나 지금은 1747년에 세운 신도비만 남아 있다.



앞면



뒷면

사진 81

화산군 조복 | 18세기

화산군 이연(李漣)의 조복(朝服)이다.

조복은 관원이 조정에 나가 하례를 할 때 입던 예복으로, 왕실의 생일이나 경축일 외에도 정월 초하루와 동지 그리고 조칙(詔勅) 등을 반포할 때 입던 관복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1~9품의 모든 관원은 적초의와 적초상을 입고 폐슬(蔽膝: 무릎 앞을 가리는 천)을 늘어뜨렸다. 또한 관품에 따라 머리에 쓰는 관(冠), 허리띠(帶), 손에 쥐는 홀(笏), 버선 등을 각각 달리 하여 갖추도록 하였다.

이 조복은 안에 치마를 두르고 그 위에 적초의를 입고 다시 그 위에 폐슬을 달았으며 뒤에는 후수를 드리우고 허리에는 대대를 찼다.

적초의는 깃 · 도련 · 소맷부리에 청색 연(緣)을 두르고 적색의 초(綃)를 가지고 만들었으나 현재는 발색되었다. 치마에는 잔주름을 넣었으며 청색 연(緣)을 둘렀다. 대대는 두 색의 단(綢)을 가지고 겹을 만들었고, 후수(後綬)에는 운학문을 수놓았다. 함께 갖추어야 할 각대(角帶), 홀, 패옥(佩玉: 조복의 좌우에 늘이어 차던 옥) 등은 남아 있지 않다.

3. 여주관련 문서

驪州 文書

여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다양한 종류의 문서와 전적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역사적 정통성을 알리는 중요한 사료(史料)이다.



사진 82

신증동국여지승람 | 조선중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1530년(중종 25) 제작된 인문 지리서로, 여주목 편에서 여주의 연혁과 현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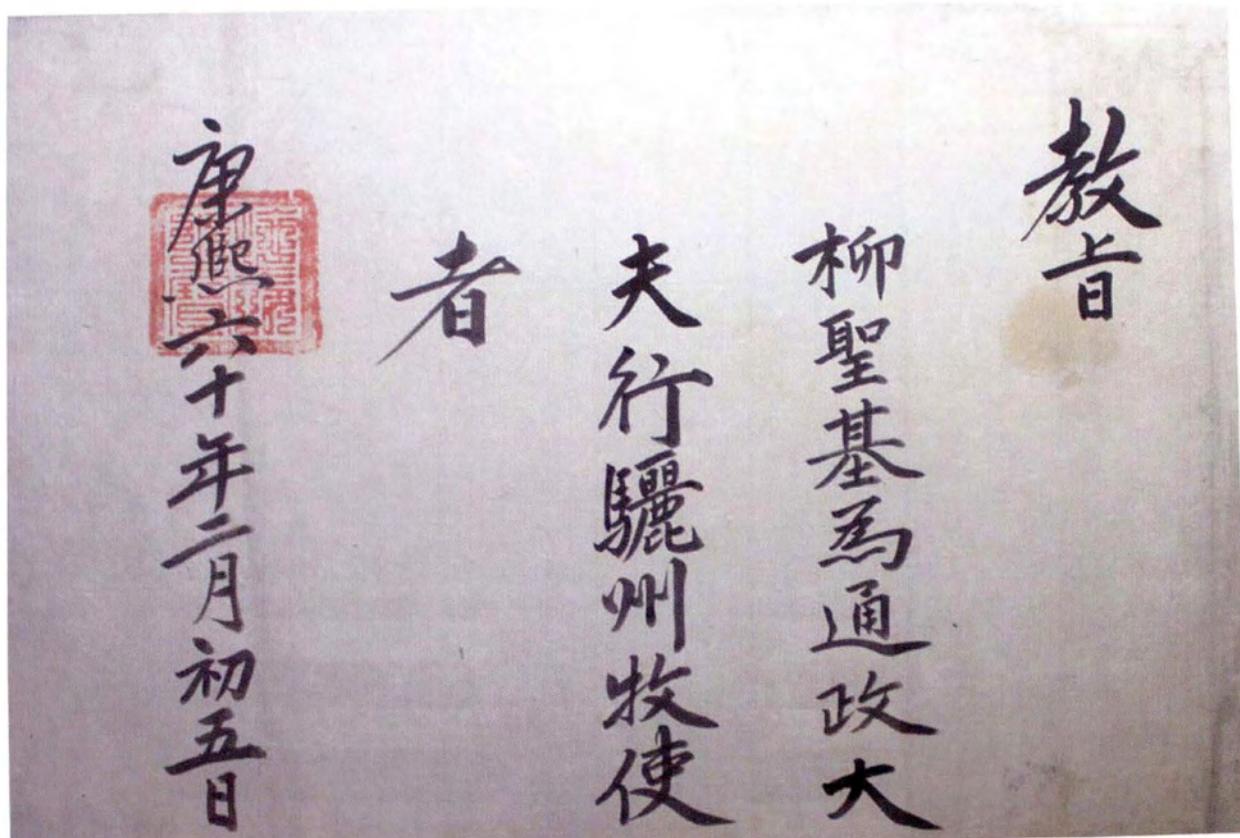


사진 83

여주목사 교지 | 1721년

유성기(柳聖基)를 통정대부행여주목사로 임명한다는 사령장으로 이조(吏曹)에서 발급하였다.



사진 84

여주향교

향교는 서당에서 공부한 15세 이상의 양반 자제를 교육하던 시설이다. 원래 여주향교는 여주읍 상리 마암(馬巖) 근처에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타버린 후 1685년(숙종 11) 여주읍 홍문리의 잣나무고개에 다시 건립되었다. 그 후 다시 현재의 교리로 위치로 이건했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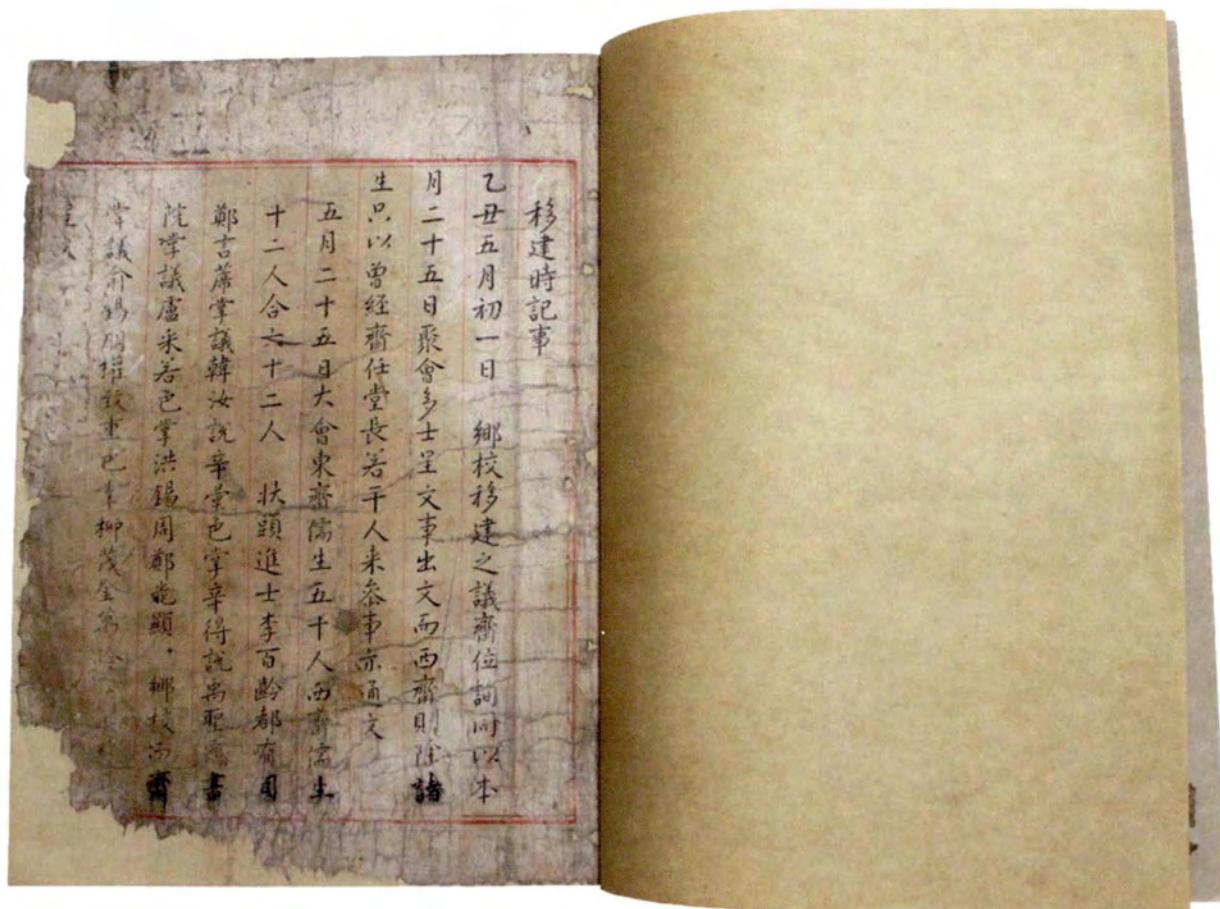


사진 85

여주향교수보기사 | 18세기

여주향교의 조선후기 중수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수리 보고서이다. 단정한 글씨로 쓰여진 필사본으로, 이건시(移建時) 기사(記事)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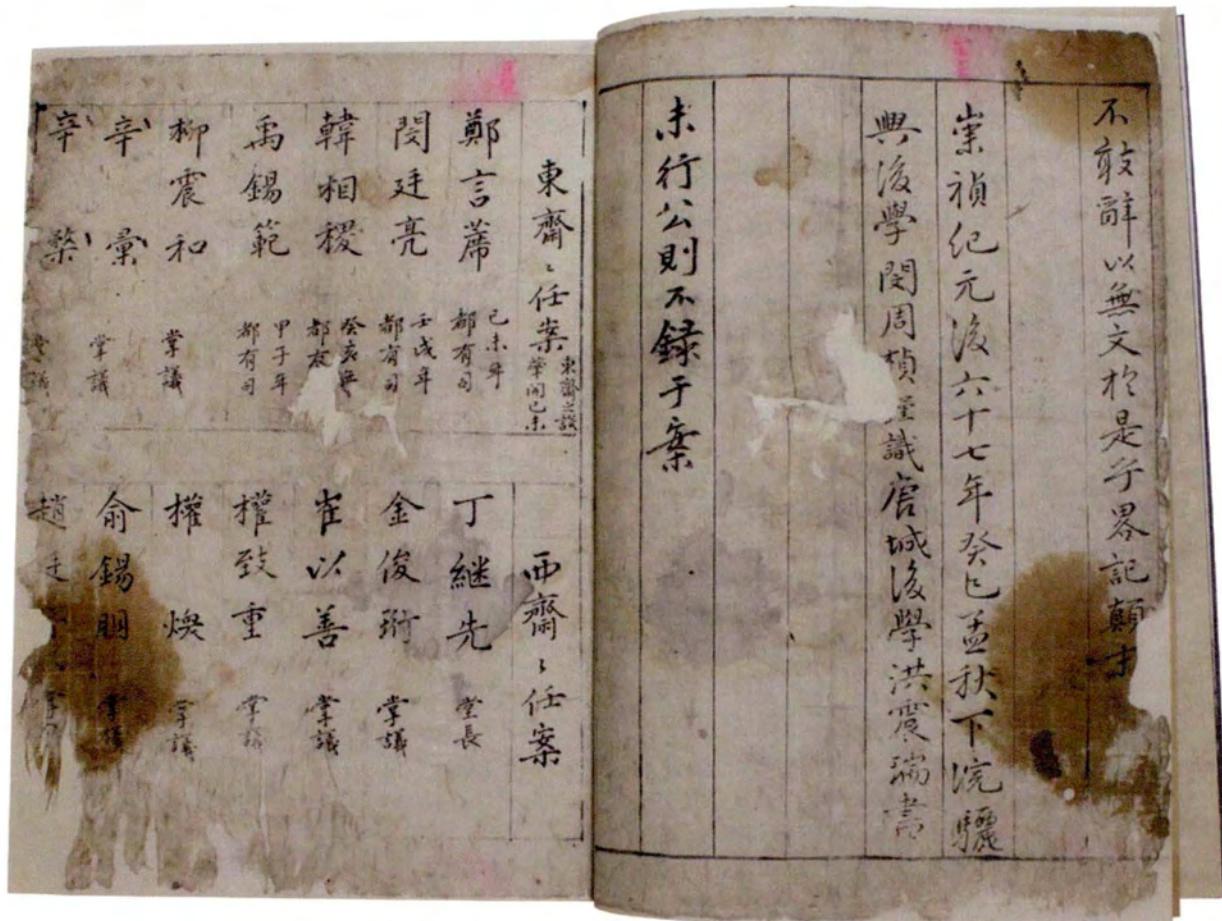


사진 86

향교재임선생안 | 조선

여주향교의 재임선생 목록이다. '재임(齋任)' 이란 성균관이나 향교에서 숙식하는 유생으로서 그 안의 일을 맡아보던 임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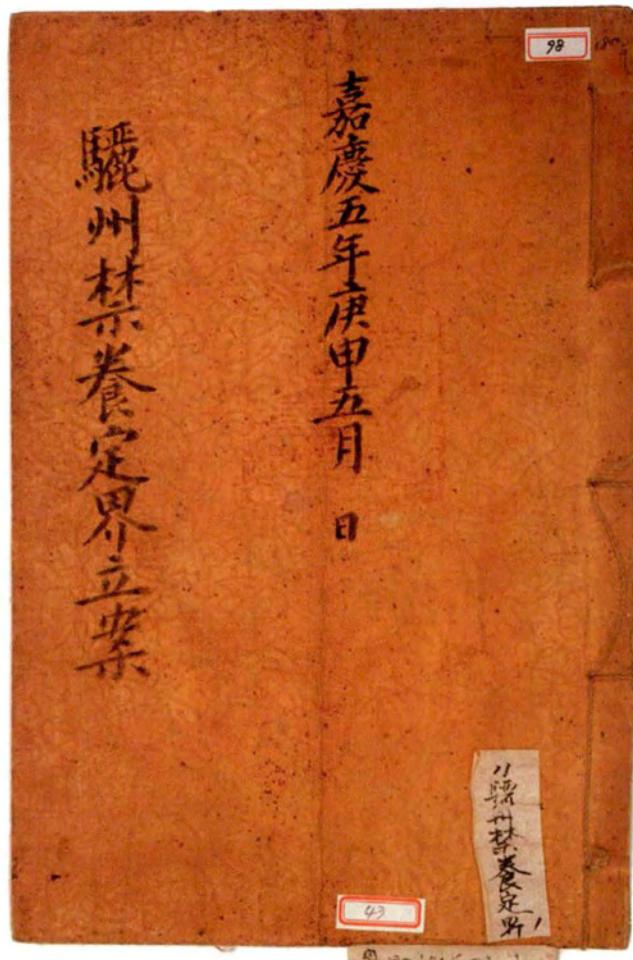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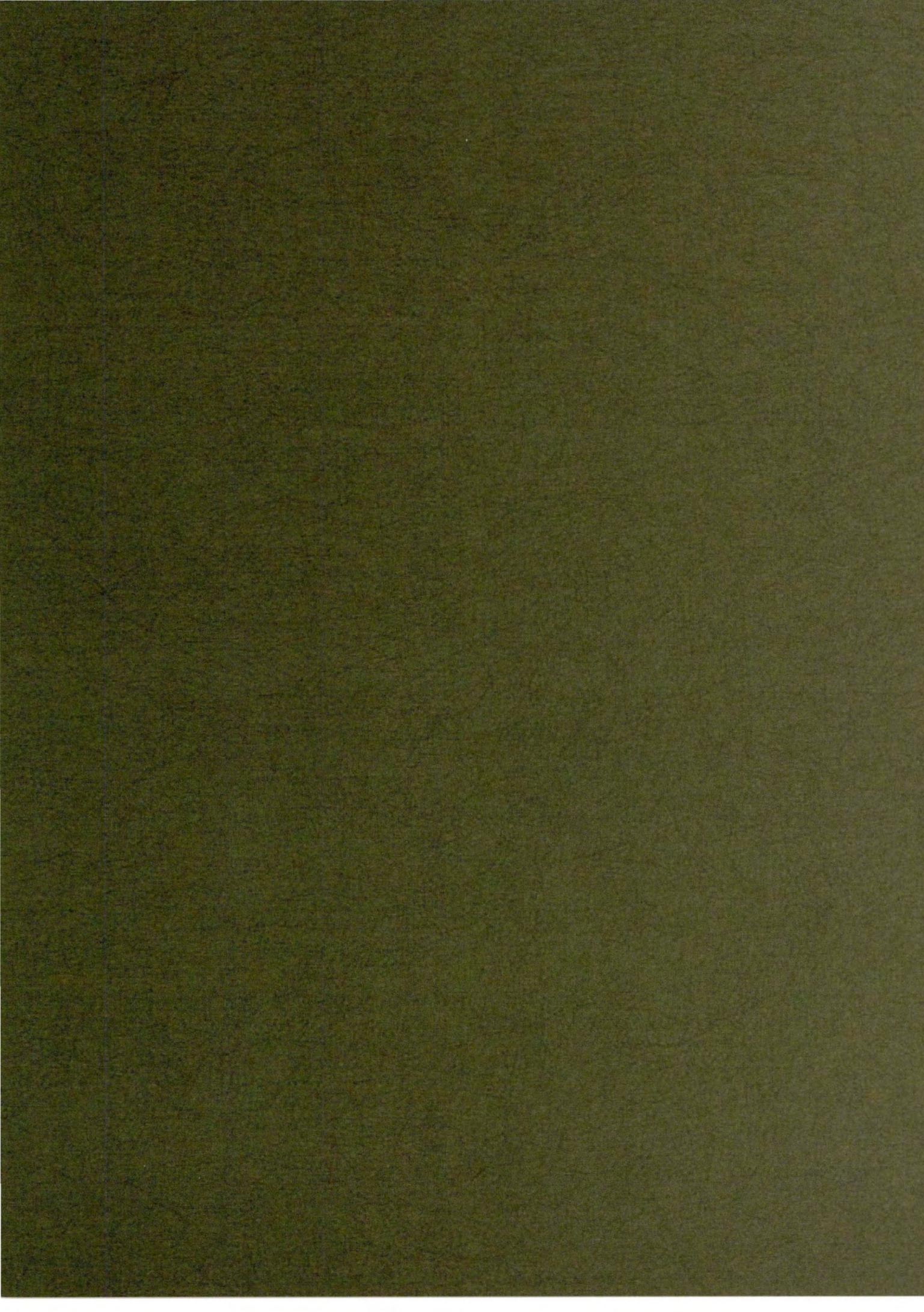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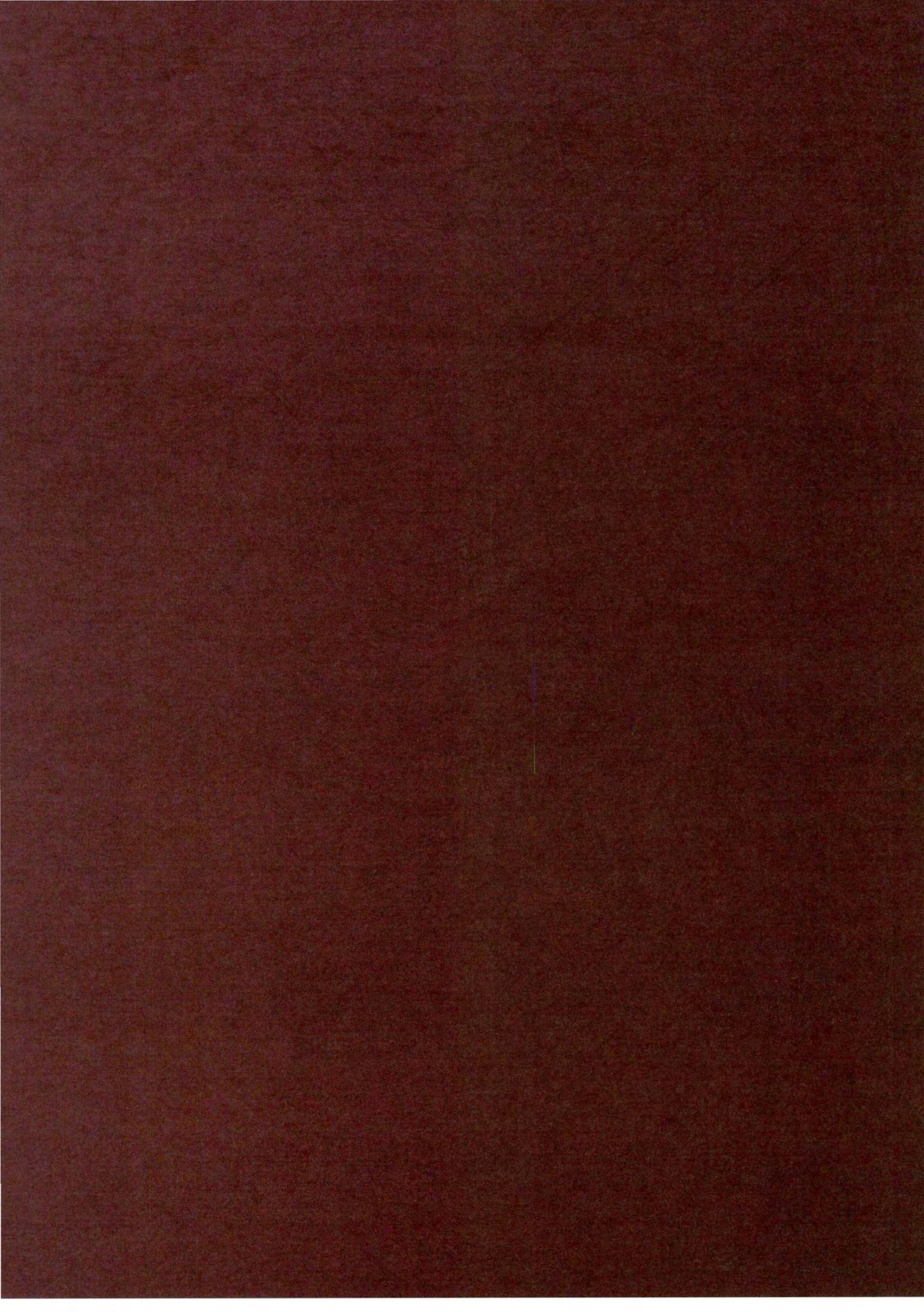


사진 87

여주금양정계입안 | 1800년

여주 관내 주민이 자기 산에 있는 나무의 벌목을 금하게 해 달라고 여주목사에게 소지(所志, 지금의 진정서)를 올리자. 목사가 영구히 수호하라는 처분을 내린 제사(題辭, 판결문)이다.





3. 옛 문서와 소품

옛 문서와 많은 연관을 갖는 용품 중에는 문방구(文房具)류가 있다. 종이, 붓, 먹, 벼루를 ‘문방사우(文房四友)’라 하여 예로부터 선비들은 이를 매우 아꼈다. 또한 물을 담는 연적은 우리나라 도자기의 발달과 더불어 그 쓰임새뿐만이 아니라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갖추어 애용되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편지봉투와 편지지는 각각 ‘백속(白屬)’과 ‘도련지(搗鍊紙)’라 하여 옛날에 선물용으로 많이 보낸 것이다. 즉 ‘나한테 편지를 많이 보내라’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간혹 편지 내용에서 ‘편지 백속 2편을 보낸다’, ‘도련지 2속을 보낸다’라는 글귀가 나오는데 특히 ‘도련지(搗鍊紙)’는 ‘다듬잇돌로 다듬어 반드시 만든 종이’란 뜻이다. 선비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재밌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사진 88

백자 복숭아 모양 연적 | 조선

천도복숭아를 탐스럽게 소조(塑造)한 연적이다. 잎에는 가는 잎맥을 음각한 다음 청채를 가하였다.



사진 89

백자 복숭아 모양 연적 | 19세기

천도복숭아를 탐스럽게 재현한 연적이다. 가지로부터 올라온 가는 잎이 탐스럽게 풍만한 복숭아의 양 볼을 감싸고 있으며 몸통의 중앙을 타고 곧게 올라온 굽은 줄기 하나는 연적의 수구(水口)가 되었다.



사진 90

백자 복숭아 모양 연적 | 17~18세기

복숭아의 모양에 아무런 채색을 가하지 않고 만든 연적이다. 단순하지만 수수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사진 91

백자연적 | 조선

납작한 원통모양의 윗면, 옆면을 둘러가며 '부귀다남자시○수(富貴多男子是○壽), '사대부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士大夫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 등의 글을 써 넣은 연적이다. 한쪽에 수구(水口)가 있다.



사진 92

백자서등 | 조선말기

뚜껑에 심지꽃이 따로 붙은 백자 서등은 석유 수입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석유의 인화성 때문에 등잔의 뚜껑 위로 심지를 뽑아 올려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 처음 석유가 수입된 것은 1876년(고종 13) 기록에 나타나는데, 백자 서등은 조선후기 유입초기에는 궁궐에서 사용되다가 점차 양반가와 중인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 등잔과 밑받침을 함께 구워낸 백자 등잔은 주로 책상에 얹어서 책을 읽을 때 사용하던 서등(書燈)의 일종이다.



사진 93

벼루, 붓, 연적, 백속, 도련지 | 19세기말~20세기초

글을 쓸 때 꼭 필요한 도구들이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편지봉투와 편지지는 각각 '백속(白屬)' 과 '도련지(搗鍊紙)' 라 하여 선물용으로 많이 보낸 것이다.



사진 94

연상 | 19세기말~20세기초

붓, 먹, 벼루, 연적, 종이 등 문방제구를 담아 두는 작은 책상이다.



사진 95

필통 | 조선

대나무로 제작된 필통으로, 국화문이 풍성하게 조각되어 있다.

부 록

- 원문 번역
- 전시회 사진
- 표, 사진목록

원문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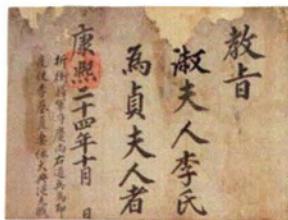


사진 1
정부인이씨 교지(貞夫人李氏 教旨) | 1685년

教旨
淑夫人李氏
爲貞夫人者
康熙二十四年十月
折衝將軍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李基夏妻依大典從夫職

교지
숙부인이씨를 정부인으로 올림.
강희 24년 10월 일
절충장군수경상우도병마절도사 이기하의 처를 대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라 정부인직을 부여함.



사진 2
김한기 교지(金漢耆 教旨) | 1767년

教旨
金漢耆爲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者
乾隆三十二年閏七月初四日

교지
김한기를 통정대부승정원동부승지겸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자로 임명함.
건륭 32년 윤7월 초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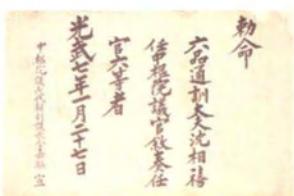


사진 3
심상희 칙명(沈相禧 勅命) | 1903년

勅命
六品通訓大夫沈相禧
任中樞院議官敍奏任官六等者
光武七年一月二十七日
中樞院議長代辦副議長金嘉鎮 宣

칙명
육품직 통훈대부 심상희를
중추원의관서주임관육등자로 임명함.
광무 7년 1월 27일
중추원의장 대관 부의장 김가진 (황제의 하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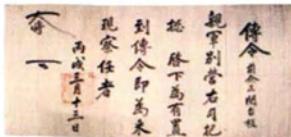


사진 4
민태식 전령(閔台植 傳令) | 1886년

傳令 前僉正閔台植
親軍別營右司把
摠 啓下爲有置
到傳令卽爲來
現察任者
丙戌三月十三日
大將 (署押)

전령장

전첨정 민태식을 친군별영 우사의 파총으로 임하라는 명이 있어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와서
임무를 말도록 하라.
병술년 삼월 십삼일
대장 (서압)



사진 7
준호구(准戶口) | 1867년

同治六年 月 日 漢城府
考丁卯成籍戶口帳內東部往十里仁昌坊一契第十九統第二戶住幼學閔泳喜
年五十一丁丑生本驪興父學生 元鎬祖學生 致德曾祖學生 仲顯外祖學生張泰聖本丹陽妻張氏齡
五十二丙子生本仁同父學生 淳泰祖學生允奎曾祖學生啓連外祖學生梁元根本南原
等甲子戶口準給者
堂上(수결) 郎廳(수결) 監董(수결) (周挟字改印)

동치 6년 월일 한성부

정묘년에 작성한 호구대장을 참고하면 동부 왕십리 인창방 1개 제19통 제2호에 거주하는 유학 민영
희는 나이 51세로 정축생이고 본관은 여홍이며 부는 학생 원호, 조부는 학생 치적, 중조는 학생 중현,
외조는 학생 장태성으로 본관은 단양, 처 장씨는 52세로 병자생이며 본관은 인동, 처부는 학생 순태,
처조부는 학생 윤규, 처중조부는 학생 계연, 처외조는 학생 양원근으로 본관은 남원 등이다. 이에 이를
비준하여 발급한다.

당상(수결) 낭청(수결) 감동(수결) (주협자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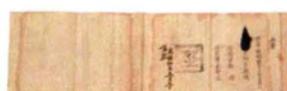


사진 8
계문(啓文) | 1878년

兵曹
禁軍別將望申正熙遷轉代
□正卿 李鳳儀
行護軍 許 煙
行護軍 吳晉泳
(啓押印)
光緒四年五月十一日 落點

병조

금군별장(禁軍別將) 직에 신정희(申正熙)을 대신하여 망천(望遷)함.
□정경 이봉의
행호군 허 습
행호군 오진영
(啓 압인)
광서 4년 5월 11일 낙점



사진 9
관문(關文) | 1889년

行法聖鎮水軍僉節制使爲回移事卽到 貴移
是置長城府所納乙酉條結作米該色吏前已身
死丁亥條該吏囚 巡督門甘飭已爲在囚弊鎮
都沙工昨夏在囚戶曹尙未放還是如乎并只
俯諒之地幸合行移關請
照驗施行須至關者
右關
綏州牧
光緒十五 五月二十日
回移
關 行僉節制使 (押)

법성진수군침절제사께서 보낸 이문(移文)과 관련한 일입니다.

귀하의 이문을 받고 보니 장성부에서 납부할 을유년 결작미는 해당 색리가 전에 이미 죽었고, 정해년 것은 해당 색리가 순영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감결 공문을 받았고, 폐진의 도사공은 작년 여름에 수감되었는데 호조에서는 아직 죄인을 풀어주지 않고 있으니 부디 양해해 주신다면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살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우 관문

능 주 목에서

광서 15년 5월 20일

회이

관 행침절제사 (압)



사진 10
첩정(牒呈) | 1890년

興德縣小星廳執綱爲牒報事卽到付 廳關內乙
用良本邑廣大李点巖今月初八日內起送亦教是故
同李点巖此去下人處同起送緣由牒報爲去乎
事合行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巡 聚星閣
光緒十六年三月初 日行執綱陳
牒報

홍덕현 소성청 집강이 첨보를 올리는 일은 즉 청에 도착한 관문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본읍(홍덕현) 광대 이점암을 이번 달 초8일 안에 보내라 하신 고로

이점암을 따라온 하인과 함께 채우고 보내려 하는 일로 첨보를 보냅니다.

청컨대 살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첨정

순취성각(첨사) 앞

광서 16년 3월 초 행집강 진아무개

첨보



사진 11
원경하 편지(元景夏 書簡) | 1729년

離群索居無良友, 切磋深懼罪過之日積, 足下不棄,
辱書見教, 甚感甚幸. 僕近日果從事於詩工矣. 固知
羊棗昌歎之嗜, 不足以饑飽, 而自顧僕不復用於當世矣.
恣意放浪於山巔水涯之外, 而所謂漢魏六朝李唐之
時, 無日不咏於口. 欲與蘇李枚乘曹劉李杜諸君子,

朝暮而神遇之，其憂愁感憤之言，往往探奇抉幽，而胷中佗傺鬱悒之恨，一寓於詩而發之。自以其不得意於斯世，雖有卓絕超邁之識，奇偉倜儻之志，鬱其所蓄，無以發見於事業矣。夫宋玉九辨之章，梁鴻五噫之歌，皆忠臣志士，怨刺不平之鳴，而一唱三歎，不覺手舞而足蹈，亦詩人一樂也。昔康節夫子，飲酒浩歌於安樂窩中，其詩曰，風月情懷，江湖性命，色斯其舉，翔而後至。聞人之謗，未嘗怒，聞人之譽，未嘗喜，收天下春歸之肝肺。嗚呼，其亦豪傑之士矣。如僕者，願為執鞭於康節夫子而不可得也。太史公曰，國風好色而不淫，小雅怨誹而不亂。若離騷者，可謂兼之矣。今僕不能舒和高暢以學康節之豪氣，則其憂愁感憤之言，反復吟咏，能無離騷之思乎。僕自知不復用於當世矣。咏詩自放於山巔水涯之外，雖與草木蟲魚鳥獸之物類，相為漸滅，而亦無所恨矣。僕雖自號為詩人，其心不在於詩，而足下以好詩戒之，如伯玉者，不知僕，僕不復求知於今世也。足下平昔以僕為知己，知己而不知其心，可乎。豫讓子行乞於超市，其友獨識其豫讓子也。僕嘗曰，吾心惟吾友知之。足下疑僕以好詩，而不知其心不在於詩，亦異於豫讓友矣。雖然區區此心，終不可相諱也。昔僕在京，謂足下曰，吾輩讀書講學，他日立朝，不能以直道事君，沈酣於富貴功名而嘿嘿苟容，則兩人將無以相見矣。足下亦曰，今日之言，毋敢忘也。足下今已出身而立朝矣，未知足下之言，果能用於今之人，而足下之道，果能行於今之世也耶。前春之，上不能開悟聖心，下不能挽回時勢，而獨一身敗壞耳。足下出世而果何成也。言不用而道不行，遲徊顧戀，猶未能退歸於田廬。僕恐怕玉七尺之軀，將不免於危難也。君子見機而作，不俟終日。僕以伯玉為殷鑒，而將遠遁於江湖間矣。嗚呼，如僕者，不復用於當世矣。閉戶咏詩，以終老，百年死後，留詩數百篇，其憂愁感憤之言，使子雲堯夫相遇於千古，則雖病其苦調幽音，無和暢悠揚之意，而俯仰悲慨，亦有知其志士不平之鳴也。今足下不知吾心，而將欲求知於千百世所不知何人，悲夫悲夫。足下能戒僕之好詩，其自覺詩酒之誤人，可知也。僕自聞此言，喜而不寐，不復憂伯玉為詩酒浮薄之輩也。唐荊川嘗責蔡子木，以聰明絕世之資，消磨剝裂於風雲月露之間，以景差唐勒曹植蕭統為聖人，而冀為其後。前冬陶谷之書，足下不能忘乎。足下之嗜酒喜詩，固其病也。今深覺其不緊，而不復呼酒賦詩，則吾以伯玉，不更求於景唐曹蕭之徒。而悠悠歲月，亦不虛度於風雲月露之間矣。夫君子之學，或施之事業，則不能復見於文章。蓋難得其兩，如歐陽子，所謂劉柳無稱於事業，而姚宋不見於文章者，是也。足下少年登第，聲名振耀於一世，事業文章，雖兼於兩得，而亦不難也。彼四人者，何足道哉。雖然，足下遇時進用，不能以剛毅正直事吾君，而貪戀寵榮，又未早歸於林下，刻苦自力大覩於詞，則姚宋事業劉柳文章，將兩失之也。其呼酒賦詩，日吟哦於風雲月露之間，反為高潔簡澹也。僕江湖以耕釣養親，幸有暇日，與漁翁野老，嘯歌而放遊，自知宋玉梁鴻之悲愁，固不及於安樂窩飲酒浩歌之興，而超然避世，亦可為聖世逸民矣。惜乎，伯玉為功名所誤，而不能自脫危塗也。足下以僕無精確切實之工，其責勉是也。敢不拜受，聞近讀遷史，僕亦小日喜讀此書，俊爽悲壯，可知其人有奇氣也。足下讀之，亦有激發矣。嚴君嘗聽其言，以為深於史學，今果然矣。試以吾書示之，以為如何也。不宣。己酉八月初二日元景夏拜

좋은 친구도 없이 사람들을 떠나 외롭게 거처하고, 마음을 졸이고 매우 두려워서 허물이 날로 쌓여가는데, 족하(足下, 상대에 대한 존칭)가 〈나를〉 버리지 않고 편지를 보내주어 가르침을 받으니 매우 고맙고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근래에 시(詩)를 짓는 데에 종사(從事)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아주 좋아하는 양조(羊棗)와 장감(昌歎, 채소로 만든 반찬)이 배부르게 하기에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다시 당대(當代)에 등용되지 못해 마음껏 산과 물가를 방랑하는 것 이외에 한(漢) · 위(魏) · 육조(六朝) · 당(唐)의 시(詩)라는 것들을 입에서 읊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소무(蘇武) · 이능(李陵) · 매승(枚乘, 한나라 때의 문인) · 조식(曹植, 조조의 아들) · 유정(劉楨, 한나라 말기 사람으로 建安七子 중의 한명) · 이백(李白) · 두보(杜甫) 등과 아침부터 저물 때까지 마음으로 만

나려고 하였습니다. 그 우수(憂愁)와 감정이 촉발된 말에서 종종 기특하고 깊은 것을 찾아 가슴 속에 답답하고 울적한 한(恨)을 한번 시(詩)에 의탁해서 드러내었습니다. 제 스스로 이 세상에서 뜻을 얻지 못해 비록 고매한 학식과 큰 뜻이 있더라도 은축(蘊蓄)한 것을 사업(事業)에 드러낼 수 없는 것을 슬퍼하였습니다. 송옥(宋玉, 전국시대 楚나라 사람)의 문장인 구변(九辨, 九辨招魂)과 양홍(梁鴻, 東漢 때 사람)이 <지은> 오희가(五噫歌)는 모두 충신과 지사(志士)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울림이 있어 한번 노래하고 세번 탄식을 하니 나도 모르게 손으로 춤을 추고 발을 움직이게 되었는데, <그것도> 시인(詩人)에게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옛날 강절(康節, 邵雍의 시호)선생이 안락窝(安樂窩, 소옹의 거처)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였는데, 그 시(詩)에서 말하기를, “바람과 달은 감정이고 강호(江湖)는 성명(性命)이네. 기색(氣色)을 보고 일어나서 높이 날아간 뒤에 오네. 남의 비방을 듣고 화를 낸 적이 없고, 남의 칭찬을 듣고 기뻐한 적도 없으며 천하의 봄<기운을> 모아 간(肝)과 폐(肺)에 돌리네”라고 하였습니다. 아! 그도 호걸스런 선비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강절선생에게서 채찍을 잡기를 바랐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태사공(太史公, 사마천)이 말하기를, “국풍(國風)은 호색(好色)하나 음란하지 않고, 소아(小雅, 시의 편명)는 원망하나 어지럽지 않은데, 이소(離騷, 굴원이 지은 楚辭)와 같은 것은 겸비했다고 할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화답하여 강절(康節)선생의 호기(豪氣)를 배울 수 없고, 그 우수(憂愁)와 감정에서 촉발된 말을 반복해서 읊는다면 이소(離騷)와 <같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 스스로도 당대에 다시 등용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과 물가에서 시(詩)를 읊으며 방랑하는 것 이외에 비록 초목(草木) · 벌레 · 물고기 · 새와 짐승들과 어울려서 죽더라도 한(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비록 스스로 시인(詩人)이라고 부르더라도 그 마음은 시(詩)에 있지 않은데, 족하(足下)가 시(詩)를 좋아하는 것으로 경계하셨습니다. 만약 백옥(伯玉, 吳瑗의 자)이 나를 모른다면 저는 지금 세상에서 다시 알아주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족하(足下)가 평소에 나를 친구로 여겼는데, 친구로서 그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양(豫讓, 전국시대 楚나라 사람)이 조(趙)나라 시장(市場)에서 구걸을 했는데, 그 친구만이 그 예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내마음은 친구만이 알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족하가 시를 좋아한다고 저를 의심하고 그 마음이 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니 예양의 친구와도 다릅니다. 비록 그러하나 저의 이런 마음을 끝내 서로 회피해서는 아니됩니다. 옛날 제가 서울에서 족하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책을 읽고 학문을 익혀 훗날에 조정에 서서 바른 도(道)로 임금을 섬기지 못하고 부귀공명(富貴功名)에 빠져 말없이 구차한 모습을 하면 두사람은 서로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니, 족하도 말하기를, “오늘의 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족하가 지금 벼슬길에 나가 조정에 서있는데, 족하의 말이 정말로 지금 사람에게 쓰이고 족하의 도(道)가 지금 세상에 실행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봄의 상소에서,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깨우칠 수 없었고, 아래로는 시세(時勢)를 만회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몸만 피로했을 뿐입니다. 족하가 세상에 나가 정말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말은 쓰이지 못하고 도(道)는 실행하지 못하는데, 주저하고 연연해하다가 아직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7척(七尺) 체구의 백옥(伯玉, 오원의 자)이 위험을 모면하지 못할까 근심스럽습니다. 군자는 때를 보아 일어나고 하루 종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백옥(伯玉)을 귀감으로 여겨 강호(江湖)에 멀리 은둔하려고 합니다. 아! 저와 같은 자는 당대에 다시 등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문을 닫고 시를 읊다가 늙어 죽은 뒤에 수백편의 시를 남겨 그 우수(憂愁)와 감정에 촉발된 말이 자운(子雲, 揚雄의 자)과 요부(堯夫, 邵雍의 자)로 하여금 천고(千古)에 서로 만나게 한다면 비록 쓸쓸한 음조(音調)에 화창하고 한가로운 뜻이 없어 병폐가 있더라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세상을> 내려보아 슬프게 탄식하는 것도 지사(志士)의 불평하는 울림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족하가 제 마음을 모르고 천백세(千百世)뒤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알아주기를 구하려고 하니 슬프구나! 족하가 시를 좋아하는 저를 경계하고 스스로 시(詩)와 술이 사람을 그르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잠을 못잤고, 백옥(伯玉)이 시와 술 때문에 경박한 부류가 되는 것을 더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형천(唐荊川, 唐順之)이 채자목(蔡子木, 인명)에게 총명하고 뛰어난 자질로 풍운(風雲)과 달밤의 이슬 사이에서 <세월을> 보내며 타락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경차(景差,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賦를 잘 지었다) · 당륵(唐勒,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 · 조식(曹植) · 소통(蕭統, 昭明太子)을 성인(聖人)으로 삼아 그 뒤를 잇기를 바랐습니다. 지난 겨울에 도곡(陶谷, 李宜顯의 호)의 편지를 족하는 잊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족하가 술과 시를 좋아하는 것은 참으로 그 병폐입니다. 지금 그것이 긴요하지 않은 줄을 깊이 깨달아서 다시 술을 먹고 시를 짓지 않는다면 나는 백옥(伯玉)을 경차 · 당륵 · 조식 · 소통의 부류에서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도 풍운(風雲)과 달밤의 이슬사이에서 헛되어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군자의 학문이 혹시라도 사업에 시행되면 문장(文章)에서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구양자(歐陽子, 歐陽脩)처럼 두가지 모두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유(劉, 劉楨)와 류

(柳, 柳宗元)는 사업에 있어 일컬을 만한 게 없고 요(姚, 姚崇)와 송(宋, 宋璟)이 문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하가 어릴 때에 과거에 합격하여 일세(一世)에 명성을 떨쳐서 사업과 문장 모두를 함께 하더라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 네명의 사람이 어찌 말하기에 충분하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죽하가 때를 만나 등용되어 강의(剛毅)와 정직으로 우리 임금을 섬길 수가 없고 총애와 영예를 탐닉해서 자연으로 일찍 돌아오지 않고서 혼자 힘으로 사(詞, 문장)에 애쓴다면 요승과 송경의 사업 및 유정과 유종원의 문장을 모두 잊게 될 것입니다. 술을 먹고 시를 짓으며 날마다 풍운(風雲)과 달밤의 이슬사이에서 읊조리는 게 도리어 고결하고 담백할 것입니다. 저는 강호(江湖)에서 <발을> 같고 낚시질을 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다행하게도 여가가 있으면 고기잡는 늙은이와 촌의 노인들과 노래하고 놀라다닙니다. 스스로 송옥(宋玉)과 양홍(梁鴻)의 슬픔을 알지만 진실로 안락(安樂窟, 소용의 거처)에서 술을 먹고 노래하는 감홍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연히 세상을 피해 태평성대에 은거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석하다. 백옥(伯玉)이 공명(功名) 때문에 잘못되어 스스로 위태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죽하가 저에게 정확하고 절실한 공력(工力)이 없는 것으로 권면한게 옳은데, 감히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래에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읽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재주가 뛰어나고 <글이> 비장해서 그 사람이 뛰어난 기개를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죽하가 그것을 읽으면 또한 감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엄군(嚴君)이 그 말을 전에 듣고 사학(史學)에 깊히 <빠졌는데> 지금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험삼아 나의 편지로 알려드리니 어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기유(己酉, 1729년) 8월 2일 원경하(元景夏) 올림.

사진 12
민정중 편지(閔鼎重 書簡) | 1684년

歲序向寒, 遠惟旬宣起居, 對時增重, 馳慰不已. 憐疾一向沈篤, 欲得新採諸料合藥, 营下秋捧 可蒙分濟否. 所須各種, 別紙錄呈, 煩懶愧仄. 統希令忽照. 不宣. 謹奉狀上.
甲子九月二十七日 鼎重.

날씨가 추워지는데, 멀리서 지방관으로 지내시는 형편이 때에 따라 더욱 좋으신지 그리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저의 병은 여전히 위독하여 새로 <채취한> 여러가지 약재를 구해서 약에 넣으려고 하는데, 영내(營內)의 추봉(秋捧, 가을에 거두어 들인 결稅와 잡세)에서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까?
필요한 여러가지 <약재> 종류는 별지(別紙)에 적어서 바쳐 번거롭게 하니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영감께서 너그럽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갑자(甲子, 1684년) 9월 27일 정중(鼎重)

사진 13
이광건 과지(李廣健 科紙) | 1801년

幼學李廣健年二十五本韓山居 京畿驪州占梁
父通訓大夫行 健元陵令柱溟
祖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秀逸
曾祖通德郎 庚
外祖成均進士李凝慶本全州
禮義 幼學
-(以下答案)-
呼成人之道莫先於學而教人之方宜始於幼也何者曰弱曰
壯皆自幼少之年矣. 其仕其政皆賴學業之功也. 嗒不及十
歲而知覺未啓則不可學之以禮樂矣. 過於十歲而扞格不勝
則亦不可學以灑掃矣. 教以禮樂者必趁其稍開知覺之年教
以灑掃者必及其不至扞格之時則初學之方宜在於曰幼之年

矣。始學之法可及於稱幼之歲矣。唯諾方數非無孩提之學而猶不若幼年之學也。舞勺舞象亦有成童之學而亦本於幼歲之學也。禮樂之學在是歲而學焉。灑掃之學在是年而學矣。嗚呼八歲而入小學者將以進乎十歲之學也。九歲而就外傳者將以始乎十歲之學也。余於戴經所云幼學之義得之矣。執此以究經旨可卜請申之。蓋幼者十歲之稱也。人生十歲始有學焉則謂之幼學者不其然乎。是以人之初生罔不有教亦罔不有學而必貴乎自幼之初何也。學有大小而小學先於大學之始年有幼壯而壯行固爲幼學之效。故學優以強以仕其非本於學乎。學古而服官亦非由於學乎。然而謂之五歲六歲而幼而不學則不幾近於面墻之戒乎。稱之九歲十歲而壯以始學則亦幾希於扞蔽之患矣。是故自知其初而學之以至於能言之後入之以學使之講之習之於幼禪之時者欲其入於骨髓而與學成性洽於肌膚而與學成心則自無不勝之患而可至成人之道矣。大抵弱冠之年無非可學之時而不如教數之初有室之年亦可謂無非可學之日而不如就師之初則血氣未壯而涵養於時習志慮不分而磨礊於講解年至強仕而業有廣矣。時屆耆艾而效有益矣。與其教於既壯曷若學於幼少乎。幼而學之之義至此而尤章矣。嗚呼初學譬之於鳥數之時則自幼之謂也。習學比之於蛾述之工則亦始幼之稱也。勿以幼稚而不學焉可以人而不如鳥乎。無以幼少而莫學焉可以人而不如蛾乎。是知人不可不學而必貴自幼之初也。故聖人定其就學之年尤知其旨之淡而不覺興起也吁謹義。

유학 이광건의 나이는 25세로 본은 한산이고 경기 여주목 점량에 거주한다.

부친은 통훈대부 품계에 건원릉령 직을 가진 이주명이고,

조부는 통정대부 품계에 승정원동부승지겸 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을 지낸 이수일이며,

증조는 통덕랑 이성이고,

외조부는 성균진사 이옹경으로 본은 전주다.

시험과목은 예와 의에 대한 것으로 주제는 유학(幼學)이다.

(- 이하 답안 -)

오호 성인의 도를 이해하는데 배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남을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약한 자이거나 아니거나 모두 어린 나이여야 한다. 벼슬에 나아가고 정치를 하는 것은 모두 학업의 공에 힘입어야 한다. 열 살이 못되어 지각이 깨이지 않으면 예약을 배울 수 없다. 열 살이 넘었는데도 막고 받아들임이 없으면 이 역시 쇄소 일을 할 수 없다. 예약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반드시 처음 지각이 열렸을 때 해야 한다. 쇄소를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막힘에 이르기 전에 해야 한다. 즉 초학의 방법은 유년에 있어야 한다. 배움을 시작하는 방법은 유치한 나이까지 올라가서 평소 대답하는 곳에도 배움이 있으니 아이에게는 배움이 아닌 게 없으며 유년의 배움만 한 것이 없다. 춤추고 노는 것은 자란 아이들의 공부이기도 한데 어린 나이에 그 근본이 있다. 예약의 학문은 지나온 세월을 보고 가르치며 쇄소의 학문은 나이를 보고 가르친다.

오호, 8세에 소학에 들어간 자는 10세의 학문에 나아가고 9세에 외부 선생에게 나아간 자는 장차 10세의 학문을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대경소라는 곳에서 어려서 배움의 뜻을 깨달았는데, 이를 더 연구하니 더 알 수 있게 되었다. 대개 유자(幼者)는 10세를 말한다. 10세가 되어 배우기를 시작하므로 유학(幼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사람의 처음 생활은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고 또한 배움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이때를 귀히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배움에는 대소가 있어 소학이 대학에 앞서고 어린이가 장성하게 되는 것도 유학의 효과다. 고로 배움이 우수하면 강해지고 벼슬을 하는 것은 배움의 본질이 아니며 그것을 익히는 것 또한 관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5세, 6세가 되어도 배움이 없으면 벼만 바라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9세, 10세가 되어 배움을 시작하는 것 또한 생각이 막히는 근심을 바랄 뿐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배워 말하게 되면서부터는 배움에 들어가 강하고 익힌다면 그 배움이 골수에 박혀 성품을 이루고 피부에 스며 마음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근심할 일이 없으며 성인의 도에 이를 수 있다. 대저 약관의 나이가 배울 수 있는 때이나 어릴 때만 같지 못하다. 집에만 있어도 배울 수는 있지만 선생에게 나아감만 못하다. 헬기가 아직 장성치 못하여도 때때로 익히고 뜻과 생각이 분명하지 못해도 자주 읽고 이해하면 나이가 장성해졌을 때 학업이 넓어지고 나이가 늙어도 그 효력은 더욱 크다. 그러므로 이미 장성한 후에 배우느니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어려서 배우는 뜻은 커서 더욱 빛이 난다.

오호, 어려서 배움은 비유컨대 새가 날개 짓 하는 것과 같으니 학문을 익히는 것을 개미의 공에 비교하는 것도 이를 말함이다. 유치한 때 배워야 하는 것은 사람이 새보다 낫기 때문이며 어려서는 배움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은 사람이 개미보다 낫기 때문이다. 사람이 배우지 않을 수 없음을 안다면 반드시 어려서 시작함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고로 성인이 배움에 나아가는 나이를 정한 깊은 뜻을 더욱 알 듯하다.

사진 14
구호 과자(具澑 科紙) | 조선



左手持干戈右手持俎豆須臾取一印 詩 三黃
醴泉竹實祥鳳離 折衝俎豆歸禮讓 桑弧蓬矢四方志
氣像可驗飛千仞 攢身甲冑多忠信 異日雲衢初發軔
凡兒知覺蓋難取 高瓊穎悟但操觚 天生彬也異乎衆
俎豆干戈兼以印 李廣爲戲徒臨陣 步驟何如長且進
繢紛前席百玩具 奇珍箱貯懶紋綺 如令俗兒處其間
浴蘭佳兒初度趁 寶貨筐登浮玉牕 所好無過如是僅
雕戈飾鑊自家物 軒皇用焉武威張 飄然一舉左右手
何等奇男曹氏胤 宣聖陳之禮容認 若若金章祥影襯
能文能武綵衣身 難於其一矧兼三 操籜舉止緩而舒
爲將爲相髮毛鬢 畢竟英姿國之蓋 執戈儀容才且俊
分明釋氏抱以送 三花寶樹降瑞麟 吾知國華是偉器
留待明廷牙笏搔 千里長程勝快駿 兵事江南無血刃

‘왼손으로는 창과 방패를, 오른손에는 조두 제기를 쥐었다가 잠시 후에 인장 하나를 취함.’ 시. (번호 :)
삼황

예천죽실 상봉추 절충준조 귀예양 상호봉시 사방지
기상가협 비천인 환신갑주 다충신 이일운구 초발인
범아지각 개난취 고애영오 단조고 천생빈야 이호중
조두간과 겸이인 이광위희 도입진 보취하여 장차진
빈분전석 백완구 기진상저 힐문기 여령속아 처기간
욕란가아 초도진 보화광동 부옥신 소호무과 여시근
조과희번 자가물 헌황용언 무위장 번연일거 좌우수
하등기남 조씨운 선성진지 예용인 약약금장 상영친
능문능무 채의신 난어기일 신겸삼 조변거지 완이서
위장위상 담모빈 필경영자 국지신 집과의용 재차준
분명석씨 포이송 삼화보수 강서린 오지국화 시위기
유대명정 아흘진 천리장정 승쾌준 병사강남 무혈인

사진 15
김만재 과자(金萬載 科紙) | 조선



幼學金萬載年六十六本慶州居驪州
父學生盧騫
祖嘉善大夫行承政院同副承旨兼 經筵參贊官 龍柱
曾祖崇政大夫行工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春秋館事同知經筵事五衛都摠府都摠管 漢耆
外祖通德郎 申灌 本平山

戊子三月

大殿大王大妃殿王大妃殿中宮殿加上尊號稱慶〃科別試初試

五月十三日初場賦表十五日策文○一所試官趙虔夏李命宰姜文龍李耕植李萬敦金思轍金秉億問云云

對於戲 在昔宋朝權德輿以儒人曉武帝甚嘉之 愚嘗讀史至此而歎曰 如此輩人真可謂全才 而宋帝之言未免失之矣。夫文與武皆是學者之事 故深衣而從事於軍旅射御而並列於禮樂 則文武之本非二 致推此可知 而後世之人 把作各項物事 所業不同 所趨亦殊。文謂之儒者 武謂之將師 遂至於各就一偏 而不得其全矣。今執事先生 乃於試土之場 以文武全才發問。愚於此敢不以平日所蘊於中者仰陳之乎。遂為說曰 文者禮樂法度是也 武者躡韋韜韜是也 禮樂法度治世之具也。躡韋韜韜亂世之用也 然八域之內 雖百年昇平 而陰雨之備不可弛矣 四郊之外 雖千里旗鼓 而絃誦之聲不可廢矣。是以農隙而有蒐兵之制 投戈而有講藝之事。此所謂文武並用長久之術也。徒習俎豆之禮 則其何以折衝於猝然急警 但熟弓馬之技則 將何以獻可於論道經邦也。頗牧之為將隨陸之為儒 必須兼之而後可以隨時取用於治亂之間 而如此輩人真可謂文武全才也。嗚呼 前聖已有才難之歎 則況於叔世以後所謂全才 豈非尤難乎。然好學曰文止戈為武 則文武固非兩道也。苟欲收取全才 則其必儒者而並讀兵書乎 文能附眾武能制勝 盖天下之人售用於世者 莫不曰文曰武而已。菁菁沚我 皆是王國之屏翰 而文風藪蕪赳赳置免莫非公家之干城 而武略曉暢馳騁 數千載之間 治亂不一 而文武並備。論其才則固有彼此之殊 適其用則亦無異同之議 以寬濟猛以猛濟寬 殊途同歸異轍同車 較短量長 各當其才 上有陶鑄之化而下有興感之心 當笙牘賁治之日文臣在朝矣 在干戈觀師之世而武夫率職矣 曰異其人而一其道 殊其方而同其用 往古來今之字上下四方之宙 文武之道或張或廢 而治亂之迹一彼一此文先而武後者有之矣 武瀆而文恬者有之也。是皆豹管蠡海之窺其一偏也。必也以文德為國關鍵以助之 當其用武之世而姑息就安 則亦是偃武之空而文德從以不振矣 可不懼哉。請憑前修之崖岸 傷加鯤生之評 驚帝軒之世 書契未悉 唐虞之朝 典籍略存則尚矣之評 固然相當伊訓之篇非出於用武之一端 而文在其中 冊書之述非止於修文而武在這間 六月之詩崧高之誦 俱是前代之盛際而可謂文武之全才乎。靈公之間不學軍旅則可見格其君心之非也。夾谷之會必資武備則豈非審時勢之權歟。是知夫子洞觀事業而并資文武乎。蒐乘謀師人推孰時 則此非全國高義乎。用兵制勝世傳癖史則豈不晉代之良師歟。就其中而論其實則不無純駁之論 而亦有得失 殊未能將兵不棄子房從容之氣像重厚少文 亦有絳侯安劉之大勳 勿論偏短之有異而想見售用之如何 雅歌投壺乃征虜之旁學文事也 關內失師 可見鄭侯之難責武備矣。羽林章句永平之偃武修文也 投壺專武班超之志在功名也。不學無術菜公之譏而賦詩退虜高瓊之言 則鎖鑰北門樞機兩府 豈曰得全才而不無所短之理歟。武侯之出師不得已而然也 妻公之滅淮論其時則可矣。宋之韓魏皇明之王公 俱是主於文而知其武者也。雖其高下之相殊表裏之可言 而夕陽在山筆舌支離 戈未揮於魯陽 繩難繫於謫仙 敢請姑捨是如何。惟我日出之邦僻在海隅 神人降檀 太師東渡 至羅濟而及高麗 其間文武之稱為全才者昭揭方冊而播在人口不必歷歷陳之鳴布鼓於雷門也 出以致太平夫何近者 武嬉文恬 為文者止於章句之浮靡 文非其文矣 為武者不識御侮之大關 武非其武矣。必也培養羣才移風易俗 使文士有六經之謨而修齊治平 傅武臣有孫吳之略虎豹能獵 然後陟罰臧否舉在朝廷之上 則事功可以就外侮不能作矣。愚生長於蓬蒿之下 有向葵之沈而顧無往邦之猷 自愧無狀而跋蹠有千里之運 銘刀有一割之用 敢陳一說於明間之下伏願執事入告於我后 編之將終復竭餘蘊 人才之興廢在於人君之心 而上以文武之用捨在於時勢之固然矣 下以文武之修輯係於當世之緊急矣 明主躬率於上而下焉 人臣用命於下而上焉 則文武非別件之道也 德以為文威以為武 當懷而懷之當討而討之 則繩愆糾違交作於前 而勵兵講武並濟 其間如此則何治不從何戰不勝 吁謹對

유학 김만재, 66세 본관 경주 여주에 거주.

부 학생 노건

조 가선대부행승정원동부승지겸 경연참찬관 용주

중조 승정대부행공조판서겸판의금부사지춘추관사동지경연사오위도총부도총관 한기

외조통덕랑 신관 본 평산

무자년 3월

대전대왕대비전왕대비전중궁전의 가상존호로 칭경하기 위해 치른 별시 초시다.

5월 13일 초장에 부와 표, 15일에 책문을 보았다. ○ 일소의 시관은 조건하, 이명재, 강문용, 이경직, 이만교, 김사철, 김병억이다.

(집사의) 물음에 대해

어희, 옛날 송나라 권덕여는 선비로서 효무제의 아김을 받았다. 내가 일찍이 그 역사를 읽다가 탄식하며 말했다. 이러한 사람을 전재(全才)라 할 수 있다면 송제의 말은 실수를 못면할 것이다. 무릇 문과 무는 모두 학자의 일이다. 고로 심의를 입고 군사일에 종사할 수 있고 활을 쏘면서도 예약을 할 수 있다. 즉 문과 무는 본디 두 가지가 아닌 것은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다. 후세 사람들은 각기 잘하는 일어서로 다르고 하려는 바도 다르다. 문이란 유학자를 말하며 무란 장사를 말한다. 각기 그 한 편만 이르면 그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집사선생이 시험보는 선비들에게 문무전재(文武全才)를 물었다. 내 감히 평일에 품은 바를 다 펼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말하기를 문이란 예약과 법도를 말하고 무란 용목을 입고 칼을 차는 것이

다. 예약과 법도는 치세에 필요한 것이고 융복과 칼은 난세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팔역 내에 비록 백년이 평안해도 어지러울 때를 준비함에 해이함이 없어야 하고 사교 외에 천리까지 군사들에 둘러싸여도 음악소리는 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농사짓는 틈을 타서 병사를 모으고 창을 놓을 때 예술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문무를 겸용하여 오래 평화를 지속하는 방법인 것이다. 단지 제사지내는 일만 익한다면 급한 때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는가. 또 단지 무술만 익한다면 장차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할 수 있겠는가. 마소를 쳐서 장수가 되거나 수하(隨何)와 육가(陸賈)에서 유가가 되어도 반드시 둘을 겸한 후에 치난의 사이에 수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어야 진실로 문무전재라고 할 수 있다.

오후라. 이전에 재주 있는 사람을 못 구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하물며 이후에 전재를 구함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호학을 문이라 하고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을 무라고 하였으니 문무는 본디 두 길이 아닌 것이다. 진정 전재를 취하려면 반드시 유자이면서 병서를 읽는 자라야 할 것이다. 문으로 무리를 모으고 무로 승리를 도모하면 천하의 사람들이 문인지 무인지 구별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다. 지아(沚義)의 시절처럼 되는 것은 국왕이 문풍을 일으키고 또 무의 지략을 보여 오랫동안 문무를 같이 준비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재능을 논하는 것은 본디 남과는 다른 특수함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적절한 곳에 기용한다면 별 차이는 없는 것이다. 관대함으로 용맹함을 구하고 용맹함으로 관대함을 구하면 길이 달라도 같은 데 이른다. 장단점을 비교하여 각기 그 재능에 맞게 하여 위로는 도주의 감화가 있고 아래로는 흥감한 마음이 생긴다. 음악으로 다스리는 시절에는 문신을 부르고 무예를 필요로 하는 세상에는 무신을 부른다. 그래서 사람은 달라도 도는 하나이고 방법이 달라도 쓰임은 같다고 하는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방의 어디에도 문무의 도는 펼쳐질 때도 있고 폐지될 때도 있다. 치세와 난세는 한 번 오면 또 가고 문과 무도 먼저오고 또 나중에 온다. 무가 행세하여 문이 잠잠할 때에는 반드시 문덕으로 도와야 한다. 무를 써야 하는데 쉬고 편안함을 취하려 한다면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전에 수리한 애안에 청빙하여 작고 변변치 못한 사람을 더하여 쓴다는 평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제헌의 세상에 서계가 다하지 못하여도 당우시대의 전적으로 전략을 세운다면 좋은 평을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훈의 편에 상당하여도 무를 쓰는 단서가 없다면 문이 그 중에 있어 책서의 술이 수문에 그치니 않고 무가 저간에 잊어 유월의 시가 있고 숭고의 노래가 있다면 모두 전대의 성함이 되고 가히 문무의 전재라 일컫는 것이다. 영공의 물음에 군려를 배우지 않았다면 군심을 읽었다고 할 수 없다. 협곡의 회동에서 무를 갖춘다면 시세를 살피는 권세가 되지 않겠느냐. 부자가 사업을 통관하고 아울러 문무를 갖춘 이유를 알겠다. 꾀를 모아 때를 헤아리면 높은 뜻을 이루리라. 병사를 써서 세상을 이긴다면 전대의 홀륭한 군사가 아니겠느냐. 그 가운데로 나이가 실세를 논하면 순박의 논이 될 것이다. 병사가 능치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종용하는 기상이 있다면 유방을 안정시키는 큰 공훈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편단이 있고 수용되는 여부가 있지만 아가와 투호로 정로의 방학문사가 된다. 궐내에 군사를 잃어도 찬후를 무비로 책할 수 없다. 우림장구는 영평의 언무수문이다. 투호에 전념하고 무반의 초지가 있으면 공명이 있다. 불학에 무술로 태공을 속이고 부시와 퇴노로 고경한 말을 하여 북문과 추기 양부를 닫으면 전재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 제갈량의 출사는 부득이한 것이었고 배공이 멸회한 것은 그 때를 논할 수 있다. 송의 한위와 황명의 왕고은 모두 문과 무를 아는 자들이다. 비록 지위의 고하가 있고 말에 포리가 있지만 필설이 지루하고 전쟁 때 지휘를 못하면 지위를 고사할 것을 감히 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바다 구성에 있지만 신인이 박달나무에 내려오고 태사가 동으로 건너왔다. 신라와 백제 및 고려에 이르러 문무에 전재한 자라고 칭할 자가 책에 있고 인구에 전파되어 있어 일일이 알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이 장구에만 머문다면 문이 문답지 않고 관문을 어모하지 못하면 무가 무답지 않다. 반드시 재능 있는 무리들을 배양하여 풍속을 바꾸어야 한다. 문사에게는 육경의 지혜가 있어 치평할 수 있고 무신에게는 손오의 전략이 있는 연후에야 잘못을 고치는 일이 조정에 있게 되고 밖에서 업신여기는 일이 없다. 내가 시골에 태어나 성장하여 향규의 침이 있어도 나라에 나아갈 길이 없었다. 자괴하여 무상하다가 친리로 나아갈 운이 있어 감히 물음에 한 마디 올리니 엎드려 원하건대 집사께서는 우리 임금께 고하여 인재의 홍폐가 인군의 마음에 있음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위로는 문무의 사용 여부가 시세를 좌우하고 아래로는 문무의 수집이 당세의 긴급함과 관계 있으니 명주께서 친히 위에서 이끌어 아래로 신하들이 명을 받들도록 하면 문무는 별다른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덕으로 문을 이루고 위엄으로 무를 이루며 품을 것은 품고 칠 것은 처내며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병사를 독려하고 강무를 병행하면 다스림에 따름이 있고 전쟁에는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삼가 답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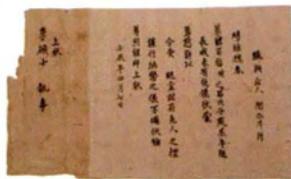


사진 17
혼서지(婚書紙) | 1952년

驪興后人 閔丙斗拜
時惟槐春
尊體百福僕之第次子鳳基年既
長成未有伉儷伏蒙
尊慈許以
令愛 覓室茲有先人之禮
謹行納幣之儀不備伏惟
尊照謹拜上狀
壬辰年四月七日
<괴봉>
上狀
李碩士 執事

여홍 후인 민병두 절 올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늦은 봄입니다.
존재 백복하십니까. 저의 차자 봉기가 이미
장성하였는데 배우자가 없더니 높이 사랑하심을 입어
귀한 따님으로 아내를 삼게 해주시니 이에 선인의 예를 따라
삼가 납폐의 절차를 행하고자 하오니 부족하더라도
살펴주십사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임진년 사월 칠일
<괴봉>
상장
이석사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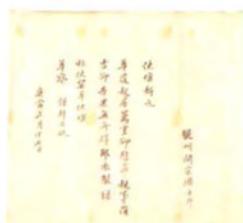


사진 18
연길답서(涓吉答書) | 1830년

伏惟新元. 尊履起居萬重. 仰慰區區. 親事涓吉
仰告. 果無所礙耶. 衣製錄示 伏望耳. 伏惟尊察. 謹拜上候.
庚寅正月十七日 驪州 閔宗燁 再拜

새해 정월에 지내시는 형편이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인 날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애가 없습니까? 의제(衣製, 옷의 치수)를 적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정인(庚寅, 1830년) 1월 17일 여주(驪州) 민종혁(閔宗燁) 올립



사진 19
명문(전답매매문서) 明文(田畠賣買文書) | 1862년

同治元年 壬戌 元月二十日 閔永喜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呂州吉川面內安洞所付伏在上邊典字第53田二負三東廳願買人處價折錢
文伍兩依數交易奉上是遺本文記段他田畠并付故不得許給是遺背頤成文以給爲去乎日後子孫族屬中
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卞正者

田主 李千孫(手決)
證人 裴云京(手決)
筆執 崔大亨(手決)

동치 원년 임술 1월 20일 민영희 전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긴히 쓸 데가 있어 여주 길천면 내안동에 있는 상변 전자 제 53전 2부 3속 곳
을 사기 원하는 자에게 5냥 값을 받고 본문기는 다른 논밭이 같이 붙어있어 줄 수 없고 대신 뒷장에 글
을 만들어 주니 이후에 자손 족속 중 잡답하는 자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옳고 그름을
가릴 일이다.

전주 이천손(수결)
증인 배운경(수결)
필집 최대형(수결)

사진 20
환퇴명문(還退明文) | 1863년



同治二年 癸亥 三月二十日 閔完植 前明文
右明文事段以還退之記驪州吉川面內安坪伏在下邊阜字第四分田三負六束塵右人前還退錢拾伍兩奉上是遺官立旨一丈與本文記永還退爲去乎日後子孫族屬中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卞正者前主 李千孫(手決)
證人 趙明云(手決)
筆執 崔大亨(手決)

동치 2년 계해 3월 20일 민완식 전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환퇴의 기록으로 여주 길천면 내안평에 있는 하변의 부 자 1/4밭 3부 6속 곳을 우인(민완식)에게 환퇴전 15냥을 받고 관에서 발행한 입지 2장과 본문기를 영원히 환퇴하니 일후에 자손 족속 중 잡담하는 자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옳고 그름을 가릴 일이다.

전 주인 이천손(수결)

증인 조명운(수결)

필집 최대형(수결)

사진 21
명문(매매문서) 明文(賣買文書) | 1883년



光緒九年 癸未 四月二十五日 鄭果川宅奴夏伊前明文
右明文事段以移賣次驪州金沙面虎谷里伏在於字二十七田二負四東二十八田五東二十九田四東三十田一負三十一田一負五東三十二田一負五東同字第十八番四負二束正租五斗落同字三十七內二田四負四東北貴丁田南金奉番二方路東西川二方梁塵果草家七間桑果木楮柒並以価折錢文四百五十兩依數奉上是遺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則持此文記告官卞正者

財主 尹生員宅奴夏金伊(手決)

證人 慶生員宅奴萬石伊(手決)

筆執 尹生員宅奴有曾伊(手決)

光緒九年 癸未 四月二十五日 鄭果川宅奴夏伊前明文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논밭 등을 팔기 위해 여주 금사면 호곡리에 있는 어자 27전 2부 4속, 28전 5속, 29전 4속, 30전 1부, 31전 1부 5속, 32전 1부 5속, 동자 제18답 4부 2속, 정조 5두락, 동자 37(전) 내 2전 4부 4속, 북 귀정전, 남 김봉답 이방로, 동서 천 이방다리 곳과 초가 7칸, 뽕나무와 닥나무 칠나무 아우리 450냥에 영영 방매하니 일후에 잡담하는 자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옳고 그름을 가릴 일이다.

재주 윤생원택노 돌금이(수결)

증인 경생원택노 만석이(수결)

필집 윤생원택노 유중이(수결)

사진 22
명문(전답매매문서) 明文(田畠賣買文書) | 1891년



大清光緒十七年 辛卯 八月 二十二日 閔興德宅奴奉烈前明文

右明文事段無他以要用所致金沙面上虎谷伏在治字四十九番伍卜六斗落塵果一同字八十九番八負九束四斗落塵乙価折錢文一千七百兩捧上是遺文記二張牌旨一張新文記一張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族屬中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卞正者

畠主 李都正宅奴順哲(手寸)

證筆 閔生員宅奴春烈(手寸)

광서 17년 신묘 8월 22일 민홍덕노 봉렬 전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긴히 쓸 데가 있어 금사면 상호곡에 있는 치자 제 49답 5부 6두락과 동자 89답 8부 9속 4두락 곳을 1,700냥 값을 받고 문기 2장과 배지 1장, 그리고 신문기 1장을 영영 파노니 일후에 자손 중 잡담하는 자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옳고 그름을 가릴 일이다.

답주 이도정택노순철(수촌)

종필 민생원택노춘열(수촌)

사진 23

명문(전답매매문서) 明文(田畠賣買文書) | 1908년



隆熙二年 무신三月十七日 閔興德宅奴長卜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驪州金沙面上虎谷伏在本字田半日耕六十九田一卜七束果五十田一卜三束果八十九田六束果九十一田三束果九十二田六束果九十三田四束果九十七田一卜四束合六卜三束鷹果粟木四株葉木二株乙価折錢文三百兩依數交易捧上是遺本文記一張并付爲去乎永永放賣而日後若有雜談是去等待此文告官下正事

田主 卞童範天(手寸)

筆執 韓生員宅奴若大(手決)

證人 金昌錫

융희 2년 무신 3월 17일 민홍덕태 노 장복 전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긴히 쓸 데가 있어 여주 금사면 상호곡에 있는 본자 전 반일경 69전 1부 7속과 50전 1부 3속과 89전 6속과 91일전 3속과 92전 6속과 93전 4속과 97칠전 1부 4속 등 모두 6부 3속 곳과 율목 4주 엽목 2주를 300량에 받고 본문기 1장을 아우러 영영 방매하니 일후에 잡담하는 자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옳고 그름을 가릴 일이다.

전주 변법천(수촌)

필집 한생원택노약대(수결)

증인 김창석

사진 24

호적단자(戶籍單子) | 1774년



占梁面坪村洞戶籍單子

第二統第二戶通德郎申景容年五十三壬寅生

父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 智

祖通訓大夫行長城都護府使羅州鎮管兵馬節制使 瑞華

曾祖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 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行崇祿大夫禮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同知成均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 贈謚文肅公 最

外祖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 領經筵監春秋館事 贈謚文純公權尙夏本安東

妻恭人李氏齡五十五庚子生籍完山

父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榮新

祖贈嘉義大夫司憲府大司憲行嘉義大夫全羅左道水軍節度使 斗千

曾祖 贈通政大夫戶曹參議 東相

外祖 學生朴益國 本密陽

率子 沈年三十一甲子生

淳年二十三壬申生

孫孝商十一歲甲申生

奴婢秩

婢懿德一生婢禮今乙未生壬子逃亡 二生奴大中丙午生父良人金占金 婢順分一生婢細玉丙辰生 二生婢奉玉己未生父私奴壽徵 婢五丹丙申生母班婢玉每父良人文九立 五丹一生婢六暹戊午生庚申逃亡 婢五月二生婢大禮戊戌生庚午逃亡 婢永丹二生奴壬才壬子生庚午逃亡 婢丹春一生奴於隣老味 二生奴太龍居在東萊 婢禮辛卯生 一生奴完金辛亥生 二生婢正月丙辰生 三生婢江牙之癸亥生父私奴文成中壬申逃亡 婢六月甲子生 奴久根丁巳生 奴一孫丙寅生 婢就分一生奴夏夢丙寅生 二生奴順太壬申生 婢福禮辛丑生 一生奴介未致改名介金辛未生丙戌逃亡 婢得丹辛未生 婢四月丙子生 奴夏作伊壬午生 奴金同叱伊己丑生 婢雪云禮己卯生 婢貴丹庚辰生 奴得世乙酉生 得才丙戌生 婢差禮庚寅生 等口 戊子戶口相準者

점량면 평촌동 호적단자

제2통 제2호 통덕량 신경용 53세 임인생

부 가선대부행동지중추부사 지(智)

조 통훈대부행장성도호부사나주진관병마절제사 서화(瑞華)

증조 중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행승록대부예조판서 겸판의금부사지경연춘추관사동지성균관사홍문관제학예문관제학오위도총부도총관증시문숙공 정(景)

외조 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좌의정겸 영경연감춘추관사증시문순공 권상하 본 안동

처 공인이씨 55세 경자생 본관 완산
 부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 이영신
 조 증가의대부사현부대사현행가의대부전라좌도수군절도사 이두천
 증조 증통정대부호조참의 이동상
 외조 학생 박익국 본 밀양
 솔자 침 31세 갑자생
 종 23세 임신생
 손 효적 11세 갑신생
 노비질
 비 예금(비엇덕일생, 을미생 임자 도망) 노 대중(이생, 병오생 부 양인김점금)
 비 세옥(비순분일생, 병진생) 비 봉옥(이생, 기미생 부 사노수정)
 비 오단(병신생, 모 반비옥매 부 양인문구립)
 비 육섬(오단일생, 무오생 경신 도망)
 비 대례(비오월이생, 무술생 경오 도망)
 노 임재(비영단이생, 임자생 경오 도망)
 노 어린노미(비단춘일생, 동래에 거함)
 노 태룡(비단춘이생, 동래에 거함)
 비 예신(신묘생) 노 완금(비예신일생, 신해생) 비 정월(이생, 병진생)
 비 강아지(비예신삼생, 계해생 부 사노문성중 임신 도망)
 비 육월(갑자생) 노 구근(정사생) 노 일손(병인생)
 노 돌몽(비취분일생, 병인생) 노 순태(이생, 임신생)
 비 복례(신축생) 노 개미치(일생, 개명개금신미생병술 도망)
 비 득단(신미생) 비 사월(병자생) 노 돌작이(임오생) 노 김동질이(기축생)
 비 설운례(기묘생) 비 귀단(경진생) 노 득세(을유생) 득재(병술생)
 비 차례(경인생) 등 30구로 무자년 호구단자에 준함.

사진 26
발괄(白活) | 조선



州內弘門洞居趙生員宅奴卜金 白活
 右謹陳情由段 當此歉荒之歲 無論大小民人陳田茂土 逐戶成災 實是 廟堂視民如子之大 是仁政 官家
 艱民若痛之盛歟 惠澤是白乎所 歲前成冊時 矣上典 適因出他之久 未言旋未即呈訴是白遣 且值
 官家之上京行次 則無所告向明矣 矣宅州內藏字四負四束麋果 盈字六負六束麋果 近東面服字六負七束麋
 果 乃字一負八束麋果 北面催字六負九束麋果 每字三負二束麋 合二十九負六束 宜當入灾 乃是樵童
 牧叟之日過所共目擊者也 結稅把掌內 矣宅三處稅二十九負六束 獨爲脫然不入 是豈非萬萬冤枉者歟
 總緣由茲敢仰訴伏乞 參商 敦是後 矣宅三處衿記詳查入灾 俾無偏僻呼冤之地 千萬望良爲白只爲 行下
 向教是事
 使道主 處分 丁丑正月 日 所志
 (題辭) 俵給向事 十五

주내 홍문동에 거주하는 조생원택 노 복쇠가 올린 발괄

이렇게 진정서를 올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흉년을 맞아 대소민을 가리지 않고 농사를
 못 짓는 땅이 되어 가호들이 떠나는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임금이 자식처럼 보는 백성에
 게 일어난 큰일을 본 것이며 인정을 끼는 관가에서는 백성을 근심하는 고통이 커진 것입니다. 이에 혜
 택이 있었는데, 연전에 책을 만들 때 우리 상전이 마침 출타가 길어서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호소
 문을 올리지도 못한 차에 관가의 일로 상경을 하여 피해를 고하여 밝히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인의 땅
 중에 주내의 장자 4부 4속과, 영자 6부 6속과 근동면 복자 6부 7속과 내자 1부 8속과 북면 최자 6부 9속
 과 매자 3부 2속을 합한 29부 6속이 재난을 입었음은 어린 초동이나 늙은 목자도 모두 목격한 일입니

다. 결세를 과악할 때 주인댁의 땅 세 곳 29부 6속만 홀로 빠지게 되었으니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감히 우리 농장을 올리니 보신 후에 주인댁의 세곳의 깃기를 자세히 살펴 재난지로 넣어 편벽하고 억울함을 면해주신다면 천만 망량한 일인 줄 알겠습니다.

사도의 처분으로 정축년 정월 일에 소지를 올립니다.

(제사) 이는 넉넉히 나누어 줄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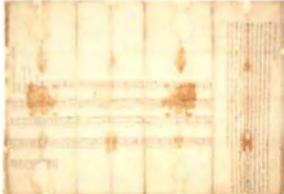


사진 27 등장(等狀) | 조선

三學宮齋有司及諸生等謹再拜上書于
城主閣下伏以國家崇孝之道鄧矣. 人之有孝者靡不棹楔而榮之 贈秩而顯之者不輒爲寢其卓行彰其懿德而已亦將以樹風聲而勵頽俗也. 然草野之間雖或有天至之孝不有州
郡之 上聞朝家其何以審識其實而表旌其美也. 故子朱子在漳州錄翁德廣等孝友之實聞之於朝民等亦以漳州故事深有希望於明府茲敢相率齊籲惟閣下垂察焉. 故學生
沈海龍生有至誠自髫齡時果必歸遺父母每朝夕雖飢甚未嘗先飯稍長父母有疾則調藥物煎粥飲不使婢僕替行雖屢晝夜未曾解衣交睫十三歲時父邁殤生先已徙王父出避于越
川村舍晝夜焦泣思念病親必欲躬往省視潛與一童僕相携渡大川時川水適漲不可渡兒奴遽走還而生獨冒涉漂溺幾危賴有有紳牛索入手夤緣泊石島得活親病危殆嘗冀其甜苦泣禱于天乞以身代割指取血以進其病幾殊而回甦. 此乃至孝之感人莫不異之. 其後生與母夫人同時邁殤生病尤殆而托以無疾自力救護家人或慮生之如前爲也. 屏藏刀刃剖生乃囁前研之指以其血進病又良已嘗以問醫之行夜深由英陵林黑中有虎當經作掣生直前不顧涕泣誠之虎爲閃避一行俱無事其孝□□者然也. □□□待弟妹□有恩愛折產之外輒益已物免其凍餒 其接人處事唯視親意不敢容己私. 其他周窮恤孤等事難徧以枚舉而要之先意承順不以貧乏爲辭處族黨致其睦與隣里盡其仁不以親疎有間故至今鄉里父老傳說不怠京鄉士友亦多聞風而記載如此純篤之行比諸古人無愧而不幸年三十六而夭只有一子又早死子子穉孫蒙孩不省事古家零替無以闡發潛微其時鄉中多士咸奮以爲不可使此孝子泯沒相與論報官家轉至上澈天聽歲壬辰有判下論復之命大聖人樹風勵俗之盛意萬口莊誦之不暇而第未蒙掉擗 贈秩之恩者蓋有所以蓋當初呈文時辭多疎漏只言隔大川日三到家而冒涉漂溺之實略而不詳至於逢虎泣誠之事人無不知也而又不堅見爽實如此致使卓絕之行未蒙加等之典此所以同好之彝心方發之公議不以稍伸於間日而遽止但已也. 伏願 閣下俯循輿論論報營門得使幽潛之光既彰而益彰忠信之蹟將泯而不泯則其於孝理之世奚但爲風化之小補而已哉. 生等無任屏營祈懸之至

壬申十二月十五日鄉校東齋 齋有司
孤院東齋 齋有司
沂院東齋 齋有司

삼학궁 재유사(齋有司) 및 교생 등 삼가 재배하고 성주 합하게 엎드려 상서를 올립니다.

국가에는 효를 숭상하는 도가 있습니다. 효자가 있으면 반드시 작설(棹楔, 본문에는 棹楔)을 세워 이를 영예롭게 합니다. 그를 드러내는 일은 뛰어나고 홀륭한 행적을 포상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바람을 일으켜 잘못된 풍속을 권면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야에 묻혀 있으면 천하의 효행이 있어도 알려지지 않으므로 조정에서 어찌 알고 그 미덕에 대해 정려로 표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자(朱子)가 장주(漳州)에 있을 때 웅덕광(翁德廣) 등의 효우(孝友) 사실을 기록하여 조정에 알리고 백성들도 장주의 고사(故事)를 알아 깊이 선망하는 바가 있었으니, 이에 감히 합하게 살펴주실 것을 바랍니다.

작고한 학생 심해룡(沈海龍)은 태어날 때부터 지극한 정성이 있어 어릴 때부터 과일이 있으면 반드시 부모를 드렸고, 아침저녁으로 심히 배고파도 먼저 밥을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막 장성한 이후로는 부모가 병이 들면 바로 약을 조제하고 죽을 끊었는데 종들에게 맡기는 일이 없었고, 비록 병간호에 여러 날이 걸려도 주야로 옷을 벗거나 눈을 불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13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역질에 걸리자 그를 먼저 큰아버지 집으로 옮겨 월천촌사(越川村舍)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야로 애타게 병든 아버지를 생각하며 올더니 반드시 직접 가서 아버지를 보살피겠다고 결심하고 동복(童僕) 한 명을 데리고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다가 큰 내를 건너게 되었는데, 마침 물이 불어나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좋은 달이나 돌아갔고 그는 홀로 건너려다 물에 빠지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는데 소를 끄는 고삐 줄을 의지하여 돌섬에 대어 살게 되었습니다. 병이 위태로우면 뜻을 맛보아 달고 쓴 것으로 중험하였고 하늘에 올며 아버지의 병을 자신이 대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며 손가락을 베어 그 피로써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의 지극한 효심을 특이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 후 그와 어머니가 함께 역질에 걸리게 되었고 그의 병이 더 심했는데도 병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가족을 보살피니 그가 병이 들었는지 모르는 자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물어 그 피로 치료한 적도 있습니다. 일찍이 병세에 대해 묻기 위해 의원을 찾아가다가 야심하여 영릉(英陵)을 지나가는데 깜깜한 숲에서 범이 나타나 당장 잡아먹히게 되었을 때 그가 범에게 울며 훈계하니 범이 피하므로 일행이 모두 무사하였습니다.

이웃에게도 동생과 자매처럼 아끼는 마음이 있어 재산을 나누어 주고 가끔 더 보태어 어려울 때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접하고 일을 대하는 것이 친의(親意)를 가지고 하며 감히 자기의 사사로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을 당하는 등 어려운 일에 두루 나서서 지휘하였으나 자신의 가난한 형편을 밝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과는 친목을 다하였고 이웃과는 친소(親疎)의 간격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향리 노인들이 부지런히 이 일을 전했고 경향의 선비들도 또한 풍문을 많이 들어 이와 같이 적으니 그의 행실이 옛사람과 비교해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불행하게 36세에 요절하고 외아들도 일찍 죽어 어린 손자만 혈혈단신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중의 많은 선비들이 모두 분연히 이러한 효자를 묻힐 수 없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난 임진년에 관가에 보고하여 풍속을 장려하는 뜻에서 칭송함이 마땅하다는 판하가 있었으나 미처 작설을 내리는 은진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까닭은 처음 올리는 상서에 빠뜨린 사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를 건너다가 위험을 당한 일이나 범을 만나 돌려보낸 일 등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지난번에 빠뜨렸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탁절(卓絕)한 그의 효행이 은전을 입지 못한다면 이는 뜻있는 공의(公議)가 펼쳐지지 못하고 도중이 그치는 일이 될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합하께서 여론을 따라 영문에 보고하여 가려졌던 빛을 밝게 드러낸다면 효리(孝理)를 중하게 여기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보탬으로만 끝나겠습니까. 힘이 없는 우리 유생들은 단지 간절히 기원할 뿐입니다.

임신 12월 15일 향교동재 재유사

고원동재 재유사

기원동재 재유사



사진 28
등장(等狀) | 조선

鄉校多士化民 金樂鴻等謹齋沐再拜上書于

城主閣下伏以夫孝爲百行之源故苟有實行則闡而揚之士林之公議獎而褒之 朝家之盛典也 今有孝友純薦尙未得褒揚孰不欵欵哉 本州故護軍李光俊系

出全州吏曹判書諱承吉之后司憲府執義諱貞福十代孫鄉賢號竹塢先生諱之益六代孫也 世居此鄉以行懿之家爲士林之推崇者尙美暨于斯人天性純孝自

在孩提不離父母之側舞彩遊戲無異老萊之行以養志全歸爲已任甘旨菽水之供殆若乎季路之負米親戚感之村隣賀之以孝童稱焉 年甫九歲其母遭疾漸至孔

劇畫不解帶夜不交睫便若老成之人藥餌之供糜飲之奉不替他人躬自奉進將至殞絕斫指出血注於口小頃脣脣有聲氣息始通以延三日之命其孝感天其誠格神可

想笑哀毀踰節哉 至減性以其父訓寬抑守喪弔者致悅年至十二其父有疾夜則祝天晝則求藥時時嘗糞以驗其症一日之曉似夢非夢間軒軒一老人以杖撫身曰

老疾至此百草無霑若用人肉則庶得差效云 覺而視之人無去處乃自悟曰此乃神人助護病親卽割左股一塊肉煮而得效此非出天之孝耶 遽當大故攀擗

哀號見者渾淚初終送具驗殯葬祭稱力遵禮無憾於前喪朝夕之奠晨昏之哭無憾於侍殯之節朔望省掃不惰公論未遂豈非 聖世欠闕乎 見聞所及不可含口

默 紹呈營邑又籲於閣下仁明之下伏願一一洞燭教是後故護軍李光浚之卓異孝行卽爲報營俾蒙掉楔之典謹冒昧敢陳

丁亥十二月 日 多士化民 金樂鴻 權台壽 黃鳳顯 崔震龍 趙世豐 金泰源

서암 관인(全州都護府使) 李彰九 柳炳植 韓時仁 徐基泰 蘇輝植 林鍾大

鄭粲九

洪在赫 尹明大 李正鎬 梁禹成 李時用 李啓鎬

朴時旭 李炳熙 姜在鳳 朴時鳳 李重五 黃 秤

李謙白

(제사) 卓異之行 人所欽歎 獨營之節

姑待其時果

初九日

전주향교의 김락홍 등 다수의 선비들이 몸을 정결히 하고 삼가 성주에게 엎드려 상서를 올립니다. 무릇 효도는 백행의 근원이므로 실제 행실이 있다면 이를 알리는 것이 사립들이 해야 할 일이고 장려하고 포상하는 것은 정부에서 법을 풍성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효우(孝友)를 추천하려는데 아직 포상을 받지 못하였으나 누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에 사는 고(故) 호군(護軍) 이광준(李光俊)은 전주에서 태어났으며 이조판서 이승길(李承吉)의 후예로서 사헌부 집의를 지낸 이정복(李貞福)의 10대손이며 향현(鄉賢)으로 중오선생(竹塲先生)으로 불리운 이지익(李之益)의 6대손입니다. 대대로 고향에 머물며 행의지가(行懿之家)로서 사립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천성이 순하고 효심이 깊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옆을 떠나지 않고 춤추고 놀은 것이 초나라 노래(老萊)의 행함과 다를 바 없었으며 부모 모심을 자기의 임무로 여겨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계로(季路)가 부미(負米)하듯 하였다. 친척들이 감동하고 이웃에서는 치하하여 효동(孝童)이라고 불렀다.

9살 되던 해에 그 어머니가 질병에 걸려 병세가 심해지자 낮에는 허리띠를 풀지 않고 밤에는 눈을 불이지 않아 마치 성인 같았다. 약을 드리고 죽을 떠드리는 일도 남을 시키지 않고 직접 하였다. 장차 운명을 하려고 하자 손가락을 잘라 나온 피를 입에 넣자 잠시 호흡이 살아나 명을 3일간 연장하였다. 그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그의 성의가 신을 움직인 것이다. 아버지의 훈계를 따라 슬픔을 누르고 상을 치러 조문객들이 기뻐하였다.

12살이 되어 아버지가 병에 걸려 밤에는 하늘에 기도하고 낮에는 약을 구했다. 때때로 뜻을 맛보아 증세를 증험하였다. 하루는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한 노인이 나타나 지팡이로 몸을 어루만지면 말하기를 질병이 오래되어 약은 소용없고 만일 인육을 쓰면 차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노인은 사라졌다. 이에 스스로 깨달아 말하기를 이것은 신인(神人)이 아버지 병을 도와 보호하려는 것이라 하고, 즉시 왼쪽 넓적다리 한 덩이를 베어 삶으니 이것이 하늘이 내고 효심이 아니겠는가.

아버지의 상을 당하자 가슴을 움켜쥐고 치면서 애통해하니 보는 자마다 눈물을 흘렸다. 초종에 빈소에 갖출 것을 빠뜨리지 않고 장례 때는 힘을 다해 예를 따라 서운함이 없도록 하였다. 조석전(朝夕奠)과 신혼곡(晨昏哭) 때도 빈소 모시 때와 같이 성의를 다하였다. 삼망(朔望)으로 살핌에도 게으름이 없었다. 공론이 이를 무시한다면 이 어찌 성세(聖世)에 나랏님께 흠이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상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영읍(營邑)에 올리고 또한 합하(閣下)께 알려 바라건 대 일일이 통촉하시어 고 이광준의 특별한 효행이 감영에 보고되어 작설(綽楔)의 은전을 입을 수 있도록 우매한 이들이 감히 진정합니다.

정해년 12월 일화민 김락홍 권태수 황봉현 최진룡 조세풍 김태원
서압 관인(전주도호부사) 이창구 유병식 한시인 서기태 소휘정 임종대
정찬구

홍재혁 윤명대 이정호 양우성 이시용 이계호
박시욱 이병묵 강재봉 박시봉 이중오 황 칭
이겸백

(제사) 남보다 뛰어난 행위는 사람들의 감탄하는 바이나

혼자 영위한 절개이므로 시간을 기다려 판단할 일이다.

초구일

사진 29 화회문기(和會文記) | 1678년



康熙十七年 戊午十二月十一日 同生中 和會文記
右文爲父母服闋之後 若干田民所當卽爲平分是乎矣 各在異鄉不得會合乙仍于 遷延至今爲有在果 切字畜七斗落只段 母主生時遺言導良 舉論安徐爲遺 其餘田民段 平均分衿爲乎矣 遺漏逃亡奴婢段 推尋後分衿事 -奴婢段 亂後散亡 元數不足 故母主生時下教導良 婢順介禮切所生 各二口除名分衿事-
奉祀條 婢禮切二生奴聰同年 生 奴仁水良并產奴承吉年 生 仁字田六卜六東半日耕 慈字畜九卜七東六斗落只 同字畜三卜三東三斗落只
母主奉祀條 婢業祥二生奴業禮年甲辰生
一宅衿 婢二生奴麒麟年 生 仁字田七卜二東 慈字田一卜六東半日耕 切字畜四卜四東七斗落只
二宅衿 婢承真一生奴京堯年 生 側字田三卜三東 同字田一卜六東半日耕 慈字畜六卜四斗落只 側字

畜十斗落只內北邊三斗落只
三宅衿 婦承真二生奴京宗年 生 切字田六卜六東半日耕 側字畜九卜五斗落只 切字畜二卜九東三斗落只
四宅衿 婦允化一生婢直伊年 生 磨字田六卜六東半日耕 造字畜六卜三東七斗落只
五宅衿 婦德承一生婢禮切年己卯生 慈字田二卜七東 同字田二卜一東 同字田一卜一東半日耕 分字畜六卜二東七斗落只
六宅衿 婦 一生奴哲石年 生 慈字田一卜六東 同字田二卜一東 同字田一卜三東半日耕 分字畜十卜八斗落只
七宅衿 婦順介四生奴 年 生 慈字田三卜六東半日耕 側字畜十斗落只內南邊七斗落只十三卜
八宅衿 婦順介三生奴守先年 生 仁字田七卜九東半日耕 慈字畜十七卜七斗落只
九宅衿 婦禮切四生奴 年 生 慈字田五卜八東半日耕 同字畜八卜五斗落只 同字畜三卜六東二斗落只
十宅衿 婦直伊一生婢順介年辛未生 仁字田五卜五東 慈字田一卜九東半日耕 同字畜十卜五東七斗落只
長子 金榮厚 代子 磻(手決)
一女 幼學 朴瑨(手決)
二女 邊好中 代子 夢胤(手決)
三女 韓汝愈 代子(手決)
四女 兵使 李尚敬 代子 蕃(手決)
五女 幼學 玄興後(手決)
六女 兵使 元相(手決)
二子 幼學 金世厚(手決)
三子 金自厚 代子(手決)
七女 幼學 李廉(手決)

강희 17년 (무오년) 12월 11일 형제간의 화회문기

이 문기는 부모의 상을 치른 후 응당 공평하게 나누어야 할 약간의 전민이 있어서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각자가 다른 곳에 있어서 회합을 갖지 못하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절자 답 7두락은 어머니 생시에 유언이 있어서 두고 나머지 전민을 평균하여 분깃한다. 잃어버리고 도망간 노비는 추심한 후에 분깃한다. 노비는 임란 후에 흘어져 원래 수보다 모자라고 어머니 생시에 지시하신대로 비 순개와 예절의 소생 두 명은 제외하고 분깃한다. -

봉사조 : 비 예절의 둘째 노 엇동(나이 미상), 노 승길(나이 미상), 인자 전 6복 6속 반일경, 자자 답 9복 7속 6두락지, 동자 답 3복 3속 3두락지.

모주 봉사조 : 비 업상의 둘째 노 업례(나이 갑진생)

첫째댁 깃: 비 누구의 둘째 노 기린(나이 미상), 인자 전 7복 2속, 자자 전 1복 6속 반일경, 절자 답 4복 4속 7두락지.

둘째댁 깃: 비 승진의 첫째 노 경요(나이 미상), 측자 전 3복 3속, 동자 전 1복 6속 반일경, 자자 답 6복 4두락지, 측자 답 10두락지 중 북면 3두락지.

셋째댁 깃: 비 승진의 둘째 노 경종(나이 미상), 절자 전 6복 6속 반일경, 측자 답 9복 5두락지, 절자 답 2복 9속 3두락지

넷째댁 깃: 비 윤화의 첫째 비 직이(나이 미상), 마자 전 6복 6속 반일경, 조자 답 6복 3속 7두락지.

다섯째댁 깃: 비 덕승의 첫째 비 예절(나이 기묘생), 자자 전 2복 7속, 같은 전 2복 1속, 같은 전 1복 1속 반일경, 분자 답 6복 2속 7두락지.

여섯째댁 깃: 비 누구의 첫째 노 철석(나이 미상), 자자 전 1복 6속, 동자 전 2복 1속, 동자 전 1복 3속 반일경, 분자 답 10복 8두락지.

일곱째댁 깃: 비 순개의 넷째 노(이름 나이 미상), 자자 전 3복 6속 반일경, 측자 답 10두락지 중 남면 7두락지 13복.

여덟째댁 깃: 비 순개의 셋째 노 수선(나이 미상), 인자 전 7복 9속 반일경, 자자 답 17복 7두락지.

아홉째댁 깃: 비 예절의 넷째 노(이름 나이 미상), 자자 전 5복 8속 반일경, 같은 답 8복 5두락지, 같은 답 3복 6속 2두락지.

열째댁 깃: 비 직이의 첫째 비 순개(나이 신미생), 인자 전 5복 5속, 자자 전 1복 9속 반일경, 동자 답 10복 5속 7두락지.

장자 김영후 대자 려(수결)

일녀 유학 박진(수결)

이녀 변호중 대자 몽윤(수결)

삼녀 한여유 대자(수결)

사녀 병사 이상경 대자 번 (수결)
오녀 유학 현홍후 (수결)
육녀 병사 원 상 (수결)
이자 유학 김세후 (수결)
삼자 김자후 대자 (수결)
칠녀 유학 이 협 (수결)

사진 30
축문식(祝文式) | 1895년



祝文式
乙未八月初三日酉時初終
斬破土
維歲次乙未八月己巳朔初九日
丁丑幼學ooo 敢昭告于
土地之神今爲恭人仁同張氏營建
宅兆 神其保佑俾無後艱
祖奠 告祠
請朝祖
永遷之禮靈辰不留今奉柩車式遵祖道
今遷柩就輦敢告
遺奠
靈輶旣駕往卽幽宅載陳遺禮永訣終天
山神
維歲次乙未八月己巳朔初九日丁丑幼學
ooo 敢昭告于
土地之神今爲恭人仁同張氏窆茲幽宅神
其保佑俾無後艱謹以清酌脯醢祇薦
于 神尚
饗
題主
維歲次乙未八月己巳朔初九日丁丑孤哀
孫炳憲敢昭告于
顯祖妣恭人仁同張氏形歸窀穸神返室
堂魂箱仍存伏惟 尊靈是憑是依
初虞
維歲次乙未八月己巳朔初九日丁丑孤哀孫
炳憲敢昭告于
顯祖妣恭人仁同張氏日月不居奄及
初虞夙興夜處哀慕不寧謹以清
酌庶羞哀薦拾事尚
饗
再虞
維歲次乙未八月己巳朔初十日戊寅孤哀孫
炳憲敢昭告于
顯祖妣恭人仁同張氏日月不居奄及再
虞夙興夜處哀慕不寧謹以清酌
庶羞哀薦事尚
饗
三虞
維歲次乙未八月己巳朔十一日己卯孤哀孫
炳憲敢昭告于
顯祖妣恭人仁同張氏日月不居奄及三
虞夙興夜處哀慕不寧謹以清
酌庶羞哀薦成事尚
饗
卒哭

維歲次乙未八月己巳朔十四日壬午孤哀孫
炳憲敢昭告于
顯祖妣恭人仁同張氏日月不居奄及卒
哭夙興夜處哀慕不寧謹以清酌
庶羞哀薦成事尙
饗
小祥
維歲次乙未九月戊戌朔十四日壬午孤哀孫
炳憲敢昭告于
顯祖妣恭人仁同張氏日月不居奄及卒
哭夙興夜處哀慕不寧謹以清酌
庶羞哀薦成事尙
饗

축문식

초종을 맞은 시각은 을미년 8월 초3일 유시다.
참파토(무덤 흙을 파기 전에 지내는 제사 축문식)
유세차 을미 팔월 기사삭 초구일에
유학 아무개가 김히 토지신에게 빕니다.
지금 공인 인동 장씨의 묘를 만들려 하니 신께서 보우하시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전 제사 (사당에 고하는 말)
조전 제사를 올리려 합니다.
영천의 예절로 지금 관을 받들어 멀리 떠나는 길을 가기 전에
지금 관을 옮기면서 감히 고합니다.

견전 제사

흔령을 이미 상여에 모셨사옵니다. 이제 가시면 영면하실 묘지이옵니다. 영원히 떠나는 예를 올리오니 이로서 영원히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산신제

유세차 을미 8월 기사삭 초9일에 유학
아무개가 감히 토지신에게 고합니다.
지금 공인 인동 장씨를 하관하여 유택에 모시려고 합니다.

산신께서 보호하여 어려움 없게 해주시기 빌며 삼가 술과 포해를 올리니 흠향 하소서
신주를 만들 때 올리는 제주 축

유세차 을미 8월 기사삭 초9일에 고애손
병현이 감히 고합니다.

할머니 공인 인동 장씨께서 육체는 광중으로 들어가고 혼령은 다시 혼백상자로 돌아오심에 이에 삼가 엎드려 존령이 신주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우

유세차 을미 8월 기사삭 초9일에 고애손
병현이 감히 고합니다.

할머니 공인 인동 장씨께서 초우를 맞아 새벽이나 밤이나 슬퍼 사모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삼가 술과 안주를 올리오니 슬픔을 거두고 흠향 하소서

재우

유세차 을미 8월 기사삭 초10일에 고애손
병현이 감히 고합니다.

할머니 공인 인동 장씨께서 재우를 맞아 새벽이나 밤이나 슬퍼 사모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삼가 술과 안주를 올리오니 슬픔을 거두고 흠향 하소서

삼우

유세차 을미 8월 기사삭 11일에 고애손
병현이 감히 고합니다.

할머니 공인 인동 장씨께서 삼우를 맞아 새벽이나 밤이나 슬퍼 사모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삼가 술과 안주를 올리오니 슬픔을 거두고 흠향 하소서

졸곡

유세차 읊미 8월 기사삭 14일에 고애손

병현이 감히 고합니다.

할머니 공인 인동 장씨께서 졸곡을 맞아 새벽이나 밤이나 슬피 사모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삼가 술과
안주를 올리오니 슬픔을 거두고 흠향 하소서

소상

유세차 읊미 9월 무술삭 14일에 고애손

병현이 감히 고합니다.

할머니 공인 인동 장씨께서 소상을 맞아 새벽이나 밤이나 슬피 사모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삼가 술과
안주를 올리오니 슬픔을 거두고 흠향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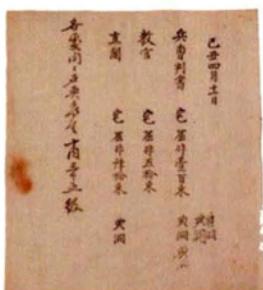


사진 33
물목기(物目記) | 1889년

己丑四月十一日
兵曹判書宅 屈非壹百束 典洞
敎官 宅 屈非五拾束
直閣 宅 屈非肆拾束 典洞
各處向向石魚都合 十同三十五級

1889년 4월 11일
병조판서 댁 굴비 100속 전동
교관 댁 굴비 50속
직각 댁 굴비 40속 전동
각처로 보낸 조기 수량은 총 10동 35급



사진 43
명성황후 편지(明成皇后 簡札) | 19세기후반

1) 글씨 보고 야간(夜間) 무탈(無頓)호 일 든" 호며
에는 상후(上候) 문안(問安) 만안(萬安)호 오시고
동궁(東宮) 제절(諸節) 톡평(泰平)" 호시니 축슈(祝手)" 호며
나는 혼가지나 각통(脚痛)이 혼가지다 영복(泳復)이 검교(檢校)는 그리 혼 게다 빅종(陪從)
상격(賞格)은 아래보게다 안준옥(安駿玉)이는 천전(遷轉) 혼 게다 오늘 일기도 한Networking(寒冷) 혼다

글씨 보고 밤사이에 아무 털 없이 지낸 일 든든하며, 여기는 임금의 문안도 아주 평안하시고, 동궁의
정황도 매우 편안하시니 (앞으로도 편안하기를) 축수하며, 나는 한결같으나 다리의 통증이 한결 같다.
영복이 검교(檢校)는 그리 하겠다. 임금을 모신 것에 대해 상을 내리는 일은 알아보겠다. 안준옥(安駿玉)
이는 자리를 옮기겠다. 오늘 일기도 춥고 차다.



2) 글씨 보고 야간(夜間) 무탈(無頓)호 일 든" 혼나 셔증(暑症) 낫지 아니한일 넘녀(念慮)다
충경이는 어이 또 알는지 넘녀(念慮)다
에서는 상후(上候) 문안(問安) 만안(萬安)호 오시고
동궁(東宮) 제절(諸節) 톡평(泰平)" 혼시니 축슈(祝手)" 혼며
나는 셔증(暑症)으로 괴롭다 오늘 일기는 증울(蒸鬱) 혼다
김오현(金五鉉)이가 장성이라도 가라는가 아래 보아라
다른 둑(두)가 나지 아니 혼야 혼는 말이다

글씨 보고 밤사이에 아무 털 없이 지낸 일 든든하나, 더위 먹은 증세가 낫지 아니한일이 염려된다.
충경이는 어이하여 또 앓는지 염려다. 여기서는 임금의 문안도 아주 평안하시고, 동궁의 정황도 매우
편 안하시니 (앞으로도 편안하기를) 축수하며, 나는 더위 먹은 증세로 괴롭다. 오늘 일기는 무덥다.
김오현이가 장성이라도 가려하는지 알아보아라. 다른 데가(자리가) 나지 아니하여 하는 말이다.

사진 44
가승(家乘) | 조선

始祖	閔稱道 高麗尙衣奉御 生一子世衡 十一傳而入我朝
二代(世)	世衡 監察御史 贈檢校太子少保 生一子懿
三代	懿 戶部員外郎 贈檢校尙書左僕射 墓平山府西水月峰下斗城里壬坐... 生一子令謨
四代	令謨 睿宗乙未生 仁宗戊午等第膺異夢相 明宗癸卯致仕甲寅三月卒享年八十. 配裴氏育二男長曰湜次曰公珪 墓所舊譜失傳忠州社倉古老相傳閔氏 三墳在於村中... 子湜配閔氏禮賓卿志寧女或云墓在豐壤..... 子公珪見下
五代	公珪 初諱嗣忠 明宗丁酉等第 官至金紫光祿大夫守太保門下侍郎... 子康鈞侍郎 子迪鈞侍郎 子仁鈞見下 子良鈞閭門祗侯无后 子光鈞司諫 女崔宗粹左僕射 東州人 女任景肅无后 定安人
六代	仁鈞 初諱洪貴 熙宗乙丑等第 官至正議大夫判大府事三司使充史館修撰... 子湜見下 子備 初名湜 閭門祗侯 女薛公儉
七代	湜 高麗甲辰登乙科第二人官至朝散大夫尙書吏部侍郎 配東州崔氏 父平章事文景公璘 子宗郁字文汝 高宗戊午文科官至三司事郡守 子宗儒見下 子宗淵 女任弘具 大將軍 女吳龍恪侍郎
八代	宗儒 高宗乙巳生....忠宣己酉致仕忠肅己未封福興君辛酉革異姓封號例罷復以 守僉議贊成事致仕甲子五月卒享年八十官至重大匡僉議贊成事判選部事 謚忠順 麗史有傳.... 子頤見下 子叙郎將 女鞠譚署正
九代	頤 字樂全 元宗己巳生忠烈乙酉等第忠肅朝封驪興君乙亥卒享年六十七... 官至匡正(靖)大夫判密直司事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謚文順 麗史有傳 配安東金氏父都僉議忻祖上洛公方慶曾祖兵部尙書孝印 舉一男一女 配原州元氏父贊成事瓘祖文純公傳曾祖僕射瓘外祖慶州金信 舉三男一女 或云墓在驪州... 子思平字坦夫號及菴 忠肅乙卯文科贊成事驪興君文溫公恭愍八年卒.. 女尹繼宗坡平人贊成事父鈴平君璫 子渝見下 子忭大匡驪興君號接閒堂洪武丁巳卒 麗史有傳 配陽川許氏(父)文正公伯... 子渙銀青光祿大夫樞密院副使上護軍 女朴仁龍版圖正郎竹山人父文康公遠 後適許信直提學陽川人
十代	渝 忠惠辛未等第官至大提學驪興君見麗史... 配順興安氏父文淑公牧祖贊成事于器曾祖文成公裕外祖僉議政丞光州金 台鉉或云墓驪州 子德生檢漢城 子壽生吏曹判書配順興安氏順興君輯...

	予慶生 恭安府尹 配清州李氏父典書挺...
	子智生 見下
	子繼生 府尹
	女洪潛 典書南陽人父代言開道
	女任瑞原 參贊
十一代	
智生	典農少尹贈參判他譜有以奉順大夫判典農寺事贈嘉靖大夫戶曹參判錄之 者未知是否墓在通津位谷 配鄭氏墓在松都留守公三室夫人張氏墓後....
	子審言 見下 入我朝
十二代	
審言	入我朝舉賢良官至開城府副留守及 光廟受禪棄官浮後西江歸通津位谷 里朝廷以公爲世名賢特拜刑曹參判徵不起以終享年九十餘...
	配礪山宋氏父牧使璵...墓公州儒城虎洞
	中配水原崔氏墓在高陽幸州而不知處
	后配丹陽張氏享年六十八卒於壬申六月墓在位谷而與公異崗
	子澄源 見下
	子冲源 擢遺逸官至司憲府執義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配寶城吳氏父連山縣監傅 墓虎洞公墳合窓
	子浚源 丹陽郡守配寶城吳氏 墓通津位谷庚坐
	子澹源 司果 墓高陽玄川
	女金耻其光州人經歷父判司邁卿
	女李處恭 郡守
十三代	
澄源	漢城參軍贈戶曹參議
	配善山金氏父檢參判吉德外祖摠制江華黃祿 墓華城萬義睦族洞甲坐雙 墳有表石
	子亨 見下
	子貞 字子韓景泰庚午文科弼善...
	女林成孫 同直
十四代	
亨	宗親府典籤贈吏曹判書
	配慶州李氏父持平兼善外祖判官德水張安之 墓通津位谷壬坐雙墳有表石...
	子孝孫 見下
	女盧熙叔 光州人牧使父同知德基
	女李馨 咸平人父桂林
	子孝誠 監察配全義李氏父宜碩墓位谷 配墓在後
	子孝敦 虞侯
十五代	
孝孫	甲午進士刑曹參議贈左贊成
	配坡平尹氏父生員贈左贊成之崗外祖判中樞咸從魚孝瞻 墓位谷癸坐雙墳有表石...
	子世球 字伯玉以學行 特除司醞署主簿不就 配文化柳氏父府使大承
	墓位谷雙墳癸坐有表石
	子世璫 字子美成化丁酉生癸卯五月十九日卒陽川縣令...
	子世璫 參軍配廣州李氏父別坐世柱外祖長水黃春
	子世璫 宣教郎 贈參議 墓見下
	女淑儀 无后
	子世琬 贈戶曹參議 配清州韓氏..墓位谷合窓有表石
	女李允元

시조

민칭도 고려 상의봉어 생 1자 세형

11대를 지나 조선에 들어옴.

이대(세)

세형 감찰어사 증검교태자소보 생 1자 의

삼대

의 호부원외랑 증검교상서좌복사 묘 평산부 서수월봉하두성리 임좌...

생 1자 영모

사대	
영모	예종 을미생 인종 무오년 등제 응이몽상 명종 계묘년 치사 갑인 삼월 졸 향년 팔십. 배 배씨 육 2남 장남 식 차남 공규 묘소 구보실전 충주 사창 민씨의 3개 분묘가 촌중에 있다고 전해 옴. 자 식 배 민씨 예빈경 지녕의 딸 또는 묘가 풍양에 있다고 함 자 공규 (아래를 보라)
오대	
공규	초희 사충 명종 정유년 등제 관이 금자광록대부수태보문하시랑에 이름. 자 강균 시랑 자 적균 시랑 자 인균 (아래를 보라) 자 양균 합문지후 무후 자 광균 사간 녀 최종재 좌복야 동주인 녀 임경숙 무후 정안인
육대	
인균	초희 흥귀 희종 을축년 등제 관이 정의대부판대부사삼사사총사관수찬에 이름. 자 황 (아래를 보라) 자 비 초명은 호, 합문지후 녀 설공검
칠대	
황	고려 갑진년 등을과 제2인 관이 조산대부상서이부시랑에 이름. 배 동주최씨 부친은 평장사문 경공린 자 종육 자는 문여 고종 무오년 문과 관이 삼사사군수에 이름. 자 종유 (아래를 보라) 자 종연 녀 임홍구 대장군 녀 오룡각 시랑
팔대	
종유	고종 을사생. 충선왕 기유년에 치사, 충숙왕 기미년에 복홍군에 봉해짐. 신유년에 이성혁 명에 의한 봉호의 예에 따라 파해졌다가 다시 수첨의찬성사가 되고 치사 하여 갑자년 5월에 졸. 향년 팔십. 관이 중대광첨의찬성사관선부사에 이름. 시호는 충순으로 고려사에 전해짐. 자 적 (아래를 보라) 자 서 랑장 녀 국담 서정
구대	
적	자 낙전 원종 기사생 충렬왕 을유년에 등제, 충숙왕 때 여홍군으로 봉해지고 을해년에 졸. 향년 육십칠세. 관은 광정대부판밀직사사진현관대제학지춘추관사에 이르고 시호는 문순으로 고려사에 전함. 배 안동김씨, 부친은 도첨의 혼, 조부는 상라공 방경, 증조는 병부상서 효인 1남 1녀를 낳았다. 배 원주원씨, 부친은 부찬성사 관, 조부는 문순공 전, 증조는 복야 진, 외조는 경주 김신 3남 1녀를 낳았다. 묘는 여주에 있다고 함. 자 사평 자는 탄부, 호는 급암, 충숙왕 을묘년에 문과, 찬성사여홍군 문온공, 공민왕 8년에 졸. 녀 윤계종 파평인 찬성사 부친은 영평군 보 자 유 (아래를 보라) 자 변 대광여홍군, 호는 서한당, 홍무 정사년에 졸. 고려사에 전함. 배 양천허씨 부친은 문정공 백.

		자 환 은청광록대부추밀원부사상호군 녀 박인룡 판도정랑 죽산인 부친은 문강공 원 후적으로 허신 직제학 양천인
십대	유	<p>총혜왕 신미년 등제, 관은 대제학에 이름. 여홍군, 고려사에 보임...</p> <p>배 순홍안씨, 부친은 문숙공 목, 조부 찬성사 우기, 증조 문성공 유, 외조는 첨의정승 광주김태현으로 혹자는 묘가 여주에 있다고 함.</p> <p>자 덕생 검한성</p> <p>자 수생 이조판서 배 순홍안씨 순홍군 집...</p> <p>자 경생 공안부윤 배 청주이씨 부 전서정...</p> <p>자 지생 (아래를 보라)</p> <p>자 계생 부윤</p> <p>녀 홍잠 전서 남양인 부친은 대연 개도</p> <p>녀 임서원 참찬</p>
십일대	지생	<p>전농소윤으로 증참판, 다른 족보에는 봉순대부관전농시사 증가정대</p> <p>부호조참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잘 알 수 없음. 묘는 통진 위곡</p> <p>배 정씨 묘는 송도에 있는 유수공삼실부인 장씨 묘의 뒷편에.</p> <p>자 심언 (아래를 보라) 조선에 들어왔음.</p>
십이대	심언	<p>조선에 들어와 현량으로 친거되고 관은 개성부부유수에 이름. 세조</p> <p>찬탈로 벼슬을 버리고 떠돌다가 통진 위곡리로 돌아옴. 조정에서 공을 명현으로 형조참판 에 올렸으나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마침. 향년 구십여 세.</p> <p>배 어산송씨 부친은 목사 전...묘는 공주 유성 호동</p> <p>중배 수원최씨 묘는 고양 행주이나 장소를 모름.</p> <p>후배 단양장씨 향년 68세로 임신년 6월, 묘는 위곡으로 공과 강이 다름.</p> <p>자 정원 (아래를 보라)</p> <p>자 충원 유일로 발탁됨. 관은 사현부집의로 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에 증직됨.</p> <p>배 보성오씨 부친은 연산현감 부, 묘는 호동에 공분합평.</p> <p>자 준원 단양군수 배 보성오씨, 묘는 통진 위곡 경좌</p> <p>자 담원 사과, 묘는 고양 현천</p> <p>녀 김치기 광주인 경력 부친은 판사 매경</p> <p>녀 이처공 군수</p>
십삼대	정원	<p>한성참군증호조참의</p> <p>배 선산김씨 부친은 검참판 길덕, 외조는 총제강화 황록, 묘는 화성</p> <p>만의 목족동 갑좌 쌍분으로 표석이 있음.</p> <p>자 형 (아래를 보라)</p> <p>자 정 자 자한, 경태 경오년 문과 필선...</p> <p>녀 임성순 동지</p>
십사대	형	<p>종친부전첨, 이조판서에 추증</p> <p>배 경주이씨 부친 지평 겸선, 외조 판관 덕수 장안지, 묘는 통진 위곡 임좌 쌍분으로 묘표가 있음.</p> <p>자 효손 (아래를 보라)</p> <p>녀 노희숙 광주인 목사 부친은 동지 덕기</p> <p>녀 이형 함평인 부친은 계림</p> <p>자 효성 감찰 배 전의이씨 부친 의석, 묘는 위곡 배묘는 그 뒤에.</p> <p>자 효돈, 우후를 지냄.</p>
십오대	효손	갑오년 진사, 형조참의, 좌찬성에 추증

배 파평윤씨 부친 생원으로 증좌찬성 지강, 외조는 판중추 함종 어효첨, 묘는 위곡 계좌 쌍분으로 표석 있음.

자 세구 자는 백옥, 학행으로 사온서주부에 특제되었으나 나이가지 않음

배 문화유씨 부친은 부사 대승, 묘는 위곡 쌍분 계좌, 표석 있음.

자 세류 자는 자미, 성화 정유생, 계묘년 5월 19일 졸. 양천현령.

자 세거 참군, 배 광주이씨 부친은 별좌 세주, 외조는 장수 황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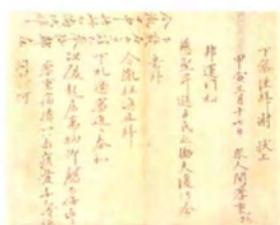
자 세감 선교랑, 중참의로 묘는 아래를 보라

녀 숙의 무후

자 세완 증호조참의로 배 청주한씨. 묘는 위곡 합평 표석 있음.

녀 이윤원

사진 45
민시중 편지(閔蓍重 書簡) | 1674년



邦運□杜, 慈聖昇遐, 臣民之慟, 夫復何喻。
意外令亂枉訪, 且拜下札, 憑審近日春和, 政履
起居萬福, 仰慰不任區區, 著重病憊一樣, 疾
憂無已, 時私閑奈何, 下教石工事, 敢不奉施。
都在令胤口申, 姑此不備, 伏惟下察, 謹拜謝狀上。
甲寅三月十七日服人閔蓍重頓

나라의 운수(運數)가 막히어 대비(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께서 승하(昇遐)하시니 신하와 백성의 슬픔을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뜻밖에 영감의 아들이 찾아온 데다가 주신 편지를 받고 근래 따뜻한 봄날에 정무(政務)를 살피는 형편이 좋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매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여전히 병들어 골골하고 근심이 끝이 없는 때에 사사로운 고민을 어찌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석공(石工)의 일은 감히 받들어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아드님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삼가 답장을 올립니다.

갑인(甲寅, 1674년) 3월 17일 복인(服人, 상중의 사람) 민시중(閔蓍重) 올림.

사진 46
민정중 편지(閔鼎重 書簡) | 1680년



章甫遠臨, 勞問有加, 禮儀之重, 感撫無堪。
從審初署, 奉履勸福, 欣慰亡量, 鼎重 繼歸舊
棲, 復與弟姪團聚, 感戴天慈, 不知攸報. 惠寄各
種, 奉領佩謝. 院籍考還, 望單亦題, 去前書云云事,
理明甚, 而終不見諒, 懈歎無已. 對客少紛, 倩
草不宣. 謹謝狀上。
庚申四月二十六日鼎重

四扇略呈, 分領是望.

장보(章甫, 유생이 쓰는 관)가 멀리서 오니 위문(慰問)이 더해지고, 예의(禮儀)가 정중하니 고마움과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위가 시작하는 이 때에 여러분들이 지내시는 형편이 모두 좋다고 하니 기쁨과 위로가 끝이 없습니다. 저는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동생 및 조카와 만나니 인자하신 임금의 〈은혜에〉 고마와서 보답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보내주신 각종의 〈물건을〉 받으니 매우 고맙습니다. 승정원의 인사기록부를 자세히 조사해서 환원시키고 망단(望單, 3명의 후보자를 적은 추천서)도 짓도록 지난번 편지에 말한게 사리(事理)가 매우 분명하나 끝내 양해를 얻지 못해 부끄러움과

탄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손님을 대하여 약간 번잡해서 사람을 시켜 대충쓰고 이만 줄입니다. 삼가
답장을 올립니다.

경신(庚申, 1680년) 4월 26일 정중(鼎重).

부채 4자루를 약소하나마 보내드리니 나누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48
민유중 편지(閔維重 書簡) | 1680년

纔上復札, 未及轉徹, 惠問又至, 益感勤厚之意.
所示承悉. 倭人禮單之參, 自前預給債本於市民,
臨時取用, 所謂參塵, 是也. 戶禮郎官, 雖同
會看封, 安知市民之用奸至此乎. 今番禮單, 聞已下去,
如欲知其虛實, 則折其數條, 以驗其用奸之狀,
恐宜也, 未知如何. 昨招市民, 詰其所以, 則但欲
自辨, 不服其實, 可痛. 然此後, 則戶禮別爲致察,
庶無如前之弊, 令監如欲啓聞, 以懲後日, 則
亦無不可. 方在前惠書, 謹已拜承, 柳集雖見失, 奈何.
闕下忽擾, 不宣. 伏惟下照, 拜謝上狀.
庚申八月廿五日弟維重頓

겨우 답장을 드려 아직 전해져서 보지 못했을 터인데, 편지가 다시 오니 근실한 뜻에 더욱 고마움을 느
깁니다. 말씀하신 뜻은 잘 알았습니다. 웨인(倭人)에게 예단(禮單)으로 준 삼(參, 인삼)은 전에 시민
(市民, 시진 상인)에게 채본(債本, 빚)을 미리 주어 임시로 가져다가 썼는데, 삼전(參塵, 인삼을 취급하
는 시전)이라고 하는 게 이것입니다. 호조(戶曹)와 예조(禮曹)의 낭관(郎官)이 비록 함께 모여 살펴서
봉(封)하더라도 시민(市民)의 농간이 이런 데에 이른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번의 예단은 이미 내려
갔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허실을 알려고 한다면 그 수효를 대조해서 농간을 한 모습을 확인하는게 합
당할 듯하나 어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시민(市民)을 불러 그 이유를 따졌더니 단지 변명을
하려고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통탄할만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호조와 예조에서 특별히 조사
하면 전과 같은 폐단이 없을 것이고, 영감께서 계문(啓聞,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것)하여 뒷날의
(폐단을) 징계하려고 한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에 주신 편지를 받았는데 유집(柳集,
유종원의 문집, 또는 유씨성을 가진 사람의 문집)을 비록 잊어버렸으나 어찌하겠습니까? 대궐에 바쁘
고 어지러워 이만 줄입니다.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답장을 올립니다.

경신(庚申, 1680) 8월 25일 아우 유중(維重) 올림.

사진 49
민진원 편지(閔鎮遠 書簡) | 1696년

歲事已暮, 懷仰政切, 此際寵訊忽辱, 仍審比來, 兄
撫字起居, 神佑增福, 區區慰懃, 不容名喻. 今年東
峽, 不至甚荒云. 此後庶不以賑事勞神, 堪可賀也.
弟不文而再登科, 無才而受賑任, 滿盈之懼, 債
敗之憂, 實難以言語筆札形言, 日夕凜凜, 莫知所出,
奈何. 寄餉三種峽味, 拜領珍幸. 餘萬只祝對
時珍憇. 不宣. 拜謝狀上.
丁丑陽月廿八日弟鎮遠頓

老兄 拜謝狀上
謹封
洪川 鈴軒下史

한해가 저물어가니 그리움이 간절하던 차에 편지가 갑자기 와서 근래에 지방관으로 지내시는 형의
형편이 신(神)이 도와 더욱 좋으신 것을 알고 고마움과 위로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동쪽
산골은 심한 흥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진휼(賑恤)하는 일로 과롭지 않을 터이어서
축하를 드릴만합니다. 저는 문장(文章)을 못하나 다시 과거에 합격을 했고 재주가 없으나 진휼의 직

임을 받았는데, 차서 넘쳐 망가질까 두렵고 근심스런 마음을 실제로 말과 편지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밤낮으로 두려워서 어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어찌 하겠습니까? 보내주신 3종류의 산골별미는 잘 받았는데,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나머지는 〈할 말이〉 많으나 다만 때에 따라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답장을 올립니다.

정축(丁丑, 1696년) 10월 28일 아우 진원(鎮遠) 올림.

편지봉투

노형(老兄)에게 답장을 올립니다.

근봉

홍천(洪川) 영현(鈴軒)의 하사(下史)에게



사진 50
민진후 편지(閔鎮厚 書簡) | 1717년

聖候諸症一向進退，夙夜憂煎，何可爲極。料外謹承辱問札，憑審窮沴，政履佳福，公私忻慰，不容言喻。旣受芻牧之寄，苟有利於生民，則陳章謁論，實爲得宜。人之譏笑，何足爲嫌乎。至德祠宗事得正，可見天理之不爽，而橫議未息，尙在權奉之中云，慨歎奈何。或以此致疑於令從侄李君，其然豈其然乎。惠餉酒醢拜領，珍感千萬。不宣。只祈迓新增休。伏惟崇照，謹謝上狀。
丁酉臘月七日 鎮厚頓

임금의 여러 중상들이 여전히 더해졌다 덜해지어 새벽부터 밤까지 마음을 졸이며 근심하는 게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뜻밖에 주신 편지를 받고 얼음이 어는 추운 날씨에 정무(政務)를 보시는 형편이 좋다는 것을 아니, 공사(公私)간에 기쁨과 위로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관의 〈직임을〉 받고서 진실로 생민(生民, 백성)에게 이로움이 있다면 장계(章啓)를 올리고 〈임금을〉 뵙고 〈의견을〉 말하는 게 실제로 마땅한데, 남의 비웃음은 어찌 꺼릴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지덕사(至德祠, 양녕대군을 모신 사당)의 종사(宗事)가 바른 데로 귀결되어 하늘의 이치가 어긋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으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여전히 임시로 모시는 가운데에 있다고 하니 개탄스러움을 어찌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것으로 영감의 종질(從侄)인 이군(李君)에게 의심을 초래한다면 그 이유가 어찌 그렇겠습니까? 보내주신 술과 젓갈은 받았는데, 매우 고맙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다만 새해를 맞아 더욱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삼가 답장을 올립니다.

정유(丁酉, 1717년) 12월 7일 진후(鎮厚, 민진후)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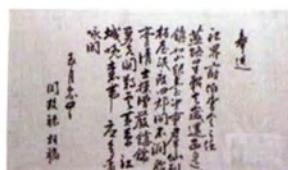


사진 51
민치록 송시편지(閔致祿 送詩書簡) | 19세기

奉送江界府伯李令之任

강계부사(江界府使)로 부임하는 이 영감을 보내며

燕路星帽去歲還

연경(燕京)에 사행(使行)을 갔다가 지난해에 돌아왔는데

西邊此鎮如山

서쪽 변방의 이 진(鎮)은 산과 같네

銀臺望重群仙列

은대(銀臺, 승정원의 별칭)는 명망이 높아 인물들이 늘어섰으나

板屋氓疲四郡間

사군(四郡, 서쪽 변방의 4개 군)에는 판옥(板屋, 지붕이 널빤지로 된 초

不潤胎膏清土操

라한 집)의 백성이 지쳤네

增嚴鎮鑰勇夫關

태고(胎膏, 때와 기름)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선비의 지조

朔雲黃菊江城晚

진(鎮)의 관문을 더욱 엄중히 지키는 용맹한 장부

裏帶應多嘯咏閑

삭운(朔雲, 북쪽 변방의 구름)에 누런 국화가 강(江)과 성(城)에 늦으리니

至月念四日閔致祿拜稿

한가롭게 시를 읊을 게 많으리라

11월 24일 민치록(閔致祿)이 시를 바친다.



사진 52
민응식 편지(閔應植 書簡) | 조선후기

承慰承慰, 而庭候之有損, 遠外想多煎蕪矣。
示意備悉而已。着肚, 何待更戒, 當圖相機另
旋矣。三種之惠, 非不珍感, 而以若旅資, 易以
念及 還甚不安也。姑閣不備謝。
記下 閔應植 謝

〈편지를〉 받고 위로가 되었으나 아버님의 건강에 손상이 있다니 멀리서 속이 타고 울적한 〈마음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뜻은 잘 알았을 뿐입니다. 마음속에 두었는데, 어찌 〈당신의〉 경계를 다시 기다리겠습니까? 때를 보아 특별히 주선하려고 합니다. 3가지의 〈물건을〉 보내주어 매우 고맙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객지와 같은 생활에 어찌 생각이 미칠 수 있습니까? 도리어 매우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만 줄이고 답장을 〈올립니다〉

기하(記下, 당신이 기억하는 맨 아래의 사람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 민응식(閔應植)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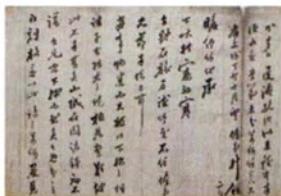


사진 53
민승호 편지(閔升鎬 書簡) | 1867년

瞻仰餘, 伏承下狀, 拱審初寒, 台體在旅萬護, 仰慰不任. 僚弟 省節奉依已耳. 教事恪悉, 而大抵以下隸
之相詰,
至於張大之境, 極爲驚歎, 彼此不幸甚矣, 山城在囚諸漢,
初不諳台兄家下隸而然矣. 今旣知之, 卽刻放還, 以此諒之, 若何. 愚見則多日逗淹旅次, 似未穩當, 幸
須各還貴第, 未知若何. 餘火下, 不備上謝.
丁卯十月望日 僚弟 升鎬二拜

그리워하던 뒤에 주신 편지를 받고 추워지기 시작하는 때에 대감께서 여정(旅程)중에 지내시는 형편이 매우 좋으심을 아니 위로가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모를 모시며 그럭저럭 지낼 뿐입니다. 말씀하신 일은 잘 알았는데, 대개 하예(下隸)가 서로 비난하여 〈일이〉 카지는 지경에 이르러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서로 간에 매우 불행합니다. 산성(山城)에 갇힌 자들은 애초에 대감집의 하인인 줄을 알지 못해서 그런것인데, 지금 〈그것을〉 알고 바로 풀어서 돌려보내니 이것을 헤아려주시는 게 어떠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날동안 객지(客地)에 머무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듯하니 각각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불이 꺼져가기에 이만 줄이고 답장을 올립니다.

정묘(丁卯, 1867년) 10월 15일 요제(僚弟, 동료사이) 승호(升鎬) 올림.



사진 54
민영환 편지(閔泳煥 書簡) | 1889년

卽惟秋冷, 政履益勝, 迴溯且禱. 宗末 滾擾
滋悶已耶. 此去白中軍對面, 則可以諒會也.
依夾錄, 高確以爲歸正, 如何如何. 餘不宣.
己丑九月十七日 宗末 泳煥頓

차가운 가을 날씨에 정무(政務)를 보시는 형편이 더욱 좋으신지 매우 그립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지러움이 계속 되어 근심이 늘어나는 것뿐이겠습니까? 이번에 가는 백중군(白中軍, 중군은 벼슬)을 만나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협록(夾錄, 편지 안에 따로 적은 종이·별지)대로 잘 헤아려서 바른 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기축(己丑, 1889년) 9월 17일 종말(宗末) 영환(泳煥, 민영환) 올림.



사진 55
민영익 편지(閔泳翊 書簡) | 1900년경

- 1) 伏承, 伏慰. 都定未知定日, 而教示當觀機極圖矣.
以此下諒, 若何若何. 卽生閔泳翊再拜.
- 2) 伏承, 伏慰. 下示事, 伏覽耳. 侍生泳翊再拜

海營 簡閣下回納

- 1) 〈편지를〉받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정(都定, 궁방 장토의 소작료를 그해의 작황에 따라 거두어 들이던 일)의 날짜가 언제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것은 때를 보아 잘 도모하겠으니 이것을 해려주시는 게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생(生) 민영익(閔泳翊) 올림
- 2) 〈편지를〉받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일은 받아보았을 뿐입니다.
시생(侍生) 영익(泳翊) 올림

편지봉투

해영(海營, 황해 감영)의 절각(節閣)에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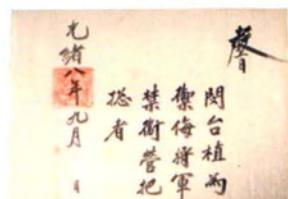


사진 56
민태식 교지(閔台植 敎旨) | 1882년

教旨
閔台植爲
禦侮將軍
禁衛營把
摠者
光緒八年九月日

교지

민태식을 어모장군급위영파총으로 임명함.
광서 8년 9월



사진 57
민영기 진위전문(閔泳琦 陳慰箇文) | 1890년

嘉善大夫黃海道兵馬節度使臣閔泳琦
伏聞光緒拾陸年肆月拾柒日

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禧康顯 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熙
祥大王大妃殿下昇遐臣不勝攀號摧慟之至謹奉

箇稱

慰者臣泳琦誠惶誠恐稽首稽首

上言伏以宋

崇慶之

慈孝有

光方切祝

遐之惄漢

長樂之

隆養未

治遽罹奉

諱之

悲海濱山隙雷號雨泣恭惟

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主上殿下

基承
 堂構
 孝著
 宮闈下民戴
 堯舜之
 仁熙熙如望
 雲就
 日
 人君躬
 曾閔之
 行洞洞乎執玉奉盈方擬
 萬年之奉歡詎料一朝之
 棄養伏念臣
 恩叨闔外跡阻
 禁中仗鐵西門縱違奔問之列擎函
 北闕遙伸寬譬之誠臣無任望
 天仰
 聖哀慟屏營之至謹奉
 箋稱
 慰以
 聞
 光緒拾陸年伍月初肆日嘉善大夫黃海道兵馬節度使臣閔泳綺謹上
 箋

가선대부 황해도병마절도사 신 민영기

엎드려 듣건대 광서 16년 4월 17일에 효유현성선경정인자혜홍덕순화문광원성숙렬명수협천옹목수녕
 희강현정휘안흉륜홍경태운창복희상(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
 寧禧康顯芝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熙祥) 대왕대비(현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神貞王后) 조대비(趙大
 妃) 전하게서 승하하심에 신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가슴을 쥐고 통곡하며 삼가 전문을 바쳐 위로하
 고자 합니다.

신 민영기는 진실로 두려워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

송나라 승경의 자효함이 빛났으나 어버이가 오래 사시도록 축원하는 정성을 이어가지 못했고 한나라
 장락이 부모를 잘 봉양했어도 돌아가시는 슬픔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크게 융성할 운이 있어 인륜이 돈독해지고 의리가 밝게 빛나요, 순우, 당의 대덕을
 주상전하게서 이어받았기에 백성들이 요순의 인자함과 밝음을 받들기를 구름과 해를 보듯 합니다.
 인군이 몸소 이를 가엽게 여겨 옥을 짊고 잔을 들어 만년의 기쁨을 받들려 하나 하루 아침의 기양을 해
 아리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대왕대비의 은혜가 문밖에 남아있어 마음으로 금중의 문을 뚫고 달려가 북궐을 보
 며 신의 뜻을 나타내려 하늘을 우러르니 슬픔에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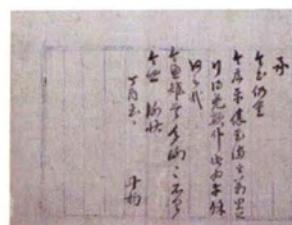
삼가 전문을 올려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서 16년 5월 초4일 가선대부 황해도병마절도사 신 민영기 근상 전(箋)

사진 60
 원두표 편지(元斗杓 書簡) | 1657년

承令書, 仍審令候平勝, 慰滿. 生萬里之行, 得免顛仆,
 此爲幸. 餘何言哉. 令惠難首, 多謝多謝. 不具.
 令照, 謝狀.
 丁酉至日 斗杓

영감의 편지를 받고 영감께서 지내시는 형편이 편안하신 것을 아니 매우 위로가 됩니다. 저는 만리 길
 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하니 이것이 다행스럽습니다. 나머지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영감께서 꿩을 보
 내주시어 매우 고맙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영감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답장을 올립니다.
 정유(丁酉, 1657년) 지일(至日, 동지) 두표(斗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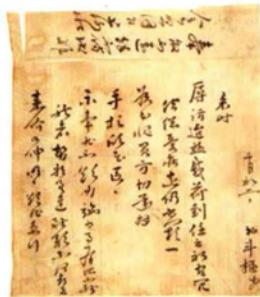


사진 63
원두추 편지(元斗樞 書簡) | 조선중기

來時辱訪, 迨極感荷. 到任之初, 官冗僂僂, 憂病連仍.
尙闕一候書, 愧負方切. 承拜手札, 欣慰區區. 示事非不
欲力施, 而方有所不能然者, 勢將差遲, 雖歎奈何.
都在來价口伸, 明日欲作京行, 奉敍不遠. 餘不備. 伏惟令下照. 謹拜上謝狀.
二月 初二日 弟 斗樞 頓.

왔을 때에 찾아주시니 지금까지 매우 고맙습니다. 임소(任所)에 온 초기에 관아의 쓸데없는 일로 바쁘고 병과 근심이 이어져 아직도 문안편지 1장을 빠뜨려서 지금 매우 부끄럽던 차에 주신 편지를 받으니 기쁘고 위로가 됩니다. 말씀하신 일은 힘껏 시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있어 형편상 조금 늦어질 듯한데, 비록 한탄해도 어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오는 인편의 입에 달려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려고 하니 만나서 말씀을 드릴 〈날이〉 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영감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답장을 올립니다.

2월 2일 아우 두추(斗樞)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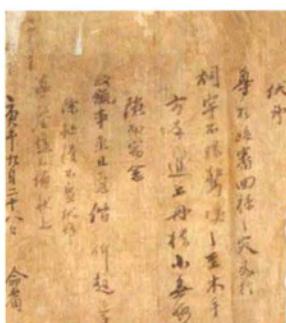


사진 68
홍명구 편지(洪命姑 書簡) | 1630년

伏承尊札, 始審回祿之災及於祠宇, 不勝驚嘆之
至. 木手方造進上冊橫, 少無暇隙, 而竊念改
題事重且急, 倍價起送耳. 餘忙擾, 不備狀上.
庚午九月二十八日命姑

〈주신〉 편지를 받고서야 화재(火災)가 사우(祠宇)에까지 미쳤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과 탄식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목수(木手)가 지금 진상(進上)할 책궤(冊橫)를 만들고 있어 조금도 틈이 없으나 사우(祠宇)의 신주(神主)를 고쳐 쓴 일이 중대하고 시급한 점을 생각해서 사신(使臣)과 함께 보낼 뿐입니다. 나머지는 바쁘고 〈정신이〉 산란해서 이만 줄이고 편지를 올립니다.

경오(庚午, 1630년) 9월 28일 명구(命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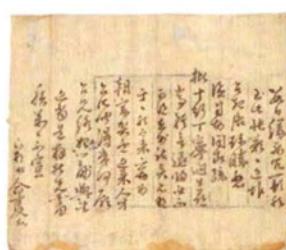


사진 69
홍명하 편지(洪命夏 書簡) | 17세기

數日緣病冗, 闕然到此, 悵歎, 悵歎. 近惟台起
居珍勝, 慈德自切. 聞卽一批十行, 丁寧迥出尋常,
雖欲退歸, 必不可得, 在外諸賢, 亦將于于然而來.
竊爲朝家賀焉. 近來人才, 台所聞得, 幾何. 願台
兄終始如一, 以副輿望. 近當造拜. 姑先書候.
萬萬不宣.
卽朝弟命夏頓

며칠동안 병 때문에 어느덧 이런 〈지경에〉 이르니 한탄스럽습니다. 근래에 대감께서 지내시는 형편이 좋으신지 인자한 덕(德)이 저절로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상소에 대한 10줄의 비답(批答)을 들었는데, 정말로 보통을 훨씬 넘어서서 비록 물러나 돌아가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밖에 있는 현자(賢者)들도 이어서 올 것입니다. 조정을 위해 축하를 드립니다. 근래 인재를 대감께서 〈소문을〉 들어 얻은 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감께서 시종 한결같이 해서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시일에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우선 먼저 편지를 올립니다. 〈할 말은〉 매우 많으나 이만 줄입니다.

바로 그 날 아침에 아우 명하(命夏) 올림.



사진 70
김창협 편지(金昌協 書簡) | 1687년

省禮言. 伏惟即日, 令候珍勝. 弟伯母鞠日遽迫, 悲痛益難遣, 挽語辭旨勤摯, 深感眷誼. 第七句上洛
二字, 有不能無疑者, 輒試還稟. 蓋安東之金有二譜, 弟家始祖, 則以麗初壁上功臣封古昌, 古昌即
今安東, 故子孫仍以爲籍. 而又一譜, 則以上洛君金
邦慶爲始祖, 雖亦以安東爲籍, 而世稱上洛金氏者,
實此譜也. 今此盛作混稱上洛, 豈未及詳此曲折
而然耶, 抑安東別號, 自是上洛而不妨通稱耶.
幸更審訂回示, 如何. 餘悲撓, 不宣. 謹狀上.
丁卯四月二十二日 期服人 金昌協 紋上.
安東一號永嘉故, 弟家則或以此稱謂矣.

예(禮)를 생략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영감께서 지내시는 형편이 좋으신지요. 저는 큰어머니의
발인(發引)날짜가 갑자기 다가와서 비통함을 더욱 견디기가 어려운데, 만사(挽辭)의 뜻이 근실하고
진지하여 들보아주시는 호의(好誼)에 심심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 7구(七句)의 상락(上洛) 2글자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 김씨는 2갈래의 족보(族譜)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시조(始祖)는 고려 초기의 벽상공신(壁上功臣)으로 고창(古昌)에 봉해졌는데, 고창
은 바로 지금의 안동이기 때문에 자손이 그대로 본적(本籍)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갈래의 족보는 상
락군(上洛君) 김방경(金邦慶)1)을 시조로 해서 비록 안동을 본적으로 삼았으나 세상에서 상락김씨(上
洛金氏)로 부르는 것이 실제로 이 족보입니다. 지금 번성하여 상락(上洛) <김씨를> 석어부르는데, 어
찌 이 곡절(曲折)을 상세하게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안동(安東)의 별호(別號)가 이 상락(上洛)
에서 <연유하여> 통칭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아서 입니까? 다시 살펴서 바로잡아 알려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나머지는 슬프고 정신이 산란하여 이만 줄이고 편지를 올립니다.

정묘(丁卯, 1687년) 4월 22일 1년 상중인 사람 김창협(金昌協) 올림



사진 71
조명채 편지(曹命采 書簡) | 1759년

落落然聞間, 開歲相閑, 瞻詠恒切. 伏惟辰下,
台起居增勝, 仰慰且溯區區不任. 弟峽養雖好,
衰病相尋, 無足奉聞. 歸不遠, 不能作歲問一事,
略將數種, 只伸耿耿. 不宣. 伏惟台照, 拜候狀上.
己卯臘月十三日 弟命采頓

소식이 아득하여 해가 지나도록 막히니 그리움이 늘 간절하였습니다. 근래에 대감께서 지내시는 형
편이 더욱 좋으신지 그리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산골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게 비록
좋으나 노쇠와 병이 찾아와서 말씀을 올릴만한 게 없습니다. 돌아온 지 오래되지 않아 한해 문안을 드
리는 일 하나도 하지 못해 간략하게 몇가지 물건으로 그리운 마음을 펼칠 뿐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대감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편지를 올립니다.

기묘(己卯, 1759년) 12월 13일 아우 명채(命采, 조명채) 올림.



사진 72
김조순 편지(金祖淳 書簡) | 1829년

此歲只剩五夜, 而嗣音分止於前度, 卽於便至, 承惠書,
審日來劇寒, 政履萬勝, 區區慰瀉之知. 石城上來之
夕, 靈面, 明日就吏, 旋因輕囚之放, 出來, 故爲之幸
甚. 又因廟奏, 不免還入, 然似不至於重勘矣. 大抵
默察人事, 休咎皆吾命分, 非人力之所間. 古之不動於

禍福者，卽其見理之明，自無所惑，亦不係於其性之剛柔，任之之外，無他耳。從姑如昨狀，而感氣終不快釋，可悶可悶。酒肴良醞之覲，依領，而是亦分外之物，可呵。餘冀迓新增護，不宣謝。

己丑臘月廿五日外從祖淳拜

이 해가 단지 다섯밤이 남았고 지난번에 소식이 끊어진 뒤에 인편이 와서 주신 편지를 받고, 근래 매우 추운 날씨에 정무(政務)를 보시는 형편이 좋으신 줄을 아니 매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석성(石城, 석성의 수령인 듯)이 올라온 저녁에 잠시 보았는데, 다음날 관리에게 체포되었다가 바로 죄가 가벼운 죄수를 풀어줌에 따라 나왔기 때문에 매우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조정의 주청(奏請)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모면하지 못했으나 중한 처벌에는 이르지 않을 듯합니다. 대개 사람의 일을 묵묵히 살펴보면 <남을> 원망할 것이 없이 모두 자신의 운명이고 사람의 힘으로 간여할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화복(禍福)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바로 명백한 이치여서 저절로 의심스러운 데가 없는 데다가 그 성품이 강건하고 부드러운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맡기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뿐입니다. 저는 여전하나 감기가 끝내 완쾌되지 않아 근심스럽습니다. 술과 안주 및 좋은 젓갈은 보내주신대로 잘 받았으나 이것도 과분한 물건입니다. 하하. 나머지는 새해를 맞아 더욱 좋으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기축(己丑, 1829년) 12월 25일 외종(外從) 조순(祖淳) 올림.



사진 73
이대재 7언율시(李大在 七言律詩) | 1838년

送卯君赴燕 연경(燕京)에 가는 동생을 전송하며

1) 去住閒忙若是差

君乘驥馬我廬鷗
四千里外三行客
六十年來一別家
暮景偏憐聯棣萼
邊風恨唱落梅花
何時鴈素平安字
留待前簷鵲語楂

가고 머물거나 한가하고 분주하게 이처럼 어긋나서

그대는 총마(驥馬, 어사가 타는 말)를 타고 나는 달팽이 같은 집에 있네
4천리 밖으로 <사행(使行)을> 가는 3명의 객
60년만에 한번 집을 떠나네
늘그막에 함께 한 형제가 유독 가련하고
변방의 바람에 떨어지는 매화가 한스러워 노래한다.
언제 기리기가 안부 편지를 가져오려나
앞자마에 지저귀는 까치소리를 기다린다.

2) 望六弟辭滿六兄

悠悠萬里赴燕京
雙垂白髮愁分袂
倒盡紅醪瀉遠情
利涉征驛前野濶
孤留隻雁暮洲鳴
百金買鏡應無憊
歸日相逢兩眼明

예순을 바라보는 동생이 예순의 형에게 인사를 하고

유유히 만리길의 연경으로 가네
백발의 두 늙은이 이별을 슬퍼하여
붉은 술을 다 먹으며 정을 쏟네
물을 건너 말은 광활한 앞 들로 나아가고
외롭게 남은 한 마리 기러기는 저물녘에 모래톱에서 우네
백금(百金)으로 안경을 사는 건 걱정이 없으리니
돌아와서 만날 때에 두 눈이 밝겠네

3) 壇唱篪賡仲季筵

燕雲極目望遙天
對面歡情聊隔夜
前頭別恨動經年
行行翠轆清晨發
黯黯青山白日眠
永矣冬宵何以遣
春風溟水式歸遙

훈(壇, 훑으로 만든 악기로 형을 의미)을 이어 지(篪, 대나무로 만든 악기로 동생을 의미)가 연주하듯 자리에 아래동생과 막내동생이 있고
연운(燕雲, 하북성)의 하늘을 멀리 바라다본다.

얼굴 미주하며 기쁜 정을 나누는 날이 겨우 하룻밤이고
앞으로 이별의 한은 해를 지나겠네
줄줄이 푸른 깃발이 새벽에 떠나면
청산(青山)은 어둡고 대낮에 잠을 자겠네
긴 겨울 밤을 어떻게 보낼는지
꽤수(溟水, 대동강)에 봄바람 불면 빨리 돌아오라

4) 道德文章稼牧傳

華夷嚮慕古今然
行中五客同其後

도덕(道德)과 문장(文章)은 가정(稼亭, 李穀의 호)과
목은(牧隱, 李穡)으로부터 전해졌고

중화(中華)에 대한 숭모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네
행중(行中)의 다섯명이 같은 후손이니

强半千年念乃先
燭闔肇基青海外
眞源直溯紫陽前
分明五百休明運
可矣今時命世賢

5) 書狀官兼御史名
粵曾王考昔殫誠
家携經籍貽謨大
身祛紋紈儉德成
赤腹深推孚蠢俗

丹心克盡格嚴明
召公是似周詩句
爲誦今朝送爾行

6) 左氏春秋讀者誰
百年胡運太支離
當時未雪陵燕恥
今日那能復漢儀
關北芳留三學士

華陽草宿一間祠
徒然抒抽俱空耳
萬事吞悲九叩時

오백년의 네 선조를 생각하라
혁혁한 가문의 시작이 청해(青海) 밖에 있었고
그 근원은 바로 자양(紫陽, 朱熹)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네
분명히 오백년 아름다운 운수(運數)이고
훌륭하다! 지금 세상에 이름이 드러날 인물이네.

서장관(書狀官)과 어사(御史)의 이름으로
증조부(曾祖父, 李台重)가 옛날에 정성을 다했네
집에선 경적(經籍)을 손에 들고 후손을 위한 계책이 컸으며
몸에는 비단옷을 벼리고 검소한 덕을 이루었네
적복(赤腹, 사심이 없는 진실된 마음인 듯)으로 깊이 미루어서
어리석은 풍속을 미덥게 하였고
단심(丹心, 충심)을 다해 엄중하고 분명하게 바로 잡았네
소공(召公, 周公의 동생)의 주(周)나라 때의 식구와 비슷해서
오늘 아침에 <시를> 읊어 네가 가는 길에 보낸다.

좌씨춘추(左氏春秋)를 읽은 자는 누구인가?
백년 오랑캐의 운수(運數)가 너무 지리하다
당시 연경(燕京, 명나라의 서울)을 침범한 치욕을 씻지 못했는데
오늘 어찌 한(漢)나라의 위의(威儀)를 회복하겠는가?
관북(關北, 관중의 북쪽)에 3학사(三學士, 청나라에 잡혀가 심양에
서 죽은 洪翼漢 · 尹集 · 吳達濟)가 남아있고
화양동(華陽洞)의 1칸 사당에서 노숙(露宿)하였네
한날 마음을 펼쳐보아도 모두 공허할 뿐이고
아홉 번 조아릴 때의 모든 일에 슬픔을 토한다.



사진 74
조석우 편지(曹錫雨 書簡) | 1850년

校理回, 伏問侍餘諸節一向康旺, 伏慰且喜. 多候不佳. 伏問比間, 體上更如何. 祖母主體節, 亦無損耶. 旋切伏慕之至. 甥侄間住郊舍, 因好兒病報入城, 而近雖脫危, 餘證尙彌留, 楠悶楠悶. 月初除拜承宣, 仍蒙恩敍, 旋拜亞銓, 因僚嫌, 復得移除候啣, 而此亦日間似蒙恩遞耳. 允牙安信, 種種入聞耳. 從舅主甲日不遠, 恐無由團會以過, 伏想甚以爲悵然也. 普茶二圓覓上耳. 庚戌十月十三日 甥侄 功服人 曹錫雨 上書

교리(校理)가 돌아와서 부모를 모시며 지내는 모든 형편들이 여전히 좋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위로가 되고 기쁩니다. 겨울 날씨가 좋지 않은데, 근래에 지내시는 형편은 어떠하신지요. 할머님의 건강에도 손상이 없습니까? 매우 그립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교사(郊舍)에 머무르다가 호아(好兒, 이름에 호가 들어가는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 때문에 성(城)에 들어왔습니다. 근래에 비록 위급함은 벗어났으나 나머지 중세가 여전히 이어져서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월초(月初)에 승선(承宣, 승지)을 제수받아 바로 서용(敍用)되는 은혜를 입었으나 곧이어 아전(亞銓, 이조 참판 또는 병조 참판)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 피혐(避嫌) 때문에 다시 후함(喉銜, 승정원의 직함)으로 옮겨 제수되었으나 이것도 일간(日間) 그만두는 은혜를 입을 듯합니다. 윤아(允牙, 상대방의 아들)의 안부는 종종 듣고 있습니까? 작은 외삼촌의 환갑(還甲)이 멀지 않은데 함께 모여서 지낼 수가 없을 듯하니 매우 섭섭해하시리라 여겨집니다. 보다(普茶, 차) 2원(圓)을 구해서 보냅니다.

경술(庚戌, 1850년) 10월 13일 생질(甥侄) 공복인(功服人) 조석우(曹錫雨) 올림.



사진 75
조두환 편지(曹斗煥 書簡) | 조선말기

數數漸晴佳, 伏惟體事旅禮昂頌. 第主倅丈間已
免本云, 此果的奇, 而果即遷喬耶. 甚蒐甚蒐. 幸
詳示爲希. 威亭之玉允, 近亦充健耶. 願聆. 似或
有京輶, 故茲付一函, 而遞不遞未可知, 亦未
知居住, 故皮封如是書之, 模糊極矣. 幸入那上書
封以送, 如何. 官報若來, 惠借, 而近奇或得的確者,
詳示, 如何如何. 弟事畜幸依耳. 留不備上.
即弟曹斗煥拜啓

자주 점차로 <날씨가> 맑고 좋아지는데, 객지에서 보내시는 형편이 그립습니다. 다만 주수(主倅, 예전에 자신이 살던 고을의 수령을 지칭)이 그 사이에 면직(免職)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확실한 소식이고 바로 높은 자리로 옮겨갔습니까? 매우 울적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정(威亭, 자나 호인 듯)의 아들은 근래에도 강건한지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 인편이 있을 듯해서 편지 1통을 부쳤으나 갈렸는지의 여부를 모르는 데다가 거주하는 곳도 모르기 때문에 편지봉투를 이처럼 써서 매우 모호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 편지봉투를 써서 보내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관보(官報)가 왔으면 빌려주시고, 근래의 소식 중에 정확한 게 있으면 상세히 알려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부모를 모시며 다행스럽게도 그럭저럭 지낼뿐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바로 아우 조두환(曹斗煥) 올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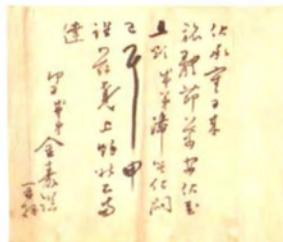


사진 76
김가진 편지(金嘉鎮 書簡) | 19세기

伏承審日來旅體節萬安, 伏慰且頌. 賦弟滯苦
伏悶已耳, 申往茲覓上. 餘姑不備達.
即日戚弟金嘉鎮再拜

<편지를> 받고 근래에 객지에서 보내시는 형편이 좋으신 것을 아니 위로가 됩니다. 저는 체기(滯氣)로 고생을 하여 근심스러울 뿐입니다. 신(申, 신아무개)이 가기에 <그것을> 구해 보내드립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바로 그 날에 척제(戚弟, 친척 관계의 동생) 김가진(金嘉鎮) 올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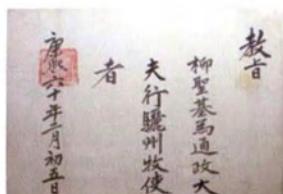


사진 83
여주목사 교지(驪州牧使 教旨) | 1721년

教旨
柳聖基爲通政大夫驪州牧使者
康熙六十年二月初五日

교지
유성기를 통정대부행여주목사로 임명함.
강희 61년 2월 5일

※ 참고문헌

- 『명성황후 편지글』, 이기대 편저, 다운샘, 2007.
『여주의 옛 문서』, 여주군향토사료관, 역사만들기, 2009.

전시회 사진



사진 96 특별전 전경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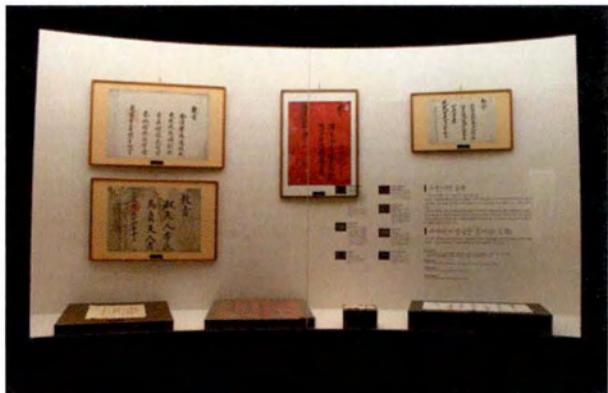


사진 97 나라에서 발급한 문서 | 2012년



사진 98 개인문서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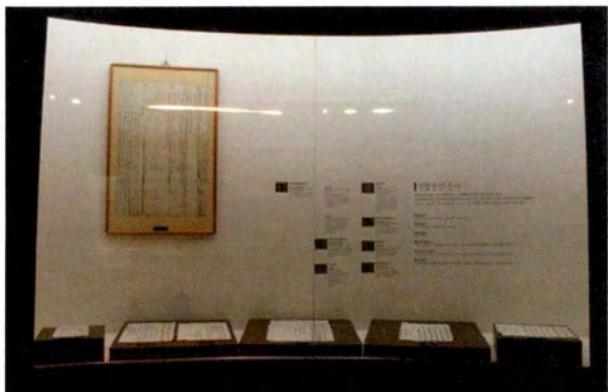


사진 99 생활문서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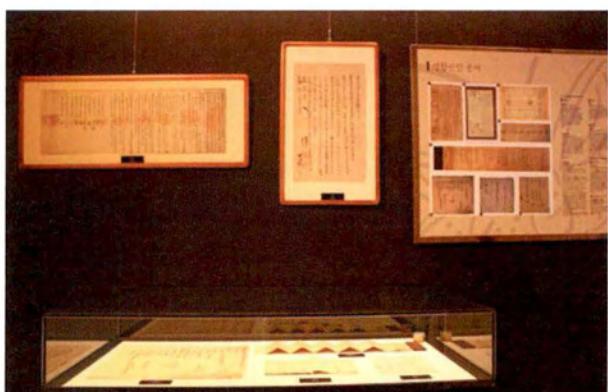


사진 100 생활문서 | 2012년



사진 101 특별전 전경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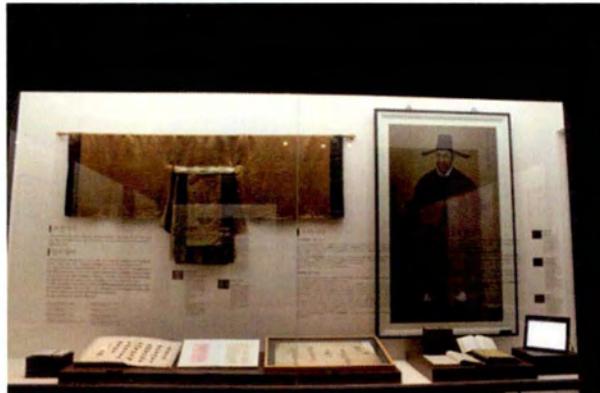


사진 102 고려, 조선시대 여주의 인물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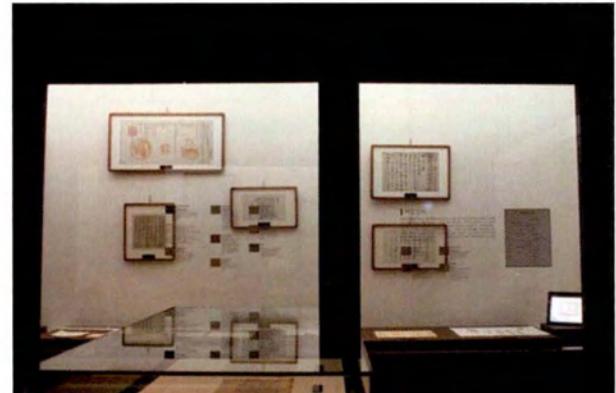


사진 103 여흥 민씨 옛 문서 | 2012년



사진 104 원주 원씨 옛 문서 | 2012년



사진 105 원주 원씨 옛 문서 | 2012년



사진 106 여주의 옛 문서와 소품 | 2012년



사진 107 개막행사 모습 | 2012년

표 목록

표 1

명성황후 가계도

明成皇后 家系圖

Genealogical chart of Empress Myungsung

사진 목록

사진 1

정부인이씨 교지

貞夫人李氏 教旨

Royal Edict of Mrs. Lee

56×86

1685년

사진 2

김한기 교지

金漢耆 教旨

Royal Edict of Kim Han-gi

59.5×85.5

1767년

사진 3

심상희 칙명

沈相禧 勅命

Royal Edict of Sim Sang-hui

39.7×57

1903년

사진 4

민태식 전령

閔台植 傳令

Written official order of Min Tae-sik

35.7×79

1886년

사진 5

원경렴 흥패교지

元景濂 紅牌教旨

Royal Edict of Won Gyeong-ryeom

83.7×66

1757년

기증 : 원덕연

사진 6

김응구 흥패교지

金應龜 紅牌教旨

Royal Edict of Kim Eung-gu

100.5×70

1888년

기증 : 김덕배

사진 7

준호구

准戶口

Census register

50.4×43.2

1867년

사진 8

계문

啓文

Chosen document

13.5×45.7

1878년

사진 9

관문

關文

Official document

37.6×53

1889년

사진 10

첩정

牒呈

Written report to a superior official

35.3×35.5

1890년

사진 11

원경하 편지

元景夏 書簡

Letter of Won Gyeong-ha

36.5×141

1729년

사진 12

민정중 편지

閔鼎重 書簡

Letter of Min Jeong-jung

36×50

1684년

사진 13

이광건 과지

李廣健 科紙

Examination paper of Lee Gwang-geon

71.4×182

1801년

사진 14

구호 과지

具浩 科紙

Examination paper of Koo Ho

149×106

조선

사진 15

김만재 과지

金萬載 科紙

Examination paper of Kim Man-jae

46×340

1888년

사진 16

계유식 사마방목

癸酉式 司馬榜目

Register of successful candidate

30.7×20.3×1

1693년

사진 17

혼서지

婚書紙

Matrimonial epistle sent to the bride's family from the bridegroom's
44.2×55.3
1952년

사진 18

연길답서

涓吉答書

Choice answer of marriage day
37.3×39.2
1830년

사진 19

명문(전답매매문서)

明文(田畠賣買文書)

Deal document of dry fields and paddy fields
39.2×48
1862년

사진 20

환퇴명문

還退明文

Document of purchase refunded
54.5×36.5
1863년

사진 21

명문(매매문서)

明文(賣買文書)

Deal document of land
67.5×46.5
1883년

사진 22

명문(전답매매문서)

明文(田畠賣買文書)

Deal document of dry fields and paddy fields
54×35
1891년

사진 23

명문(전답매매문서)

明文(田畠賣買文書)

Deal document of dry fields and paddy fields
58.5×35.5
1908년

사진 24

호적단자

戶籍單子

Census register
86×137
1774년

사진 25

호적표

戶籍票

Census register
33.2×20.8
1900년

사진 26

발괄

白活

Petition document
59.5×35
조선

사진 27

등장

等狀

Appeal document
111×155.5
조선

사진 28

등장

等狀

Appeal document
152×70
조선

사진 29

화화문기

和會文記

Inheritance document
32×88
1678년

사진 30

축문식

祝文式

Written prayer
20×19.5
20세기초

사진 31

장사택일기

葬事擇日記

Choice document of funeral day
50.3×56
조선

사진 32

안동권씨 기신록

安東權氏 忌辰錄

Deathday document of An Dong Kwon
14.6×68
조선

사진 33

물목기

物目記

List of goods
24.4×21.9
1889년

사진 34

이규보 영정

李奎報 影幀

Portrait of Lee Gyu-bo
207×130
1989년

기증 : 이건현

사진 35

국역동국이상국집

國譯東國李相國集

Korean translation of Donggukisanggukjip
21×15×3.3
현대

기증 : 이건현

사진 36

가정집

稼亭集

Collection of Lee Gok's works
35.2×22.1×1.6
조선

사진 37

세종대왕릉(英陵) 전경

世宗大王陵(英陵) 全景
View of Yeongneung

사진 38

효종대왕릉(寧陵) 전경

孝宗大王陵(寧陵) 全景
View of Yeongneung

사진 39

영릉참봉교지

英陵參奉教旨

Office Warrant of Lee Bok-lyung for his Appointment
as Assistant Tomb keeper
54.2×77.2
1743년

사진 40

영·영릉 보고문서

英·寧陵 報告文書
Yeongnyeongneung report
30×38.5
1900년

사진 41

옥류천상화첩

玉流川賞花帖
Okryucheonsanghwacheop
25.5×30.5
조선후기

사진 42

명성황후생가 전경

明成皇后生家 全景
House of Empress Myungsung's birth

사진 43

명성황후 편지

明成皇后 簡札
Letter of Empress Myungsung
1 : 22.5×12.7 / 2 : 25.2×21
19세기후반

사진 44

가승

家乘
Genealogy of Yeo Heung Min
12.7×24.2
조선

사진 45

민시중 편지

閔蓍重 書簡
Letter of Min Si-jung
28.5×35
1674년

사진 46

민정중 편지

閔鼎重 書簡
Letter of Min Jeong-jung
37.3×48.5
1680년

사진 47

노봉집

老峯集
Collection of Min Jeong-jung's works
28.7×18.8×1.6
17세기

사진 48

민유중 편지

閔維重 書簡
Letter of Min Yu-jung
38.7×53.8
1680년

사진 49

민진원 편지

閔鎮遠 書簡
Letter of Min Jin-won
32×33
1696년

사진 50

민진후 편지

閔鎮厚 書簡
Letter of Min Jin-hu
32×46
1717년

사진 51

민치록 송시편지

閔致祿 送詩書簡
Letter of Min Chi-rok
23.8×38.9
19세기

사진 52

민응식 편지

閔應植 書簡
Letter of Min Eung-sik
25.5×30.5
조선후기

사진 53

민승호 편지

閔升鎬 書簡
Letter of Min Seung-ho
25×31
1867년

사진 54

민영환 편지

閔泳煥 書簡
Letter of Min Yeong-hwan
29.7×47
1889년

사진 55

민영익 편지

閔泳翊 書簡
Letter of Min Yeong-ik
편지 : 25.6×28.1 / 봉투 : 17.6×11.9
1900년경

사진 56

민태식 교지

閔台植 教旨
Royal Edict of Min Tae-sik
57×70.1
1882년

사진 57

민영기 진위전문

閔泳琦 陳慰箋文

Written grief of Min Yeong-gi

41×85.5

1890년

사진 58

원주원씨세보

原州元氏世譜

Genealogy of Wonju Won

35.2×23.2×1.7

조선

사진 59

원주원씨세계

原住元氏世系

Genealogy of Wonju Won

14.7×62

조선

사진 60

원두표 편지

元斗杓 書簡

Letter of Won Du-pyo

25×31

1657년

사진 61

충익공 유묵

忠翼公 遺墨

Autographs of Won Du-pyo

33.6×23.3×2

17세기

기증 : 원덕연

사진 62

원두표 시호교지

元斗杓 諡號教旨

Posthumous name Royal Edict of Won Du-pyo

71×113

1698년

기증 : 원덕연

사진 63

원두추 편지

元斗樞 書簡

Letter of Won Du-chu

27×23.4

17세기

사진 64

원익손 교지

元翼孫 教旨

Royal Edict of Won Ik-son

46.9×97.4

1744년

기증 : 원덕연

사진 65

원익손묘 출토 저고리와 여모

元翼孫墓 出土 赤古里, 女帽

Excavated jacket and cap of Won Ik-son's grave

저고리1 : 40×133 / 저고리2 : 40×132 / 여모 : 45×31.5

18세기

기증 : 원덕연

사진 66

호패

號牌

Identity tag

(1) 32×81×0.5 (2) 25×98×0.9

(3) 29×10.6×1 (4) 24×87×0.9

(5) 29×10.7×0.9 (6) 2×7.9×0.5

1685~1882년

기증 : 원덕연

사진 67

기천서원

沂川書院

Gicheon Seowon

사진 68

홍명구 편지

洪命壽 書簡

Letter of Hong Myeong-gu

22×32

1630년

사진 69

홍명하 편지

洪命夏 書簡

Letter of Hong Myeong-ha

22×32

17세기

사진 70

김창협 편지

金昌協 書簡

Letter of Kim Chang-hyeop

23×38

1687년

사진 71

조명채 편지

曹命采 書簡

Letter of Cho Myeong-chae

33×32

1759년

사진 72

김조순 편지

金祖淳 書簡

Letter of Kim Jo-sun

33×48.5

1829년

사진 73

이대재 7언율시

李大在 七言律詩

Poetry of Lee Dae-jae

27×50.5

1838년

사진 74

조석우 편지

曹錫雨 書簡

Letter of Cho Seok-u

35×47

1850년

사진 75

조두환 편지

曹斗煥 書簡

Letter of Cho Du-hwan

25×41

조선말기

사진 76

김가진 편지

金嘉鎮 書簡
Letter of Kim Ga-jin
26×29
19세기

사진 77

우암집

寓庵集
Collection of Kim Ju's works
29.7×19.1×1.2
1934년
기증 : 김용주

사진 78

윤승길 영정

尹承吉 影幀
Portrait of Yoon Seung-gil
261×120.2
1613년경
기탁 : 윤중진

사진 79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海平尹氏 東岡公派 宗宅
Main house of Haeyeong Yoon
1891년

사진 80

화산군 묘지석

花山君 墓誌石
Memorial stone of Hwa San-gun
1 : 19.7×13.8×1.2 / 2 : 19.8×6.7×1.4
18세기

사진 81

화산군 조복

花山君 朝服
Court suit of Hwa San-gun
125×240
18세기

사진 82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驪州牧
Sinjeung Donggukyeojiseungram
34×21.2×2
조선중기

사진 83

여주목사 교지

驪州牧使 教旨
Royal Edict of Yoo Seong-gi
51×77
1721년

사진 84

여주향교

驪州鄉校
Yeoju Hyanggyo

사진 85

여주향교수보기사

驪州鄉校修補記事
Old document of the Repairing Yeoju school
40.7×30×2.5
18세기

사진 86

향교재임선생안

鄉校齋任先生案
Staff list of the Yeoju school
40×29×2
조선

사진 87

여주금양정계입안

驪州禁養定界立案
Decision
33.2×21.8×0.3
1800년

사진 88

백자 복숭아 모양 연적

白磁 青畫 桃形 琥滴
Blue and White Porcelain Peach-shaped Water Dropper
13×8
조선

사진 89

백자 복숭아 모양 연적

白磁 青畫銅彩 桃形 琥滴
Blue and White Porcelain Peach-shaped Water Dropper
10.5×9.5
19세기

사진 90

백자 복숭아 모양 연적

白磁 桃形 琥滴
White Porcelain Peach-shaped Water Dropper
8×9
17~18세기

사진 91

백자연적

白磁 琥滴
White Porcelain Water dropper
4×8.5
조선

사진 92

백자서등

白磁 書燈
White Porcelain Lamp
18×10
조선말기

사진 93

벼루, 봇, 연적, 백속, 도련지

硯, 筆, 琥滴, 白屬, 捣鍊紙
Inkstone, Writing brush, Water dropper, Letter paper
벼루 : 17.5×10×4 / 봇 : 27.5, 25.3, 22.5 / 연적 : 6.2×6.6×4.3
백속 : 29.5×6.5 / 도련지 : 24.7×5.7
19세기말~20세기초

사진 94

연상

硯床
Stationery desk
27×43×25
19세기말~20세기초

사진 95

필통

筆筒
Writing-brush stand
16×14
조선

사진 96

특별전 전경

特別展 全景

View of special exhibition

2012년

사진 107

개막행사 모습

開幕行事

Opening ceremony of special exhibition

2012년

사진 97

나라에서 발급한 문서

公文書

Document issued by Authorities

2012년

사진 98

개인문서

私文書

Personal Documents

2012년

사진 99

생활문서

生活文書

Living-related documents

2012년

사진 100

생활문서

生活文書

Living-related documents

2012년

사진 101

특별전 전경

特別展 全景

View of special exhibition

2012년

사진 102

고려, 조선시대 여주의 인물

高麗, 朝鮮時代 驪州 人物

Old people of Yeoju

2012년

사진 103

여흥 민씨 옛 문서

驪興 閔氏 古文書

Old documents of Yeoheung Min

2012년

사진 104

원주 원씨 옛 문서

原州 元氏 古文書

Old documents of Wonju Won

2012년

사진 105

원주 원씨 옛 문서

原州 元氏 古文書

Old documents of Wonju Won

2012년

사진 106

여주의 옛 문서와 소품

驪州 古文書 小品

Old documents and properties of Yeoju

2012년

선인들의 숨결을 느끼다

여주의 옛 문서

Old Documents of Yeoju

전시총괄 | 남상용(여주군 문화관광과장)
전시기획 | 구본만(여주군 학예연구사)
박보경(여주군 학예연구사)
원고집필 | 구본만 · 박보경
교열 · 교정 | 구본만 · 박보경
편집 · 인쇄 | (주)이마주텍처

발행일 : 2012년 7월

발행인 : 여주군수

발행처 : 여주박물관

편집제작 : (주)이마주텍처

© 여주박물관, 2012



여주박물관 Yeoju Museum
469-809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신륵사길 6-12
TEL : (031)887-3581~2 FAX : (031)887-3585
E-mail : pbkblue@korea.kr

書年 仁子田上右半日耕
大斗之以自固之于田三下三水之年
李代翁碑業祥二生外業就年甲辰

여주의
예 문 특 전

外直仁一生不吸烟年二十有二
十九年平日精神固于常人二十
有九不外不外不外不外不外不外